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5 No.2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5년 11월
20권 2호
KOICA

본 원고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국제개발협력

20권 2호 2025년 11월

연구논문

분절화된 무상원조 시행체계 내 효과적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이행 방안 ····· 3
정용우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서의 한국어교육 가능성 탐색: 콜롬비아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 분석을 중심으로 ····· 25
최예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From Community-Led Reforestation to Women's Empowerment: A Case Study of World Vision's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in Kenya ····· 45
Yoonho Cho (Senior Researcher, World Vision Korea)
Jiyeon Yu (Monitoring & Evaluation Advisor, World Vision Korea)
Yaeji Hwang (Grant Manager, World Vision Korea)
Jeongeun Son (Technical Advisor for Climate Change, World Vision Korea)

모리타니아 다르비다(Dar El Beida) 지역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아동 대응 주민 주도 통합모델 PBN (Programme Better Nutrition) 파일럿 사례 연구 ····· 89
조미경 (더멋진세상 모리타니아 지부 프로젝트 매니저)
정선희 (CHE코리아 전문강사)
김수정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윤리적 개입 전략: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성찰적 실천 ····· 115
남수연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조교수)

『국제개발협력』 운영지침 ····· 143

Cont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Vol. 20, No. 2, November 2025

Original Articles

The Implementation Strategy for Environmentaland Social Safeguards within Fragmented Grant Aid Systems: An Analysis ····· 3
Yongwoo Jeong (Department of Environment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Potenti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Global Competence among Colombian Learners ····· 25
Yeseul Choi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From Community-Led Reforestation to Women's Empowerment: A Case Study of World Vision's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in Kenya ····· 45
Yoonho Cho (Senior Researcher, World Vision Korea)
Jiyeon Yu (Monitoring & Evaluation Advisor, World Vision Korea)
Yaeji Hwang (Grant Manager, World Vision Korea)
Jeongeun Son (Technical Advisor for Climate Change, World Vision Korea)

A Community-Led Integrated Model for Moderate Acute Malnutrition Response in Dar El Beida, Mauritania: A Better Nutrition Programme Pilot Case Study ···· 89
Mikyung Cho (Project Manager, Mauritania Branch, Better World)
Sunhee Chung (Certified CHE Instructor, CHE Korea)
Soojung K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Negotiating Ethical Boundar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 Reflexive Framework for Culturally Embedded Interventions ····· 115
Souyeon Na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ungkyul Universtiy)

JIDC Guidelines ····· 143

연구논문

1. 분절화된 무상원조 시행체계 내 효과적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이행 방안

정용우

2.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서의 한국어교육 가능성 탐색: 콜롬비아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 분석을 중심으로

최예슬

3. From Community-Led Reforestation to Women's Empowerment: A Case Study of World Vision's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in Kenya

Yoonho Cho, Jiyeon Yu, Yaeji Hwang, Jeongeun Son

4. 모리타니아 다르비다(Dar El Beida) 지역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아동 대응 주민 주도 통합모델 PBN(Programme Better Nutrition) 파일럿 사례 연구

조미경, 정선희, 김수정

5.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윤리적 개입 전략: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성찰적 실천

남수연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5, 20(2), 3-24
https://doi.org/10.34225/jidc.2025.20.2.3
pISSN: 2093-212X, eISSN: 2671-9797

연구논문

분절화된 무상원조 시행체계 내 효과적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이행 방안*

정용우**

요 약

환경사회세이프가드의 이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OECD 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을 비롯한 DAC 회원국들은 각자의 원조 시행체계 내에서 환경사회세이프가드를 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DAC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체계 속에서 환경사회세이프가드의 이행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분절화된 무상원조 시행체계를 보유한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대상으로는 외교부가 통합적으로 원조를 추진 중인 호주, 유무상을 단일 원조 기관에서 집행 중인 일본, 분절화된 체계 내 무상원조를 추진 중인 독일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국가 모두 세이프가드의 이행 목적은 동일하나 운영 방식과 세부 제도는 상이하였다. 일본의 경우, 외부 자문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체계가 확보되어 있으며 호주는

* 본 논문은 정용우의 2025년도 석사학위 논문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 Corresponding author: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 yongwoo@koica.go.kr

© Copyright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외교부가 전체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양식을 제공하며 환경사회세이프가드의 이행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공여국인 독일은 전체 주기에 걸쳐 환경 주류화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한국 무상원조 시행체계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이행은 기본적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객관성 검증체계 확보와 시행기관 간 역량 편차 해소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타 공여국의 사례 중 우리 무상원조 시행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주제어: 국제개발협력, 환경사회세이프가드, 기후변화, 원조분절화

Ⅰ. 서론

한국의 개발협력은 2010년 OECD 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고 원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체계 개편을 시도하며 개발협력의 양적, 질적 개선을 달성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무상원조의 경우 다수의 기관들이 각자 원조 예산을 보유하며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분절화 문제를 여전히 노정하고 있다.

분절화된 개발협력 체계는 원조의 효과성 측면에서 다각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공여국 입장에서는 일관된 원조 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해 추가적인 조정 비용이 투입되며, 대체로 행정인력이 부족한 수원국의 측면에서는 협의 대상과 범위를 증가시켜 원조 피로도를 높이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또한 공여국 대다수의 시행기관들은 개발협력 업무에 특화된 기관이 아니기에 자국 기업의 진출을 비롯한 국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에서 시행되는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역량과 이해도의 편차에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ODA 예산 확대 추세에 따라 기존에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소규모 시행기관들이 인프라를 포함하는 형태의 사업을 시도하며 환경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절화된 무상원조 시행체계 내에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환경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사회세이프가드는 개발협력 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사전적 관리를 실제로 이행하는 정책수단이다. 그간 주로 환경사회세이프가드에 대한 연구는 유상원조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는데, 이는 유상원조 사업이 무상원조 대비 사업 규모가 크고 대규모 인프라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사회적 영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무상원조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기술협력 위주의 사업에서 인프라 구축과 같이 환경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절화된 한국의 무상원조 시행체계 내에서 일관된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OECD 동료검토와 국제사회 동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OECD DAC 공여국들이 다양한 개발협력 시행 체계 내에서 환경사회세이프가드를 운영하는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 논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ESS)란 개발협력 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수단을 통해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각 원조기관이 수행해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 내 환경사회세이프가드에 대한 논의는 크게 양자 공여국의 협의체인 OECD와 차관 업무를 주로 추진하는 다자개발은행이 양 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원조 시행체계에 적용 가능한 함의점을 찾기 위해 분석 범위를 다자개발은행을 제외한 OECD 내에서의 논의 흐름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OECD에서 최초로 개발협력 내 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회원국에 명문화하여 권고한 시점은 1985년이다. OECD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환경평가에 대한 의회의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envi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s, 1985, 이하 '권고 문서')'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전체적인 개발협력 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함께 수원국의 환경영향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제안 사항들의 이행을 권고하였다.

OECD는 이 권고 문서에서 전체 환경영향 평가를 착수하기 전 스크리닝 절차의 이행필요성과 함께 환경영향 평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가급적 빨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시에는 수원국 정부 관계자와 사업에 영향을 받는 민간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환경영향이 있다고 판단 시에는 이를 저감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저감 방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권고 문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략적인 체계를 정립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비자발적 이주를 포함한 사회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하고 정보공개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같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권고문서에서는 OECD 내에서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통해 이러한 추가적인 사항들을 논의토록 하였다.

이 권고문서의 후속조치로 OECD DAC는 1991년, 비자발적 이주를 포함한 사회적 측면의 고려와 함께 실제 공여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논의하였다. OECD DAC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추진 시 기획단계부터 시행되고 이후 사업의 선정 및 이행 과정에 유기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1985년의 권고 문서와 대비 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사업 선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틀

은 유사하나,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검토 절차가 추가되고 공여국이 개발협력 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재정착이나 이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하면 실현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이주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재정착이 불가피한 경우 비자발적 이주민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논의가 확장되었다.

OECD DAC는 다양한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논의를 진행하는데 환경과 개발협력 간 연계의 중요성을 위해 2003년 환경과 개발 네트워크(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ENVIRONET)를 설립하였다. ENVIRONET은 의장 1명과 3명의 공동의장 체계로 구성되며, DAC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들도 옵저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NVIRONET은 OECD DAC 회원국 간 개발협력 내 환경 주류화 현황을 상호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주류화(environment mainstreaming)은 개발협력 정책 및 계획, 예산 수립과 행동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개발협력에 있어 모든 절차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개발협력에서 환경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제도를 비롯한 환경주류화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ENVIRONET은 2017년부터 환경주류화 현황 및 상호조사를 2년간 실시하였다. OECD DAC 회원국 중 30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23개의 회원국이 응답하였으며, 평가단이 EU와 스웨덴, 캐나다를 방문하여 결과를 정리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제도는 기후변화 주류화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설문조사 대상 응답국의 78%(18개국)이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1985년 개발협력 내 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성에 대한 권고로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논의는 비자발적 이주를 포함한 사회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제도 확대로 이어졌고, 이후 모든 사업 단계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환경주류화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환경주류화 흐름 속에서도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는 최소한의 예방조치로서 OECD DAC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원조 규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표 1〉 OECD DAC 회원국 환경주류화 설문조사 주요 결과

- 91%의 회원국, 사업기획단계에서 환경목표 반영
- 78%의 회원국, 환경 세이프가드 운영 중
- 70%의 회원국, 본부직원들의 환경주류화 역량 보유
- 43%의 회원국, 전략적 환경평가(SEA) 및 그에 준하는 제도 운영 중

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 한국의 분절화된 무상원조 시행 체계

한국의 개발협력 시행체계는 국무조정실을 총괄로 하되 유상과 무상을 각각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주관기관으로서 기능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유상원조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가 단일 시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무상원조의 경우 2025년 기준 40개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분절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ODA 예산 증가에 따라 다양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되나, 이해관계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행기관 수와 더불어 예산의 관점에서 분절화를 살펴보면 주관기관 및 유무상원조 전담 기관들을 제외한 17%의 예산이 기타 시행기관들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김은미 · 김지현(2011)은 한국의 원조 체계에서는 부처 간의 공동의 목표의식이나 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법률에 의거해 경쟁적으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원조를 시행하는 기관들의 책임성과 전문성, 도덕성이 약화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2010년에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원조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을 준수하고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OECD DAC 동료 회원국 간 시행하는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확인된다. 한국은 2025년까지 총 3차례를 수검하며, 환경사회 검토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원조 규범에 대해 이행을 권고받은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제3차 동료검토를 위해 제출한 자기평가 보고서(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self assessment report, 2023)에 따르면 한국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환경사회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제도를 고도화하였으며, KOICA가 GCF 이행기구 인증을 받기 위해 2021년도에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제도를 고도화한 성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정부차원에서 2018년에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적시되어 있으나, 무상원조에 있어서 KOICA를 제외한 다른 시행기관들이 어떠한 형태로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표 2〉).

이러한 현상은 무상원조 시행기관 중 KOICA를 제외한 공공기관들은 개발협력 목표 달성이 설립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협력 분야 국제 동향이나 준수 규범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ODA를 활용한 국익 추구 목적에 보다 관심이 높아 환경 및 사회 영향 보호 조치에 대한 동인이 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 ODA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무상원조 시행기관들의 사업규모가 확대되며 환경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도 OECD DAC 회원국으로서 전체 무상원조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표 2〉 OECD DAC 동료검토 시 환경사회세이프가드 관련 권고

구분	권고사항
제1차 (2012)	EDCF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제도를 기반으로 환경 세이프가드를 구축했으며, KOICA도 2012년부터 파일럿 형식으로 기후변화 주류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전체 시행기관들에게 적용 확산되기 위한 시범 시행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차 (2017)	모든 유무상 원조에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이슈를 주류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DCF와 KOICA 모두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했으며, EDCF는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기준을 참고하여 세이프가드 정책을 마련하였다.
제3차 (2024)	한국은 사업 설계 및 시행에 있어서 기후에 대한 고려사항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수단을 다각화했다. 무상지원과 관련하여 KOICA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선별,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잠재적 위험 사업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관리계획 수립 등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환경, 사회적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다른 시행기관이 실제로 어떠한 절차와 보호 조치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출처: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2012, 2024) 기반 저자 재구성.
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DB, Asian Development Bank;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3. 선행연구 및 시사점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차관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 및 유상원조 기관에 집중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차관사업이 무상원조 대비 단위 사업별 규모가 크고 대규모 인프라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사회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OECD DAC 국가들의 무상원조 공여비중은 평균 총액 대비 89%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무상원조 비중과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 무상원조 기관들에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총괄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의 3단계로 구성된 독특한 개발협력 체계 하에서 분절화된 ODA를 실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관별 이행 현황을 넘어 범정부적 개발협력 체계 속에서 환경사회세이프가드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시행체계 내 환경주류화 관점의 확대에 대한 연구로 정지원 외(2019)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17년 ODA 사업에서 기후변화 주류화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기후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모든 사업의 발굴 단계에서 기후위험을 고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를 마련한 것을 당시 한국의 개발협력 역량과 여건 내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착수점으로 긍정 평가하였다.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의 일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기후변화 주류화 관점에서 연구한 사례도 있다. 이초란(2022)은 주요 공여국인 미국과 독일의 개발협력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비교 연구를 통해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기후위험 요소 측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계획단계에서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행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발협력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한국의 체계 내에서 실질적 이행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의 비교가 아닌 각 국가별로 상이한 개발협력 체계 속에서 법 제도 및 세이프가드 총괄 부처, 이행 메커니즘을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OECD DAC 국가 중 한국과 ODA 규모가 유사하고 무상원조 중심으로 원조가 추진되는 호주의 사례와 유상과 무상을 단일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본, 분절화된 체계에서 무상원조를 추진 중인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개발협력 체계 내에서 개선을 위해 적용이 가능한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국가별 환경사회세이프가드 비교 분석

1. 국가별 환경사회세이프가드 분석

1) 일본

일본은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주요 공여국 중 하나로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를 중심으로 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개발협력백서를 통해 ODA를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 체계를 보면, 총리실의 주도하에 외무성이 개발협력 주관부처 역할을 맡고 있으며, JICA가 대부분의 원조 사업을 집행하는 시행기관으로 기능한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원조 체계를 정립하는 초기에 일본의 개발협력 체계 및 법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바 있다. 1987년 EDCF 설립과 1991년 KOICA 설립이 그 주요 사례이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JICA를 중심으로 유상 및 무상 원조를 통합하여 'New JICA'를 발족하는 일원화된 시행기관 체계로 체제를 개편하였다. 반면 한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유상과 무상원조를 주관하며 다양한 시행기관이 존재하는 분절화된 시행체계로 발전하였다. 일본의 경우 JICA와 외무성이 전체 ODA 예산의 89.1%를 집행하며, 나머지 10.9% 또한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 부처를 통해 집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2020년 일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OECD DAC 동료검토에서 평가단은 일본이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환경사회영향 스크리닝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JICA의 환경사회 배려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을 통해 체계적으로 환경사회 영향에 대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JICA 가이드라인은 기본원칙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다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원칙에 입각한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코자 하였다는 점과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개발은행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와 타 공여국의 사례를 참고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JICA 가이드라인은 2008년 JICA가 유무상 통합 기관으로 거듭난 2년 이후인 2010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유무상 원조 전체 범위에 적용된다. 다만, 전쟁이나 자연재해 복구와 같은 긴급한 개발협력에 대해서는 환경사회배려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에 보고하고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JICA 가이드라인은 제정 이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 및 기후변화 논의와 같은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2022년에 개정되었다. 개정 과정에서 학계, 시민사회, 민간, 유관부처로 구성된 환경사회배려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초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취하며 투명한 의사결정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가이드라인은 5년 이내에 실행 측면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0년 내에 종합적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종합적 검토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시, 일본 정부관계자 및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JICA 가이드라인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공정성 측면에서는 객관성 담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평가단으로 운영되는 이의절차(objection procedure)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JICA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행했는지와 JICA가 추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여 중재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독립평가단은 매년 3명으로 구성되는데, 경제학 및 환경공학 전공의 학계나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인원과 활동 내용은 매년 JICA의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공개된다.

이의절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건의 검토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주로 토지 및 이주와 관련된 분쟁의 재검토 요청이었다. 이러한 독립 평가단 제도는 JICA 내부 인사나 재외공관의 외압 없이 객관적인 사업 이행을 가능하게 하며 가이드라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JICA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사회 배려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을 구성하여 환경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문위원회는 총 41개의 사업을 검토하고 JICA에 557건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였는데 JICA는 이 중 98.7%인 550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조정하였다. 이는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JICA는 공식적으로 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조공장 · 마츠모토 사토루(2016)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교수 및

연구자, NGO 관계자로 구성되며, 2년의 임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환경정책, 환경법, 환경학, 자연환경 및 사회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일본의 JICA가 유상과 무상을 총괄하며 세이프가드를 이행하고 정보공개, 이의제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유상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무상은 외교부와 KOICA를 비롯한 여러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차이점이 있는데 JICA와 외무성이 89.1%의 예산을 집행하며 대부분의 원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외교부와 KOICA가 35.7%, 기획재정부와 EDCF가 47.3%를 집행하며 이외의 시행기관들이 17%를 집행하며 예산 측면에서도 분절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세이프가드 이행 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스크리닝 결과와 이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의 유무이다. JICA가 내부직원 없이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모니터링까지 자문을 받는 것에 반해, 한국은 독립된 외부 자문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 또한 JICA의 외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자문의 영역을 넘어 실질적 사업 계획서 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원조 체계 전반에 있어서는 민간 위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원조에서 유무상을 총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12명의 민간위원을 두고, 실무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나 이 위원들은 보건, 개발협력, 시민사회와 같이 개발협력의 전반적 분야에 걸쳐 구성되어 환경적 측면을 전문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인사가 부족하고 산하의 실무위원회나 평가전문 위원회의 역할 중에서도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주관기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에서 신규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무상원조관계기관 협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통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검증 절차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2) 호주

호주는 한국과 유사한 규모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국가이다. 호주는 지정학적 위치 상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다. 호주 주변 국가들의 다수가 태평양 도서국으로 취약한 국가들이 많아 불법이민이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호주는 원조를 인근 국가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주는 대부분의 원조를 무상원조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가 정책수립부터 사업 집행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일원화된 체계는 2013년 이후 구축된 것으로, 이전에는 독립된 호주국제개발청(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과 외교통상부가 개발협력 업무를 분담하였다. 2013년 당시 호주 정부의 집권

당 교체에 따라 개발협력과 외교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통합되며 호주는 일원화된 집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호주의 개발협력 환경정책은 호주 외교통상부가 2014년에 발표한 정책문서인 Environment Protection Policy for the Aid Program을 근거로 수립되었다. 이 문서에 의하면, 호주는 1999년부터 시행된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EPBC act)에 따라 해외에서 추진되는 활동이 환경적으로 발생시킬 영향을 피하거나 경감할 의무를 진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제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협력 사업에 자국의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환경사회세이프가드에 대한 법률적 배경을 갖추고 있다. 이는 호주 외교통상부 이외의 다른 정부부처가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호주의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을 준수하도록 강제되므로, 전체 호주 원조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사회세이프가드의 구속력은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호주 외교통상부는 원조의 대부분을 직접 집행하며 범정부적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협력 법제가 없더라도 일관성 있는 원조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호주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는 2018년에 수립되었으며, 호주 외교부를 경유하는 모든 원조에 적용된다. 호주는 개발협력사업 프로그래밍 가이드에서 환경사회영향 스크리닝을 기획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규명한다. 세이프가드는 '위험 및 스크리닝 식별 도구(risk and safeguard screening tool)'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 식별 도구는 총 9개의 주요 분야에 대한 위험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작성되며, 분야별 5개에서 14개의 세부 항목들에 대한 위험을 점검토록 구성되며, 식별된 위험들은 총 4단계(low, medium, high, very high)로 구분되며 위험도가 높은 단계(high, very high)로 분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사회영향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와 환경사회관리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ESMP)의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된다.

스크리닝 단계에서 사업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significant impact)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면 호주 환경부의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타 국가가 주도하는 원조에 호주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로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에 따른 조치사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승인을 결정한 후 외교통상부로 회신해야 한다. 호주는 이러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통해 외교통상부가 취약한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외부자문을 통한 스크리닝 결과 재검토 절차나 독립된 외부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는 세이프가드 이행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재해위험 감소, 아동보호 등의 세부 평가 항목별로 별도의 가이드라인과 통일화된 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적용 시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정책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호주 역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보공

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나 원조정보포탈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호주는 환경사회세이프가드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도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양식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환경사회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스크리닝지는 외교부가 각 무상원조 시행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나, 개발협력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항목별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양식은 배포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가 범정부적으로 배포하는 상세 가이드라인 사례는 한국의 분절화된 무상원조 이행 체계 내 시행기관들의 개발협력 역량이 기관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역량을 단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3) 독일

독일은 OECD DAC의 창설 회원국이자 경제대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자립 역량에 집중하는 원조를 수행한다. 독일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개발협력 체계가 분절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발협력 정책 수립 기능은 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로 통일되어 있으나, 집행 측면에서는 BMZ, 외교부, 유상원조 전담 기관인 재건신용기관(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을 제외하고도 전체 예산의 30.4%가 다양한 시행기관들에 의해 집행되며, 환경부, 교육연구부, 보건부 등 14개 부처가 개발협력에 참여한다.

한국이 국무조정실의 총괄기능 중심으로 유무상을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독일은 유상 및 무상을 포함한 전체 독일의 개발협력 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정부 부처인 BMZ를 두고 있다. BMZ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며 타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협력 정책을 총괄 감독한다. 독일은 개발협력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BMZ가 수립하는 'Development policy 2030'과 같은 정책 문서가 독일의 범정부적 개발협력 정책의 근간 문서로서 기능한다. 집행 측면에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유상원조는 KfW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기술 협력은 GIZ(German International Zusammenarbeit)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주체들이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다. 분절화 문제에 대해 독일에서도 유상과 무상원조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었으나, 유상과 무상 기관의 주무부처가 다르고 각 기관 간에 이미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원화된 집행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독일은 개발협력 기후 주류화 측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2010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평가단은 독일이 2009년 중반부터 'Climate Check' 체계를 도입하여 모든 사업에 기후 주류화 관점을 적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독일은 1988년부터 개발협력에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를 적용하고 있으며,

BMZ는 이 EIA와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를 climate check 체계에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정욱과 황금물결(2023)은 2014년부터는 climate check 체계를 의무화하여 사업 제안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며, 불충분한 경우 사업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설명하고 있다.

BMZ는 개발협력 총괄기관으로서 전체 독일 정부와 기관들이 사업을 발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양자협력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b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을 2021년부터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독일 정부의 사업 승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을 명시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사전 스크리닝이나 카테고리화는 진행하지 않으며 정보공개의 범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BMZ는 환경분야 중점 전략 문서(2024, conserving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protecting life on Earth)에서 독일의 국제개발협력이 파리 협약과 토지황폐화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 LDN)을 준수하며 개발도상국들의 생물다양성과 환경 보전을 핵심 분야(core areas)로 설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 기후환경영향 평가를 질적 기준(quality criteria)로 설정하여 전체 개발협력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BMZ는 질적 기준을 전체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문제가 에너지, 사회 인프라, 농업 등 개발협력 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활동에 연계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BMZ가 전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배포하고 climate check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들을 사전 스크리닝 및 카테고리화하는 형태의 세이프가드는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KfW에만 적용된다. 기술 협력 중심의 사업을 집행하는 GIZ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스크리닝 제도를 실시하지는 않으며, 대신 전체 사업 주기에 걸쳐 환경 주류화 관점을 적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법제적 측면에서, 독일은 개발협력 기본법은 없으나 개발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BMZ가 정책 집행 및 사업 조정 권한을 보유하여 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BMZ는 외교부나 재외공관과 분리된 독립 행정부처로서, 개발협력 본연의 성과 창출과 환경영향 최소화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규범 준수에 부합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개발협력 현장에서도 BMZ 산하의 GIZ와 KfW는 재외공관과 별개의 개발협력 주체로서 인정받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경제적, 외교적 목적과 밀접하게 연계된 부처로서 없이 독일과 같이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환경주류화를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2. 한국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이행 체계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전체를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환경사회영향평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절차를 명시한 사항은 없다. 총괄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

회에서도 환경사회세이프가드의 추진 필요성은 언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하여 의결하지는 않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2021)에서 모든 ODA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기후,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실행평가단계에 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토록 하였다. 무상과 유상 분야별로는 유상원조는 기후위험 사전평가를 신설하고, 무상원조는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스크리닝을 신설토록 하였다.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2020년 신규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지침(2019)을 통해 2020년 신규사업부터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전체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안내하였다. 무상원조 시행체계에서 외교부는 매년 전체 시행기관의 사업을 심사하여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조정실로 송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행계획 단계에서 외교부의 주요 역할은 각 시행기관들의 사업이 중복되는지 여부와 국제규범 및 국정과제 이행에 부합하는 사업인지를 심사하고 있다. 연간 신규사업 제출을 위한 일정 및 필수 구비서류를 포함한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지침은 매년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 전체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지침 상 요구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심사에 탈락할 시 해당 사업은 예산 요구 진행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행기관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한 2019년에는 무상원조 시행기관들이 스크리닝 설문지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작성 범위는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지 않는 개발컨설팅 사업 및 초청연수, 기술협력과 같은 무형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크리닝 설문지는 총 21개의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에는 도입 초기인 관계로 영문 설문지는 배포되지 않고 국문으로 배포되었으며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안내되었다. 기관별로 스크리닝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사업유형 구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외교부가 사업유형 구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유형 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가 포함되었으나, 실제 외교부가 전체 유형을 검토하고 변경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크리닝 결과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시, 환경사회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심사 시 정책부합성의 관점에서 심사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 환경사회 관리계획의 목차나 준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는 부재하였다.

외교부는 2019년 최초로 전체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환경사회 세이프제도를 적용한 이후, 지속적으로 스크리닝 사업에 대한 유형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아울러 스크리닝 설문지의 경우에도 문항수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기관들이 제출한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설문 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협력대상국 관계자 중 어느 직급이나 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환경사회영향평가 및 환경사회관리계획의 경우에도 구체적 목차 제시는 여전히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모든 무상원조 신규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거쳐 심사가 진행되는데, 환경사회영향평가 및 관리계획은 이 협의회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

출해야 하는 것으로 지침이 안내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에서 환경사회 스크리닝 등급을 포함한 제반 평가서류들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재검증하는 절차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된 보고서들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무상원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KOICA의 경우 별도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 및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환경사회 영향에 대한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있다. KOICA가 환경사회에 대한 영향을 본격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 실시에서 고려한 시점은 2012년으로 'KOICA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환경주류화 3개년 이행전략(2013~2015)'를 시행하면서부터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에 대한 고려를 사업 발굴 및 수행과정 전체에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권고사항 수준으로 운영되어 이행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는 환경사회세이프가드를 전체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사회 영향에 대한 스크리닝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의 기준과 원칙, 실행절차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명하는 문서인 '환경사회 프레임워크'를 보완적 성격으로 수립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KOICA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는 사업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예비조사 시 환경사회 스크리닝 질문지에 수원국 담당자가 KOICA 현지사무소와 협의 후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총괄부서가 이 문서에 기반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세부 분류하는 스크리닝 절차를 거치게 된다. KOICA는 환경사회 위험의 정도에 따라 A, B, C 3단계로 사업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외교부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 등급 분류체계와 유사하나 단계별 정의는 상이하다. 아울러 B등급 이상의 사업의 경우 사업심사위원회 이전까지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이를 제출해야 신규 사업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표 3〉).

KOICA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이행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을 제출하는 사업부서에서 국내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등을 준용하여 자체 분류하고, 총괄부서가 스크리닝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등급을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스크리닝 위원회는 6인 이상 8인 이내의 KOICA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의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스크리닝 위원회가 너무 많은 안건을 다루는 현상을 막고자, 총괄부서가 1차적으로 환경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C등급 사업을 분류하고 C등급 사업은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KOIC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신규 사업들의 환경사회 스크리닝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며, 2020~2024 신규사업 347건 중 총 10건의 사업이 B등급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337건의 사업들은 모두 C등급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환경사회 영향이 큰 사업들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B등급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1,077만 불로 2020~2024년 기준 KOICA 신규 프로젝트 사업 평균사업비인 809만 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B등급 사업들이 대체로 환경 사

〈표 3〉 외교부 및 KOICA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스크리닝 분류 등급 정의

카테고리	외교부	KOICA
A	• 국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 고유한 전통 생활양식을 가진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200명 이상) 수반 사업	• 환경 · 사회에 중대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B	• 협력대상국의 관련법에 따라 환경사회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한국 환경영향평가법 기준 미만)	• 환경 및 사회에 중간 정도의 위험과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C	• 국내 · 외 환경사회영향평가 미대상 사업	• 환경 및 사회에 특별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통상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출처: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및 KOICA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한국국제협력단, 2024) 기반 저자 재구성.

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등급 이상 사업의 경우 스크리닝 결과에 추가하여 환경사회영향평가 결과도 같이 공개된다.

KOICA를 제외한 타 무상원조 시행기관들의 경우, 별도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각각의 시행기관 및 주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및 발간물에 환경사회세이프가드를 적용한 스크리닝 결과가 공개된 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범정부적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체계 개편 시 유무상 스크리닝 제도 통합 이후 정보공개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국가별 비교에 따른 시사점

한국을 비롯해 본 연구의 비교대상군으로 설정한 독일, 일본, 호주는 모두 OECD DAC 회원국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사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운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이프가드의 목적은 동일하나 국가별로 양식과 운영하는 방식은 상이하였는데, 이는 국가별 개발협력 체계가 다른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국무조정실이 원조 총괄기관으로서 범정부 개발정책 수립 기능은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의 직접 시행에는 관여하지 않는 관계로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이행 및 점검에 대해서는 유무상 주관기관의 관여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타 국가들의 경우 개발협력 총괄기관이 직접 개발협력 사업을 이행하거나 산하에 개발협력 전담 기관들을 두고 있어 환경사회세이프가드의 수립에서 이행까지 전반의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일본, 호주의 경우 ODA 총괄부처에서 범정부 개발협력 가이드라인이나 총괄부처 산하의 기관(JICA, GIZ 등)을 활용하여 세이프가드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표 4〉).

현재 한국의 분절화된 무상원조 시행체계 내에서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은 전체 시

〈표 4〉 주요 공여국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이행 비교

구분	독일	일본	호주	한국
ODA 체계	분절화	JICA 중심 유무상 일원화	일원화	분절화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 비중 (2023 기준, %)	93.14	40.67	99.74	68.74
ODA 총괄부처	BMZ	외교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세이프가드 근거문서	개발협력정책	개발협력대강	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	개발협력 기본계획
외부위원회	X	O	O	X
구체 세이프가드 설명문서	△ (GIZ, KfW)	△ (JICA)	O	△ (KOICA, EDCF)

출처: 저자 작성.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GIZ, German International Zusammenarbeit;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행기관 대상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호주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분절화된 무상원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외교부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와 같이 여러 시행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폭적인 개발협력 체계의 개편이 없이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육 커리큘럼만 구비된다면 현재의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전체 시행기관 대상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역량 제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주는 외교통상부가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며 직접 환경사회세이프가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엑셀 형태의 점검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외교부는 환경사회세이프가드 가이드라인 작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 용역이나 산하기관인 KOICA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사회세이프가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위원회 및 부처의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스크리닝 제도에 대한 여러 시행기관들의 이해 제고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나, 현재의 체계 내에서는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이 환경사회세이프가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렵고, 자문위원회를 구축한다 해도 충분한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검토의견이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사례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학계 및 NGO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스크리닝 제도가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는 환경사회 스크리닝 결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될 시 이를 개발협력 업무와 독립된 부처인 환경부에 전달하여 자국의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에 따라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

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된 검토 절차가 구비되어야 사업대상국 고위직이나 재외공관을 비롯한 대외적 영향 및 정치적 동인에 의한 사업들의 환경사회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각 시행기관들이 제출하는 스크리닝 설문지와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나 독립된 부처 혹은 기관이 이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개발협력기본법 상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전체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개발협력과 독립된 부처인 환경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조치필요성을 검토하는 호주 사례보다는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본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공여국인 일본, 호주, 독일은 모두 원조 시행 체계에 있어서 한국의 사례와 같이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단독 기관이 전체 범정부 개발협력 체계를 총괄하고 있는 비교적 단순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별도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개발협력 기본 정책문서를 수립하여 국가의 개발협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한국은 개발협력 체계의 특성상 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제도를 비롯해 범정부적 개발협력 체계 내에서 특정 제도를 시행코자 할 때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법의 개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례로 2013년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관한 사항을 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추가하여 장애인에 대한 개발협력에서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기에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에 대한 근거법률 마련도 이와 유사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과 및 고찰

1. 연구의 주요 성과

본 연구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분절화된 무상원조 시행 체계 내에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연구로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 관련 현황 및 논의 흐름을 정리하고 OECD DAC 주요 공여국인 독일, 호주, 일본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적용 현황과 근거 법률, 원조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간 국제개발협력 내 유상원조와 다자개발은행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범정부 차원의 개발협력 체계 속에서 이를 조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국가별로 다른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를 비교한 것이 아닌 각 국가별

로 상이한 개발협력 체계 속에서 법 제도 및 세이프가드 총괄 부처, 이행 메커니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시사점 및 제언사항을 도출하였다.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 내 환경사회세이프가드에 대한 논의는 OECD DAC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1985년 OECD가 최초로 개발협력 내 환경에 대한 고려성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이후 비자발적 이주를 포함한 사회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국제사회의 환경주류화 확대 흐름 속에서 환경사회세이프가드는 최소한의 예방조치로서 한국을 포함한 OECD DAC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원조 규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한국의 무상원조 체계 내에서는 KOICA와 같이 자체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정책을 보유한 기관을 제외한 시행기관들을 대상으로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신규사업 심사 시 스크리닝 설문지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스크리닝 설문지 작성을 위한 구체 가이드라인이나 외부 자문위원회 검토는 실시하고 있지 않기에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 간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수원기관이 되는 개발도상국 공공기관이나 부처들은 환경영향에 대한 위험보다는 사업승인에 더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국내의 시행기관들 또한 사업승인이 각 기관의 예산 증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환경영향에 대한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발협력을 공여하는 공여국 내에서 이러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 타 공여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개발협력 체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 있다.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 체계 내에서 단기적으로는 이행 가능한 제안 중 하나는 호주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무상원조 내 시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이행방안 및 고려사항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역량 구비와 함께 검토할 사항은 환경사회세이프가드에 대한 객관성 확보 측면이다. 일본은 JICA 내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사회배려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호주는 환경사회 영향이 큰 경우 외교통상부가 환경부에 해당 개발협력사업의 환경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한국은 환경사회세이프가드에 대한 객관적 자문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체계 내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국제개발협력 심사 메커니즘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무상개발 협력전략회의 내에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독립된 전문가 그룹이 시행기관들이 제출하는 사업들의 환경영향을 점검하고 심사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러한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에 이러한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주로 OECD DAC 국가들의 동료평가 결과와 국가별 공적개발 원조 백서자료,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와 같이 공개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국가별로 개발협력 전담 부처나 기관의 자료는 확보할 수 있었으나, 개발협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OECD DAC 국가 중 한국과 유사하게 분절화 정도가 심한 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스페인과 같이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높아 분절화된 경우의 사례를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스페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지침에 대한 현황 및 구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OECD DAC 동료검토에서도 환경사회세이프가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본 연구의 비교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타 공여국들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현황에 대한 자료가 추가 확보된다면 더욱 다양한 국별 사례를 조사하여 추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환경사회세이프가드의 각 이행 절차 중 스크리닝 제도와 외부 검증, 제도화된 문서의 유무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였으나 실제 원조 심사 과정에서 환경사회세이프가드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나 지속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별 정보공개 범위의 한계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이 범정부 차원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개선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연구는 환경사회세이프가드가 한국의 기관 및 개발협력 체계 내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나, 향후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현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한다면 이행단계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은미, 김지현. (2009). *한국 원조체계의 분절(fragmentation)이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성남: KOICA ODA교육원.

이초란. (2022). *국제개발협력의 기후변화 주류화 분석과 이행방안 연구: 미국, 독일, 한국을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지원, 송지혜, 김진오, 현채원. (2019).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공장, 마츠모토 사토루 (2016). ODA 분야의 세이프가드 정책동향 및 운영현황: JICA를 중심

으로. *국제개발협력*, *11*(3), 81-10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2).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Korea 2012. *OECD*.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3/08/oecd-development-assistance-peer-reviews-korea-2012_g1g2d6f1/9789264196056-en.pdf

OECD. (2024).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OECD*.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development-co-operation-peer-reviews-korea-2024_889c6564-en.html

논문 접수일: 2025. 9.30.
수정논문 접수일: 2025.11. 5.
게재 확정일: 2025.11.15.

The Implementation Strategy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within Fragmented Grant Aid Systems: An Analysis*

Yongwoo Jeong**

Abstract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has been the primary forum for discussing the need to implement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ESS), with DAC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applying ESS within their respective aid delivery systems.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ESS implementation within DAC countries'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s. For comparison purposes, the following countrie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aid delivery models: Australia, wher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versees integrated aid coordination; Japan, where a single aid agency manages both grant and loan assistance; and Germany, which operates a fragmented system for grant aid. Although these countries have the same ESS implementation goals, their operational methods and systems differ in their details. Korea's grant aid system has a basic structure for implementing ESS but faces challenges, such as the lack of an objective verification system and disparities in the capacity of implementing agencies. This study identifies best practices from other donor countries that could be applied to improve Korea's grant aid implementation system.

Key wor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Climate Change, Aid Fragmentation

* This paper is an excerpt and summary from Yongwoo Jeong's Master's thesis, 2025.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Environment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 yongwoo@koica.go.kr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5, 20(2), 25-43
https://doi.org/10.34225/jidc.2025.20.2.25
pISSN: 2093-212X, eISSN: 2671-9797

연구논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서의 한국어교육 가능성 탐색: 콜롬비아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 분석을 중심으로

최예슬*

요 약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중남미 지역의 콜롬비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과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GC)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로서 한국어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인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어 학습 경험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영어 수준, 디지털 역량, 동기 등 다양한 변인과 글로벌 역량의 상관관계를 살피었다. 분석 결과, 영어 수준과 한국어 학습 경험이 글로벌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한국어 학습자의 통합적 동기, 외국어에 대한 신념과 태도 등도 글로벌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한국어교육이 공공외교를 넘어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수단으로 발

* **Corresponding author:**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vanechoi@yonsei.ac.kr

© Copyright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ODA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GC), 한국어교육, 중남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SL)

Ⅰ. 서론

외국어 학습은 단순히 언어적 능력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GC)[1]을 증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박선영, 2023; Guo 외, 2024; Sakamoto & Roger, 2023: Semaan & Yamazak, 2015). 글로벌 역량은 세계적(global) 및 상호문화적 사안(issue)을 설명하고,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을 이해하며,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집단 '웰빙(well-being)'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역량을 의미한다(OECD, 2019).[2] 다시 말해, 글로벌 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역량 함양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3]와 연결하여 강조해 왔다. 특히, SDG 4.7은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문화적 다양성, 세계 시민성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UNESCO, 2017).

글로벌 교육 담론의 확산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 글로벌 역량 측정을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문화 간 개방성, 사회적 책임감 등의 요소를 반영한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시민적 자질을 평가하고 있다(OECD, 2018). 이처럼 글로벌 역량은 이제 단순한 교육 이념을 넘어 교육 정책과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구체적 지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국어교육은 그 중심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로서 한국어교육이 글로벌 역량 증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한국어교육 ODA의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 5년간 한국어교육 관련 ODA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에 총 64건의 사업에 약 3.5백만 달러가 집행되었으나, 2023년에는 단 1건, 0.26백만 달러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5] 이러한 변화는 중남미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

1)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상호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 상호문화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국제화 교육(internationalisation) 등 다양한 개념이 글로벌 역량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이혜원 외, 2017; Engel 외, 2019; Li, 2013)는 글로벌 역량이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역량이 측정 가능한 도구가 개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2) 교육부 보도자료(2020.10.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8 글로벌 역량 결과 발표'의 정의 재인용.

3)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속가능한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를 의미한다.

4) KOICA 봉사단 파견 사업 제외한 나머지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의 수를 표기하였다(Odakorea, n.d).

〈표 1〉 최근 5년간 한국어교육 관련 ODA 규모(증여등가액, 백만 달러, 사업 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합계
증여등가액	3.52726	3.08504	1.714922	1.631935	0.255818	15.12457
사업 수	64	45	13	8	1	321

주: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페루,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등 8개국 이상에서 학생 연수와 교사 양성 중심의 한국어교육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당 지역의 한국어교육 관련 ODA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반면, KOICA 한국어교육 단원 파견 사업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6]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실제로 2023~2024년에 파견된 KOICA 봉사단 전체 3,342명 중 약 1,100명이 한국어교육 분야에 투입되었으며, 이 중 120명(약 10.9%)이 중남미 지역에 파견되었다(공공데이터포털, 2025).

한국어교육 관련 ODA 사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KOICA 한국어 단원 파견이 지속적,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공외교 차원을 넘어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적 성과와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 중에서도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이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이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의 달성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콜롬비아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2. 콜롬비아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경험은 그들의 글로벌 역량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Ⅱ. 외국어교육과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GC)

OECD(2019: 169)에 따르면, 글로벌 역량의 영역은 지역 및 세계의 문화적 사안을 탐구하는 능력, 다양한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 모든 문화와 개방적이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상호 웰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글로벌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가치라는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실현

5) 김은경(2022)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한국어교육 ODA 사업 505건을 분석하여, 전체 교육 ODA 사업에서 한국어 교육의 비중이 낮은 점, 아시아 지역 편중, 수원국 선정의 연속성 부족, 인적 자원 중심의 사업 구조 등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6) 2023년 기준, 중미카리브(28,421,203명, 12.63%)와 남미(9,449,793명, 4.2%)를 합산한 중남미 지역의 한류 동호회원 수는 전 세계 한류 팬의 약 16.83%에 해당한다(한국국제교류재단(KF),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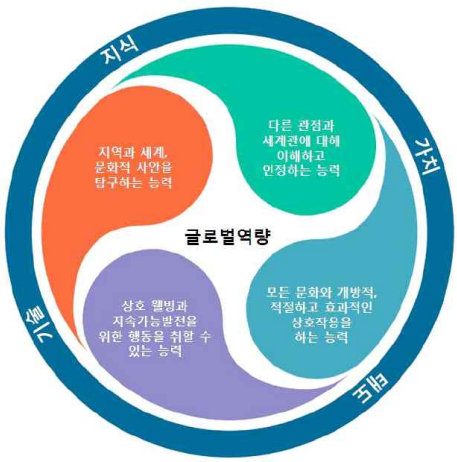
되며, 이러한 구조를 다시 '총체적 인간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기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반영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그림 1〉).

글로벌 역량 향상은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인 행동과 참여로 이어지며, 이러한 역량은 SDGs의 달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외국어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Guo 외(2024)는 외국어교육이 글로벌 역량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다섯 가지 주요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외국어 학습은 타문화와 그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둘째,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방식을 깊게 이해하며, 셋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넷째, 문화적 산물과 관습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며,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내 글로벌 역량 관련 연구는 영어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미란(2021)은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어 능력과 과목 관심도가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 수준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제2외국어에 대한 관심, 장기 해외 체류 경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김영아(2021)는 영어 학습 동기와 글로벌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특히 통합적 동기가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오은주(2022)는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계된 교양영어 수업 사례를 통해 PISA 글로벌 역량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성을 확인하였고, 박선영(2023)은 영어 비교과

〈그림 1〉 OECD 글로벌 역량의 영역



출처: OECD(2018), 이혜원 외(2017).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수용성, 외국어 활용 능력 등 글로벌 역량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밖에 독일어 교육과 관련하여, 이미영(2019)은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주제와 독일어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며, 독일어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입증하기도 하였다.[7]

새로운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 기능의 습득을 넘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교육 역시, 학습자들이 자국 문화와 한국문화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배재원(2013)은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접하게 되며, 자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자국 문화의 정체성과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강현화(2020)은 한국어 수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호문화적 문화 교수 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문화강좌, 문화토론, 문화견학, 문헌연구, 번역 활동, 동일 텍스트 비교 등은 한국문화와 현지 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학습자가 특정 문화를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와 성찰을 통해 능동적으로 문화 간 맥락을 이해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자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두 문화 간 소통과 융합이라는 단계적 문화 숙달을 경험하며, 궁극적으로는 타문화에 대한 공감과 열린 태도를 갖춘 세계시민으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해옥(2019)는 상호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한국문화 콘텐츠인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TV 다큐 인생극장 〈레스, 그대와 함께라면〉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옥현(2023)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쓰기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의 핵심인 상호 인정과 존중의 경험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김영・이위(2024)에서는 한국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습자들이 세계 시민성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모두 성장했음을 확인하였다.[8]

앞선 연구를 통해 한국어교육이 상호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성 함양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글로벌 역량과 한국어 학습 경험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없었다. 글로벌 역량이 세계 기구와 정부의 주요 논제로 부상하고 한국어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

7) 이밖에 황현경(2024)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영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융합 수업 사례 12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수업들은 주로 대학 교양영어나 초등 영어 수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다문화 이해, 인권, 환경 등의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수법(내용중심교수법, 매체 활용, 학습자 중심 활동, 비판적 교수법 등)이 적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수업들은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세계시민의식, 사회・정서적 성장, 학습 동기, 진로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그 외 글로벌 역량과 한국어교육 관련 논의로는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 관련 연구가 있었다. 김지윤・주민정(2024)은 한국어교원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편견 없는 태도와 비판적 사고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교원이 학습자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박선옥(2023)의 연구는 한국어 교사의 글로벌 역량 요소를 정의하고, 한국어교육이 다문화적 상호작용과 공감적 이해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어 학습 경험이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 수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콜롬비아 국적의 응답자 118명이다.[9] 연구 범위와 대상을 하나의 국가로 한정한 것은, 콜롬비아라는 특정 개발협력국에서 한국어교육이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에 기대여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는 2011년부터 한국 정부의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ODA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 교통, 산업, 평화 분야의 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교육은 양국의 문화 이해, 상호 존중,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내 한국어교육 수요는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콜롬비아로 파견된 KOICA 한국어교육 봉사 단원은 총 56명이며, 이는 중남미 국가 중 페루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다.[10] 세종학당 수강생 수 역시, 2021년 2,158명에서 2023년 6,027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공공데이터포털, 2024), 이는 베트남, 중국 등 전통적으로 한국어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주목할 만한 수준이다.[11]

한국어교육이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기본 정보와 한국어교육 관련 경험, 디지털 역량, 글로벌 역량 및 외국어 학습 동기와 인식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79명(67%), 남성이 39명(33%)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3명(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대(15~19세)가 18명(15%), 30대 17명(14%), 40세 이상이 10명(8%)이었다. 교육 수준에서는 대학

9) 설문조사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구글 폼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문항은 스페인어로 작성되었다. 연구 결과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10)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 파견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 다시 파견 규모가 늘어났다(공공데이터포털, 2025).

11) 이처럼 콜롬비아 내 한국어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분야 내에서도 해당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학술적 논의는 미비한 상황이다. 중남미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는 주로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거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현황을 기술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김장식, 2022; 김지형, 2019; 민원정, 2008; 박숙희, 2014; 최지윤, 2018; 한민지, 2019 등), 콜롬비아와 관련된 연구로는 레스트레포알론소실바나(2025)의 교사 피드백 분석, 문희진·이성희(2024)의 드라마 활용 수업 사례가 있으나, 이들 역시 콜롬비아를 단독 사례로 분석하기보다는 연구 대상의 일부로 다룬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교 졸업자가 77명(6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가 18명(15%), 전문대학원 9명(8%), 대학원 8명(7%), 기타 응답이 6명(5%)이었다. 직업군은 전문직 종사자가 47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이 37명(31%), 기술직이 11명(9%), 중고등학생이 5명(4%), 기타 직군이 18명(16%)을 차지하였다.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 비율이 65%로 높아,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12)]

2. 글로벌 역량 측정 및 분석 방법

글로벌 역량은 국가나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틀이 상이하여, 단일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혜원 외,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역량의 복합적인 특성을 두루 살피기 위해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의 글로벌 역량 지표[13)]와 Arasaratnam(2009)의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CC) 측정 도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콜롬비아 국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으로 개발된 PISA 글로벌 역량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PISA 글로벌 역량 지표 중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항목을 활용하였다. 부모 설문지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글로벌 문제에 대한 참여,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 의향, 이민자에 대한 태도 등 글로벌 역량의 주요 요소를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19).

둘째, Arasaratnam(2009)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역량 측정 도구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문화에 대한 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타문화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내재적 동기, 그리고 타문화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지표는 비영어권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Semaan & Yamazaki(2015)의 연구에서 글로벌 역량 평가에 유용한 도구로 입증되어,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과 글로벌 역량을 비교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PISA와 Arasaratnam(2009)의 글로벌 역량 설문은 내용적인 면에서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글로벌 역량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PISA 설문 항목의 신뢰도는 0.836, Arasaratnam(2009) 도구의 신뢰도는 0.791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추가로 OECD와 세계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콜롬비아

12)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평균 교육 연한은 약 14년으로 OECD 평균(18년)에 미치지 못하며, 25~64세 성인 중 약 57%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콜롬비아 일반 인구를 대표하기보다는 특정 교육 계층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13) PISA는 2000년부터 3년 간격으로 만 15세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skills)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각국의 교육 정책 개선과 학생 역량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글로벌 역량(GC)을 새롭게 측정 지표로 도입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다문화 이해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9).

의 교육 및 글로벌 역량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Python의 통계 패키지인 pandas, scipy.stats, statsmodels, matplotlib을 활용하였다. 설문 항목은 리커트 척도를 기반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변인에 따른 그룹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과 ANOVA를 활용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성과 영향력을 탐구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통계 검정은 유의확률 0.05 이하($p<0.05$) 수준에서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규성 검정을 통해 데이터가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개인의 특성과 글로벌 역량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었으며, 특히 한국어 학습 경험이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Ⅳ. 결과 분석

1. 변인에 따른 글로벌 역량 분석

설문에 참여한 콜롬비아 응답자들의 글로벌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나이, 성별, 영어 능력, 디지털 역량, 한국어 학습 경험에 따른 PISA 및 Arasaratnam(2009)의 글로벌 역량 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성의 평균 PISA 점수는 72.08점, 여성은 74.19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32$, $p=.19$). 반면, Arasaratnam(2009) 점수에서는 남성 46.44점, 여성 48.64점으로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t=-2.29$, $p=.02$)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서 제시된 콜롬비아의 성별 교육 수준 차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14] 그러나 Arasaratnam(2009) 점수에서만 차이가 확인된 점은 해당 지표가 상호작용 참여, 타문화에 대한 태도와 같이 정성적이고 태도 중심적인 요소를 포함하므로, 남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령별 점수는 PISA에서 20대가 평균 74.99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10대의 평균은 70.44점, 30대는 71.82점, 40세 이상은 70.90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ISA 점수($F=2.28$, $p=.08$)와 Arasaratnam(2009) 점수($F=1.75$, $p=.16$) 모두 연령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수준에 따른 PISA 점수와 Arasaratnam(2009) 점수를 분석한 결과, 두 점수 모두에서

14) 콜롬비아의 여학생의 중등학교 졸업 비율(87.4%)이 남학생(78.8%)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적 성취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World Bank. Gender Data Portal: Colombia. https://genderdata.worldbank.org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SA: F=4.48, p=.01; Arasaratnam(2009): F=4.06, p=.02). PISA 점수는 영어 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급 영어 수준 그룹이 75.84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중급 그룹과 초급 그룹은 각각 73.74점과 70.62점으로 나타났다. Arasaratnam(2009) 점수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고급 영어 수준 그룹이 49.34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중급 그룹과 초급 그룹은 각각 47.80점과 46.33점을 기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어 수준은 학습자의 자기 인식에 기반한 응답 결과로, 실제 언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또는 경험이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 향상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 수준[15]에서는 PISA 점수에서 평균이 높은 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74.39점)를 보였고, 중급(72.68점), 초급(66.20점) 순이었다. 하지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2.69, p=.07). Arasaratnam(2009) 점수에서도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1.86, p=.16).

한국어 학습 경험 여부[16]에 따른 분석에서는 PISA 점수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그룹이 평균 75.73점으로, 경험이 없는 그룹(71.79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t=−2.65, p=.01). Arasaratnam(2009) 점수에서도 학습 경험이 있는 그룹(49.92점)이 없는 그룹(46.34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4.17, p<.01). 이는 한국어 학습 경험이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다양한 변수에 따른 글로벌 역량 점수를 살펴본 결과, 영어 수준과 한국어 학습 경험이 집단별 차이와 연관이 있었다. 영어 수준이 높을수록 글로벌 역량이 높게 나타나며,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글로벌 역량을 보였다(<표 2>).

마지막으로, 영어 구사 능력과 한국어 학습 경험 간 상호작용에 따른 글로벌 역량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 상관분석에서 PISA 및 Arasaratnam(2009) 점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ISA: p=0.1502, Arasaratnam(2009): p=0.4523), 회귀분석의 결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룹별 통계 결과, Arasaratnam(2009) 글로벌 역량 점수의 평균값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지만, 영어 실력이 낮은 집단의 점수(48.83점)가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고급 영어 능력 집단의 점수(47.46점)보다 높아, 영어 실력이 낮더라도 한국어 학습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 향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항목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기, 앱 사용 능력 등 디지털 역량 수준을 측정하였고,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그 합계를 디지털 역량 수준으로 활용하였다. 디지털 역량의 최댓값은 16, 최솟값은 4점이었다.

16)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참여자 중에서도 한국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례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흥미도 및 콘텐츠 소비 빈도를 교차분석하고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흥미도(χ^2=31.5114, p<0.001)와 콘텐츠 소비 빈도(χ^2=21.8228, p=0.0001) 모두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매우 관심 있음(38명)'과 '매일(29명)'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흥미도를 가지고, 자주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 글로벌 역량(GC) 점수 비교

범주		N	PISA				Arasaratnam(2009)			
			M	SD	F/T	p-value	M	SD	F/T	p-value
1. 성별	남성	39	72.08	9.46	-1.32	0.19	46.44	4.73	-2.29	0.02*
	여성	79	74.19	7.46			48.61	4.89		
2. 연령	10대	18	70.44	10.34	2.28	0.08	45.67	5.64	1.75	0.16
	20대	73	74.99	6.98			48.48	4.76		
	30대	17	71.82	8.44			47.29	3.50		
	40대 이상	10	70.90	10.29			48.60	6.22		
3. 영어 수준	초급	39	70.62	8.38	4.48	0.01*	46.33	4.64	4.06	0.02*
	중급	35	73.74	8.20			47.80	5.18		
	고급	44	75.84	7.37			49.34	4.64		
4. 디지털 역량 수준	낮음	5	66.20	14.24	2.69	0.07	48.60	5.68	1.86	0.16
	중간	38	72.68	7.03			46.63	5.01		
	높음	75	74.39	8.11			48.48	4.79		
5. 한국어 학습 경험	있음	51	75.73	5.93	-2.65	0.01*	49.92	4.57	-4.17	0.00*
	없음	67	71.79	9.25			46.34	4.65		

주: 1) p<0.05.
2) GC, Global Competence;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 한국어 학습 경험과 글로벌 역량의 관계

4.1절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의 유무가 글로벌 역량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2절에서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51명의 설문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 경험과 글로벌 역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응답한 한국어 학습 경험자 5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 방법, 학습 기간, 한국어 사용 빈도, 학습 동기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학습 방식에 대해 32명(62.7%)이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했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13명(25.5%)이었으며, 독학했다는 응답(6명, 11.8%)도 있었다. 학습 기간에 있어 응답자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41.2%) 또는 6개월 미만(35.3%) 동안 학습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1~3년(19.6%) 또는 3년 이상(3.9%) 학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17] 이처럼 학습 기간이 짧은 학습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역량에서 긍정적인

17)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의 학습 방법과 학습 기간에 따른 글로벌 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향을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어 학습 동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주요한 동기는 문화적 관심으로, 26명(50.9%)이 한국 드라마, 음악, 관광, 음식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흥미를 이유로 학습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업 및 직업적 기회를 위해 한국어를 학습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명(21.6%)으로 나타나, 경제적 또는 직업적 동기가 학습의 주요한 이유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언어적 호기심(13.7%), 개인적 즐거움(7.8%) 등 정서적인 이유로 한국어 학습 동기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학습 동기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응답자의 다수가 한국어 학습 후 실제 사용 빈도가 낮았으며,[18] 한국어 학습 동기가 경제적인 사용 목적보다는 문화적 관심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 학습 경험이 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 강조되었던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학습 접근법과는 차별화된 방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19]

다음으로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습 동기가 글로벌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경험과 글로벌 역량의 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Semaan & Yamazaki(2015)에서 외국어 학습 경험과 글로벌 역량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활용한 글로벌 역량과 학습 동기(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 신념과 태도, 부모의 격려)를 묻는 설문조사 문항을 사용하였다(〈표 3〉).[20]

Spearman 상관분석 결과,[21] 글로벌 역량과 통합적 동기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419, p=0.002). 이는 학습자의 통합적 동기가 높을수록 글로벌 역량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어에 대한 신념과 태도 역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r=0.377, p=0.006), 긍정적인 외국어에 대한 인식과 학습 태도를 가진 학습자가 더 높은 글로

〈표 3〉 동기에 따른 글로벌 역량-Spearman 상관계수

요인	상관계수(r)	p-value	요인	상관계수(r)	p-value
통합적 동기	0.419	0.002*	신념과 태도	0.377	0.006*
도구적 동기	0.190	0.181	부모의 격려	0.333	0.017*

18) 한국어를 학습한 후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0%(26명)로 절반을 이상이었으나,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은 2명(3.9%)으로 매우 적었다.

19) 2023년 세종학당 만족도 조사 결과, 학습 동기로 한국·한국문화에 대한 관심(34%)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24%)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https://www.ksif.or.kr/

20) Semaan & Yamazaki(2015)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외국어 학습자의 태도와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Gardner(2004)의 Attitude/Motivation Test Battery(AMTB)를 기반으로 설문 항목을 구성하고 Arasaratnam(2009)의 글로벌 역량 점수와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동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 외국어에 대한 태도와 신념, 부모의 격려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통합적 동기는 학습자가 특정 언어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해당 문화와의 통합을 목표로 언어를 배우려는 동기를 의미하며(Masgoret & Gardner, 2003), 도구적 동기는 학업적 또는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실용적인 동기로 정의된다(Gil-Galván & Martín-Espinosa, 2021: 464).

21)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그룹(n=51)의 글로벌 역량과 학습 동기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K-S)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정규성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Spearman 상관분석을 활용하여 관계를 검토하였다.

벌 역량을 보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과 글로벌 역량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333, p=0.017). 반면, 도구적 동기와 글로벌 역량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0.190, p=0.181).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와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가족의 지원이 글로벌 역량 증진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동기와 글로벌 역량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동기와 글로벌 역량 간의 연관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서술형 응답을 추가 분석하였다. 서술형 질문은 한국어 학습 경험에 대해 자유로이 서술하는 문항이었으며, 응답을 통해 학습자들은 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선호를 기반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경우가 대다수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 음악과 드라마 덕분에 한국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언어와 문화를 더 많이 배웠습니다. …

> 어릴 때부터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접한 경험이 언어를 배우고 싶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한국어 수업 경험이 학습자들이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 대학교의 한국어 강좌에 등록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음악, 동영상, 영화, 프로그램, 팟캐스트 등 한국어 콘텐츠를 소비했습니다. 문장을 만들고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성취감을 느꼈고, 이를 통해 한국어 표현과 속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한국문화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 … 선생님께서 언어를 매우 세심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책으로 공부했지만, 선생님은 항상 듣기 훈련(한국어로 말씀하시거나 녹음, 음악 등을 활용), 말하기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학습을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콘테스트나 교실 밖 활동도 진행했고, 심지어는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활동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우리 모두 한국문화에 큰 애정을 갖게 되었고, 저처럼 처음에는 동기가 높지 않았던 학생들까지도 매료되었습니다. …

주관식 문항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이 학습자들의 관심과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작용하며, 언어 학습 경험이 글로벌 역량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콜롬비아 국적 응답자 118명의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역량 점수와 성별, 나이, 영어 수준 등 다양한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어 수준과 한국어 학습 경험이 글로벌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응답자(51명)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67명)보다 글로벌 역량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한국어 학습이 글로벌 역량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어 학습 경험과 글로벌 역량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글로벌 역량과 통합적 동기, 외국어에 대한 신념과 태도, 부모의 격려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도구적 동기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주관식 문항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접하며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선호도가 제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V.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이 ODA로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콜롬비아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글로벌 역량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어교육이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어교육이 외국어 능력 신장과 문화 교류를 위한 수단을 넘어, 국제개발협력의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이어진다.

최근 외국어교육(Foreign Language Education, FLE) 분야에서는 언어능력 배양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Byram 외, 2022).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KOICA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의 역시 다른 기관의 한국어교육과 차별화되어야 하며 ODA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SDGs와 관련된 환경 보호, 인권 존중, 문화 다양성 증진 등의 다양한 주제를 교육 내용에 통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한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SL)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Bringle & Clayton, 2022). SL은 학습자가 실제 공동체와 교류하면서 외국어를 사용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언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역량에 영향을 주는 내재적 동기, 긍정적 태도, 가족과 공동체 기반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도 부합한다.

또한 ODA 기반 한국어교육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파견 지역의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KOICA 한국어교육 단원은 교사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활동, 세계시민교육 등 넓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에 현지 학습자의 문화적 ·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이 요구된다. 실제로 KOICA 한국어교육 봉사단원의 재교육 요구분석에서도 '현지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교사 역량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김지혜 외, 2022). 또한, 김지윤 · 주민정(2024)은 한국어교원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파견 전 현지 언어 기반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이해, 그리고 충분한 사전 교육과 실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KOICA는 봉사단원의 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파견국의 역사, 사회, 문화 등 지역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국어 학습 경험과 글로벌 역량 간의 관계를 실제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량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 사례 기반 분석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개별적인 맥락이나 경험의 깊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다양한 국가, 연령, 학력 배경 등을 포괄하는 표본을 설정하여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 질적 연구 및 지역 간 비교 연구를 병행한다면 한국어 학습과 글로벌 역량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심층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화. (2020). 교육에서의 다문화 정책 방향성 모색: 세계시민 역량 제고. *통합인문학연구*, *12*(2), 7-32.

공공데이터포털. (2024). 국가별 세종학당 수강생 수 현황(2021~2024). https://www.data.go.kr/data/15127358/fileData.do

공공데이터포털. (2025).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파견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51101/fileData.do

김영, 이위. (202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세계 시민성 교육 연구: 한국문학 작품 활용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8*, 351-386.

김영아. (2021). 글로벌 역량과 영어 학습 동기의 상관관계 연구: H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30-739.

김은경. (2022). 한국어교육 관련 ODA 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이중언어학*, *88*, 1-37.

김장식. (2022). *환경 분석 기반 해외 한국어교육학과 교육과정 개선 연구: 파라과이 INAES 한국어교육학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김지윤, 주민정. (2024). 한국어 예비 교원의 글로벌 교육역량 향상을 위한 해외 교육 실습 프로그램의 실제. *한성어문학, 53*, 139-166.

김지형. (2019).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33*(3), 193-226.

김지혜, 심상민, 윤경원. (2022). KOICA 한국어교육 봉사단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분석 연구. *한국어문화교육*, *16*(1), 1-34.

김해옥. (2019). *상호 문화소통 능력을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법: 〈채식주의자〉와 〈레스, 그대와 함께라면〉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2019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9차 추계 전국학술대회(pp. 45-55), 인하대학교, 인천.

레스트레포알론소실바나. (2025). 한국어 교사의 수정적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 반응과 인식 연구: 콜롬비아 온라인 초급 한국어 수업을 대상으로. *선청어문*, *54*, 209-247.

문희진, 이성희. (2024). K-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학습 설계 및 적용.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4), 393-420.

민원정. (2008). 스페인어권 화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칠레가톨릭대학교의 한국문화수업 발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1), 77-91.

박선영. (2023). 영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통한 글로벌 역량 효과 연구. *문화와융합, 45*(3), 187-197.

박선옥. (2023). 한국어교사의 글로벌 역량 요소 설정에 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 41*, 313-335.

박숙희. (2014). 스페인어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현황과 한국어학습 대책.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7*(2), 87-106.

박옥현. (2023). 중도입국 청소년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사례 연구. *작문연구, 57*, 7-31.

배재원. (2013).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문화 교육.* 서울: 혜안.

오은주. (2022). 세계시민성 및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영어 수업운영 사례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17*(1), 93-156.

이미영. (2019). 독일어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일어과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85*, 283-300.

이혜원, 이수정, 이영미, 김미지, 강신애, 김형렬, 박찬호, Jun Morohashi, Michael Nettles. (2017). *글로벌 역량 교육 정책 및 실태 분석을 위한 국제 협동연구(I).*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미란. (2021). 대학 영어와 세계시민의식 관계 연구. *영어어문교육*, *27*(3), 129-147.

최지윤. (2018). *멕시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항목 선정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한국국제교류재단(KF). (2023). 2023 지구촌 한류현황. https://www.kf.or.kr/archives/ebook/ebook_view.do?p_cidx=4040&p_cfidx=128940

한민지. (2019). *중남미 한국어 · 한국 문화의 단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 프로젝트 중심 접근법을 활용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황현경. (2024). 영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융합 수업 사례에 대한 체계적 문헌 분석.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3*(3), 125-162.

Arasaratnam, L. A. (2009). The development of a new instrumen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9*(2), 1-8.

Bringle, R. G., & Clayton, P. H. (2022). Enriching global civic educa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rough service learning. In C. Lütge, T. & Merse, P. Rauschert (Eds.), *Global citizenship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 79). New York, NY: Routledge.

Byram, M., Golubeva, I., & Porto, M. (2022). Internationalism,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In C. Lütge, T. Merse, & P. Rauschert (Eds.), *Global citizenship in foreign language rducation* (p. 128). New York, NY: Routledge.

Engel, L. C., Rutkowski, D., & Thompson, G. (2019). Toward an international measure of global competence? A critical look at the PISA 2018 framework.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17*(2), 117-131.

Gardner, R. C. (2004). Attitude/motivation test battery: International AMTB research project.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Canada* [Electronic version] Retrieved from http://publish.uwo.ca/~gardner/docs/englishamtb.pdf

Gil-Galván, R., & Martín-Espinosa, I. (2021). Analysis of the motivational and attitudinal profile of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regarding language learning: Application of the attitude/motivation test battery (AMTB). *Revista Complutense de Educación, 32*(3), 463-476.

Guo, Q., Yang, B., Xiao, L., & Xie, C. (2024).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competence in different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1*, 102013.

Li, Y. (2013). Cultivating student global competence: A pilot experimental study. *Decision Sciences Journal of Innovative Education, 11*(1), 125-143.

Masgoret, A. M., & Gardner, R. C. (2003). Attitudes,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A meta-analysis of studies conducted by Gardner and associates. *Language Learning*, *53*(S1), 167-210.

Odakorea. (n.d). ODA support performance by year. *Odakorea*. Retrieved from https://www.odakorea.go.kr/statistic/main?type=Stats#/mainLayout

OECD. (2019). *PISA 2018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Paris: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8). *Preparing our youth for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 The OECD PISA global competence framework.* Paris: OECD.

Sakamoto, F., & Roger, P. (2023). Global competence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7*(5), 719-740.

Semaan, G., & Yamazaki, K.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ompetence and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An empirical study in critical language classrooms. *Foreign Language Annals, 48*(3), 511-520.

UNESCO. (201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arning objectives*.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논문 접수일: 2025. 4.30.
수정논문 접수일: 2025. 6.11.
게재 확정일: 2025. 6.25.

Potenti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Global Competence among Colombian Learners

Yeseul Choi*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Competence (GC) among learners in Colombia, which is a region that has received relatively limited research attention.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18 Colombian adults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GC and various factors, including Korea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gender, age, English proficiency, digital literacy, and learning motivation. Participants with Korea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GC scores compared to those without such experience. In addition, integrative motivation and positive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foreign language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contributors to GC.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can play an educational role in enhancing learners' GC, thereby extending beyond its function as a tool of public diplomacy.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of such education to serve not only as a tool of public diplomacy but also as a means of fostering learners' GC. This study also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curricula aligned with the aim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eacher retraining programs to effectively support their implementation.

Key words: Global Competence (GC), Korean Language Education, Latin Americ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ervice Learning (SL)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 vanechoi@yonsei.ac.kr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5, 20(2), 45-87
https://doi.org/10.34225/jidc.2025.20.2.45
pISSN: 2093-212X, eISSN: 2671-9797

Original Article

From Community-Led Reforestation to Women's Empowerment: A Case Study of World Vision's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in Kenya

Yoonho Cho*
Jiyeon Yu**
Yaeji Hwang***
Jeongeun Son****

Abstract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engagement in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training on women's participation in rural Kenya via a comparison of levels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Whether the training manual was appropriately designed and contributed to women's empowerment was

* **Main author, Corresponding author:** Senior Researcher, World Vision Korea / yoonho_cho@worldvision.or.kr
** **Co-author:** Monitoring & Evaluation Advisor, World Vision Korea / jiyeon_yu@wvi.org
*** **Co-author:** Grant Manager, World Vision Korea / yaeji_hwang@worldvision.or.kr
**** **Co-author:** Technical Advisor for Climate Change, World Vision Korea / jeongeun_son@worldvision.or.kr

© Copyright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lso examined from a gender perspective. A mixed-methods approach that integrat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as employed. Based on repeated cross-sectional data randomly collected during baseline and endline surveys, independent sample t-tests and multi-group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lavaan" and "piecewiseSEM" package in R to quantitatively examine changes over time.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of the FMNR training manual was conducted from a gender-transformative perspective. Engagement in FMNR training post-project significantly increased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Furthermore, the results highlight different impact pathways at the household and community levels, thus suggesting that different project components and activities should be tailored accordingly to enhance women's participation. This approach enabled the identification of differences in core activities and mechanisms that promote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ultimately leading to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FMNR training.

Keywords: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Land Restoration, Women Participation, Multi-Group Path Analysis, Document Analysis

Ⅰ. INTRODUCTION

Climate change and land degradation disproportionately affect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children, the elderly, and people living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de Sherbinin et al., 2019; Eckstein et al., 2019; Thomas et al., 2019). According to the Global Climate Risk Index, Kenya was ranked 7th in the world in term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based on the average annual number of deaths and economic losses associated with extreme weather events between 1999 and 2018 (Eckstein et al., 2019).

In response, Kenya has committed to restoring 5.1 million hectares of degraded land, representing approximately 9% of its total area, as part of a broader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Government of Kenya, 2018c). This commitment aligns with Kenya Vision 2030, where the country's Third Medium Term Plan (2018–2022) identifies cultural practices, insufficient funding, and rapid urbanization as factors worsening land degradation, leading to uncontrolled subdivisions and informal settlements (Government of Kenya, 2018b). To address these issues, Kenya has initiated various projects, which aim to reconcile environmental restoration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needs of rural communities, promoting sustainable land use while fostering economic growth and resilience.

Aligned with it, World Vision focuses on key areas of environmental and climate action (World Vision, 2022) including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which is a more low-cost and sustainable agroforestry practice for tree establishment than other methods in the context where the tree planting is limited, because of climate condition, natural environment, poor access to tree seedlings, or cultural hindranc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24; Garrity et al., 2010; Kuyah et al., 2023; Rinaudo et al., 2019). Sever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FMNR enhances soil fertility, reduces erosion, and improves water infiltr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land restorat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24; Garrity et al., 2010)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Kuyah et al., 2023). Additionally, FMNR can enhance the economic well-being of families, which in turn can benefit children by improving their access to food, healthcare, and education (Garrity et al., 2010; Weston et al., 2015). The trees grown through FMNR can be sold or used as raw material for

various products, such as furniture or fuelwood, generating income that can be used to meet these basic needs.

However, gender norms play a significant role in women's access to and ownership of land (Elias, 2016). In Kenya, women hold only 1%–5% of land titles, reflecting stark gender inequality and severely limiting thei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Kameri-Mbote & Kabira, 2023). In many communities, the lack of women's land rights hampers their ability to benefit equally from FMNR initiatives (Crawford et al., 2016; Kiptot & Franzel, 2012). Traditionally, women bear the responsibility of growing trees and collecting firewood, yet their autonomy in tree planting decisions is often limited unless approved by men (Deininger et al., 2011; Iiyama et al., 2017).

Despite these barriers, studies have shown that women are more inclined to adopt FMNR techniques compared to men (Agúndez et al., 2022; Buyinza et al., 2016) and that their participation can increase household welfare, food security, and community development (Jamal, 2023; Nguyen et al., 2021). Therefore, in patriarchal cultures, it is crucial to empower and sensitize women to participate in family decisions regarding FMNR practices (Odwori et al., 2016).

Nonetheless,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FMNR facilitates women's engagement remains inadequate (Crawford et al., 2016). In particular, little is known about how the content of FMNR training supports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s agency. Furthermore, several studies have established that disparities exist in the associated variables and the pace of women's involvement both at home and within the community (Coady et al., 2001; Keleher & Franklin, 2008; Kim et al., 2022; Schensul et al., 2015). In light of this,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gender-transformative potential of FMNR training and its influence on women's participation in domestic settings as well as in communal spher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 of engagement in FMNR training on the level of women's participation in rural Kenya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It also explores the content of FMNR training manuals from a gender-transformative perspective to understand how to enhance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Ⅱ. LITERATURE REVIEW

1. Previous Studies on Women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Training in Development

Many scholars addressing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shifts in power relations as a central element, advocating for holistic changes that encompass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formal and informal, beliefs and resource areas (Cornwall, 2016). Kabeer defined women empowerment as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ability to make independent decisions in environments that systematically deny women's agency over choices affecting their lives (Kabeer, 1999). Similarly, Moser conceptualized women empowerment as increasing represent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gaining control over resources, and securing access to opportuniti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ransforming institutions and structures that perpetuate gender power imbalances (Moser, 2012). Rai also empathized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s a core element of empowerment, along with ensuring th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of unpaid care work and fostering social and economic justice (Rai, 2013).

Building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defines and examines women's empowerment by focusing on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t the household and community level. Drawing from Moser's framework, this study identifies four interrelated domains of decision making: representation, resources, opportunities, and structures. As women's empowerment is widely understood as a transformative process that spans individual, social, and institutional change, integrated approaches are essential to enhance women's agency in decision-making.

Gender equality training is often the primary tool used within such integrated approaches. Leghari & Wretblad (2016) defined gender equality training as a 'tool, strategy, and means to effect individual and collective transformation towards gender equality through consciousness raising, empowering learning, knowledge building, and skill development'((Leghari & Wretblad, 2016). Gender training programs significantly influence changes in gender norms and foster transformative outcomes across various cultural contexts.

One widely used framework to assess such interventions is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KAP) model, valued for its simplicity and applicability in health behavior research since the 1950s (Soria & Borja, 2024). Ideally, KAP studies precede awareness and training programs, identifying informational needs, barriers, and intervention effectiveness that typically assessed through post-intervention shifts in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Andrade et al., 2020). For example, a study employing the KAP model to evaluate a comprehensive education programs, which is designed to holistically address the psychological challenges faced by adolescent girls, foun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girls'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skills, along with enhanced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related to menstruation (Kim et al., 2022, 2024). Similar positive changes were also observed among boys, parents, and teachers.

While comprehensive interventions targeting gender norms have shown promise in shifting perceptions and increasing women's status, their effectiveness varies based on local contexts (Keleher & Franklin, 2008). Moreover, persistent challenges remain in achieving widespread and sustained changes in gender norms, particularly among women, who may lag in adopting new attitudes (Kim et al., 2022; Schensul et al., 2015). When women take on new and more equitable norms and behaviors in what they perceive to be an unchanged cultural context, there can be negative outcome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poor health (Moonzwe Davis et al., 2014; Rocca et al., 2009). It may be that the lag in change reflects women's recognition of the need to wait, to ensure a positive and supportive environment, before manifesting behavioral and attitudinal shifts. Accordingly, the pathways of change in women's participation differ significantly, with household dynamics often evolving slower than community engagement, reflecting varying degrees of gender consciousness and societal attitudes (Keleher & Franklin, 2008; Schensul et al., 2015).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FMNR training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women's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at home and in communities, utilizing KAP model as an analytical framework. It further assesses the adequacy of the FMNR training manual in advancing gender equality and women empowerment from a gender-transformative perspective.

2. Previous Studies on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and Its Impact on Women Empowerment

FMNR is a form of agroforestry that can contribute to the rehabilitation and management of degraded land, as well as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land-use practice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24; Garrity et al., 2010; Kuyah et al., 2023). In particular, FMNR has the following differences compared to other methods from the gender perspectiv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24; Rinaudo et al., 2019). First, inclusion and equality of women are key components of FMNR. Women constitute essential stakeholders in FMNR and must be assured that they will reap the benefits of their contributions to FMNR initiatives. Consequently, FMNR endeavors not only to alleviate the burdens faced by women and girls by enhancing their access to resources such as firewood but also aims to elevate their status as decision-makers who possess equitable control over assets, income, and land rights alongside men. If this does not happen automatically, targeted programs must be established to encourage collaboration between genders. Second, FMNR necessitates community consensus and ownership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Success in FMNR practices is reliant on communal agreement regarding land management and tree regeneration. Collective decisions on tree treatment and benefits are essential for all community members utilizing the land. The engagement of all stakeholders in the FMNR process enhances its effectiveness. Third, FMNR is very simple to implement. As the process of FMNR is very simple, nearly any man or woman can manage trees. Even older girls and boys can learn the basics of pruning, as long as they are supervised when using sharp tools. Although tree management requires labor, the convenience of accessible firewood and fodder compensates for this effort, potentially freeing women's time for other pursuits.

According to the field manual, FMNR incorporates gender training in its curriculum to challenge gender norms and promote equitable behaviors (Rinaudo et al., 2019). Traditionally, the use, control, and benefit sharing of forest and natural resources are best understood through a gender perspective, as gender inequities are evident in areas such as tree tenure, division of labor, spatial patterns of forest use, and ecological knowledge (Elias et al., 2017; Galudra et al.,

2024; Kiptot & Franzel, 2012; Sunderland et al., 2014). In terms of natural resource use, FMNR promotes more equitable land resource use across genders. To this end, FMNR encourages women's active involvement in community decision-making and also it aims to increase access to resources as well as their status as decision-makers with equitable control over assets, income, and land rights along with men by encouraging cooperation between genders (Too et al., 2025). Previous studies also found that women gain independent or joint control over financial decisions, such as managing loans and income derived from FMNR-related activities (FAO & CARE, 2019). This increased income enhances women's contributions to household finances, subsequently elevating their decision-making authority (Jean & Medard, 2016; World Vision Australia, 2019).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show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women participation (Agnihotri, 2021; Le & Nguyen, 2020; Urooj et al., 2023).

In addition, FMNR initiatives actively promote women's involvement in community-level decision-making processes (Too et al., 2025). Women are included in participatory planning sessions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committees for FMNR implementation, and also trained as FMNR champions, taking on leadership roles in promoting sustainable practices within their communities (Anda, 2016; Crawford et al., 2016; World Vision Australia, 2019). Notably, women involved in FMNR have been reported to challenge traditional norms, signaling a broader shift in decision-making power (Crawford et al., 2016; FAO & CARE, 2019).

Nonetheless, more objective evidence is still needed to ascertain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that involve FMNR participation in altering gender norms, such as changes in women's status at home and in the community (Crawford et al., 2016; Too et al., 2025). There is also no previous research on how much the training materials of FMNR is appropriate for the gender transformative perspectives.

3. Aim of the Study

The livelihoods, incomes, and food security of communities that rely on rain-fed

agriculture, community forests, and pastoralism are under threat due to climate change and land degradation. Therefore, promoting climate resilience and land restoration is critical to support vulnerable communities that depend on natural resources. World Vision Kenya implemented a two-year project (2021-2022) to assist target communities in Garsen North and Kipini East wards in adapting to climate change and developing community resilience through livelihood and land restora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athways through which FMNR training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 women's participation at the household and community levels, and to examine how these pathways may have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Additionally, it examines FMNR training manuals from a gender-transformative perspective to understand how FMNR training and practices can enhance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By doing so,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nsights into necessary improvements, not only in the implementation of FMNR projects but also in the content of their training manuals from a gender-transformative perspective.

Ⅲ. RESEARCH DESIGN AND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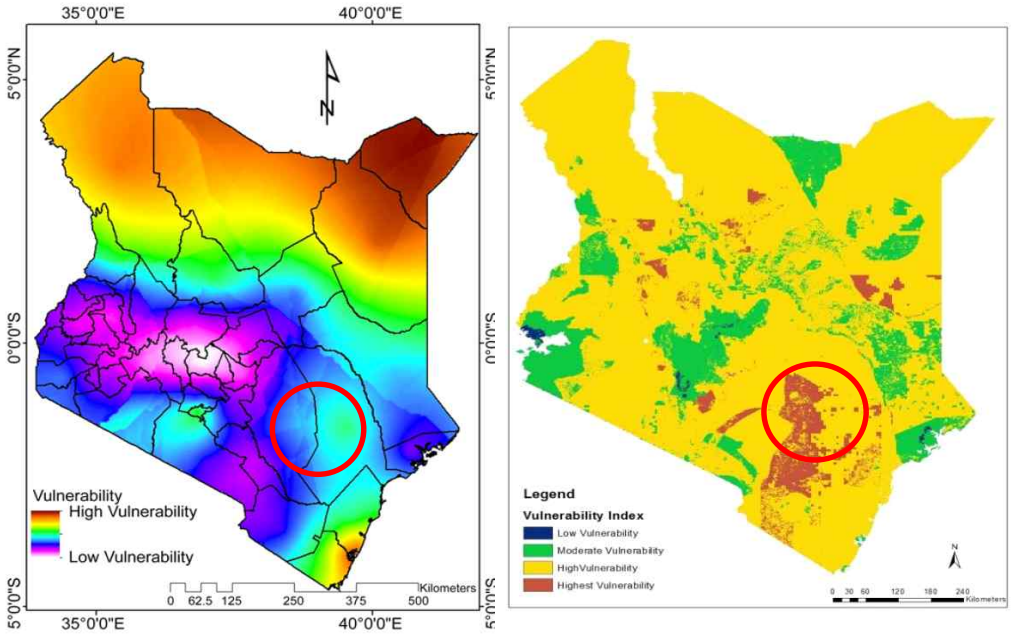
1. Study Setting

The designated project site was chosen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climate susceptibility,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and availability of public land. Specifically, we identified regions exhibiting significant climate vulnerability, where World Vision is actively engaged in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s, and locations with public land suitable for FMNR activities, guided by the stewardship of local inhabitants.

Degraded ecosystems put vulnerable rural populations at extreme risk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ana River has not been exempted. In particular, Tana River County has a high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in southern Kenya, as shown in 〈Figure 1〉 (Marigi, 2017; Mwangi & Mutua, 2015).

Tana River County is located in the coastal region of Kenya. The county is divided into 3 sub-countries, 15 wards, 58 locations, and 113 sub-locations

〈Figure 1〉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map of Ken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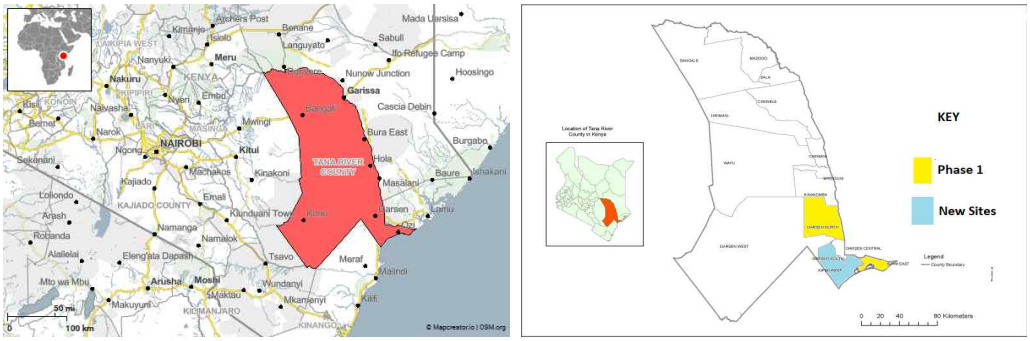


Source: Mwangi & Mutua (2015, right map); Marigi (2017, left map).

(County Government of Tana River, 2024). The project was implemented in 2 wards, namely Garsen North and Kipini East, within the Tana Delta Sub-County. As of the Keny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of 2019, Garsen North had a population of 16,557, while Kipini East had 20,528 residents (〈Figure 2〉; Government of Kenya, 2019).

Tana River County in Kenya is a semi-arid region with savannah grassland covering most of its land. The area faces ecological threats from an invasive tree species, Prosopis Juliflora, which disrupts native vegetation and pastoral livelihoods (County Government of Tana River, 2024). With 76.9% of the residents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Government of Kenya, 2018a), the region struggles with unreliable rainfall, poor agricultural practices, low literacy, inadequate infrastructure, livestock diseases, human-wildlife conflict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Government of Kenya, 2017). Additionally, gender inequality is prevalent, manifested through limited involvement of women in leadership and decision-making roles, lower school enrollment rates for girls compared to boys, early marriage for girls, and deprivation of women's property rights (Government

〈Figure 2〉 Study site



of Kenya, 2017). In Kenya, women hold only 1%-5% of land titles despite comprising half of the population, underscoring significant gender inequality. Although legal frameworks are in place, persistent challenges in implementation continue to marginalize women's rights and limit thei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Kameri-Mbote & Kabira, 2023).

2. Procedures: Details of Interventions

The project aimed to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livelihood restoration for sustained community resilience and economic empowerment in Tana River County. This was to be achieved through sustainable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rangelands, farmland, and communal land resources to strengthen ecosystem services and improve economic status. The project consisted of 3 main components, FMNR, clean energy solutions, and community advocacy. A summary of each output is as follows:

First, the project aimed to restore the health and productivity of at least 250 acres of degraded rangelands and communal lands in Tana River County. The project involved stakeholder assessments, drone-based mapping, and community engagement to identify and address degradation hotspots. Interventions included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and reseeding efforts, with the project mobilizing the community through cash-for-work initiatives. 60 lead farmers were selected and trained in natural resource management. They passed on their knowledge and skills to 250 farmers (43 Female headed households, 207 Male headed households) in the villages. These farmers were then divided into 9

groups to clear out invasive species and restore the land using FMNR techniques, seedballs, and agroforestry. Additionally, 5 schools were targeted for nursery establishment and tree planting. Each child was encouraged to adopt and nurture a tree through environmental clubs, which have 75 members (35 girls and 40 boys).

Second, the project also focused on promoting sustainable renewable biomass and clean energy options among 250 households. This involved the uptake of technologies such as solar lighting and improved energy-saving stoves, alongside entrepreneurship training for 50 women and youth among vulnerable households to engage in clean energy businesses. The project also facilitated partnerships with private sector partners to enhance adoption of clean energy solutions.

Third, it aimed to establish and strengthen enabling policy environments and governance structures to ensure program impact and sustainability. This included supporting the formation/strengthening of 2 natural resource management committees with 33 members (12 female and 21 male), empowering communities through training on community voice and action and utilizing technology such as Ushahidi for crowd sourcing data on environmental issues. Quarterly review meetings and village-level sensitization efforts were also conducted to engage stakeholders and ensure progress.

3. Study Design and Sampling

This study employed a mixed-methods design, integrat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For the quantitative component, a multi-group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epeated cross-sectional data collected from rural projects in Kenya,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impact pathway, from participation in training programs, to women's involvement in household and community among beneficiary households through practice of FMNR activities,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The baseline survey was conducted in March 2021, and the endline survey was conducted in September 2022.

The baseline and endline surveys employed probabilistic sampling, where each sampling unit within the sample frame had a specific probability of selection, and

this probability could be estimated. The sampling frame comprised 250 beneficiaries (household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s. For sampling, the evaluation team utilized the one-stage simple random Sample. In the first stage of sampling, the evaluation team employed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to ensure that clusters with more beneficiaries had a higher probability of selection compared to sectors with fewer beneficiaries. A total of 319 households was randomly selected, 153 for the baseline and 166 for the endline respectively, from 250 project participants in Garsen North and Kipini East wards.

4. Key Variables

The survey for this study included measures of women participation at both the household and community level, FMNR training and practice, and demographic information. Based on the KAP model, the quantitative analysis framework was structured as 〈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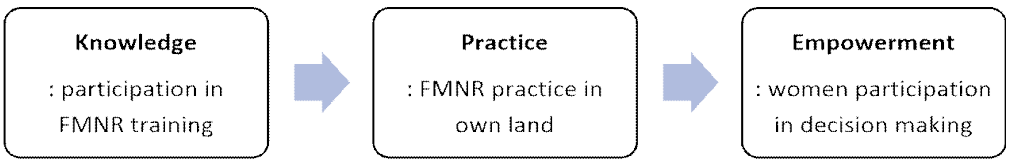
1) In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interest were participation in FMNR training, serving as a proxy for the "Knowledge"component of the KAP model. Participation in FMNR training was determined by summing up the different types of FMNR training sessions attended by any family members including the respondent.

2) Dependent and mediating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s of interest were women participation in their household and community. Women's participation at home comprised a total of

〈Figure 3〉 Analysis framework



Note: FMNR,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13 questions related to external activities, domestic decision-making, and FMNR decision-making as household representatives, yielding a Cronbach's Alpha value of 0.868. The specific items reflecting three domains included: opportunity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training; farming group); representation (attendance at village meetings or activities; cares for children); resources (decisions on the use of family income; decisions on what, when, and where to plant staple food crops; decisions on what, when, and where to plant cash crops; decisions on agricultural investments); and other related matters.

On the other hand, women's community participation encompassed 8 questions pertaining to community meeting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with a reliability coefficient Cronbach's Alpha value of 0.848. The scale also captured: opportunities (participation in village meetings); representation (speaking during village meetings; influencing decisions on village affairs; making decisions on village affairs; representing the village in interactions with the government); resources (controlling village funds); and other related matters. In the survey, participants' responses of "only men", "mostly men", "men and women equally", "mostly women", or "only women" to the question were scored on a five-point Likert scale.

Following Moser's framework, decision-making was analyzed in the domains of representation, resources, opportunities, and structures. However, the survey measures addressed only the first three domains, excluding structures.

The mediating variable was FMNR practices, representing the "Practice" element of the KAP model. FMNR practices were calculated by summing up the various FMNR activity types carried out by the respondent's household on their own land following the training.

The time dummy variable was used to capture the change between pre- and post-intervention periods. Specifically, the baseline time point is coded as 0, representing the situation before the intervention, while the endline is coded as 1, representing the post-intervention period.

3) Covariates

As for demographic information considered as covariates in this study, it includes the age, gender of household head, household income, and number of

families of the respondents. Household income has been transformed into log income values.

5. Statistical Analysis

First,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to assess changes in key variables between the baseline and endline surveys. To further investigate the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through which FMNR training influenced women's participation at the household and community levels and to assess whether these pathways differ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multi-group path analysis with bootstrapping was conducted using the lavaan package and the piecewiseSEM package in R (version 4.4.3). Prior to conducting the multi-group path analysis, key assump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s) were assessed. Skewness and kurtosis values for all continuous variables were within acceptable ranges, with skewness below 2 and kurtosis below 7. Multicollinearity was also not a concern, as all variance inflation factor values were below 5. To enhance the robustness of parameter estimates, bootstrapping was applied, as it does not assume multivariate normality.

This multi-group path analysis enables the comparison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cross groups by estimating path coefficients separately and testing for parameter invariance. Unlike traditional regression, which cannot account for indirect effects or changing relationships across groups (Chaitanya et al., 2024), path analysis offers a framework for testing theoretically driven causal models (Dugard et al., 2022; Mishra & Min, 2010), capturing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o provide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complex systems (Awogbemi et al., 2022; Streiner, 2005). There are two primary approaches to estimating SEMs including path analysis. The first is the global estimation approach, which models the relationships among all variables simultaneously using the variance-covariance matrix. This method relies on several assumptions, including the requirement that the data follow a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an assumption that is often violated in social science research. In response to these limitations, Shipley 2000) proposed an alternative method known as the local estimation approach, or piecewise SEM, grounded in graph theory. This approach estimates each dependent (response) variable separately, effectively decomposing the model into

smaller, manageable components (Shipley, 2000). As a result, it offers greater flexibility than global estimation by allowing for the individual evaluation and specification of each relationship in the model.

In this study, baseline and endline groups were compared to determine whether the structure and strength of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changed over time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rmula. To this end, the study first applied local estimation to the saturated model based on the aforementioned formula, and identified a simplified model derived from the results (Shipley, 2000). Subsequently, global estimation was performed to conduct a multi-group analysis, examining differences in model fit and path coefficients between the fully constrained and unconstrained models. Chi-square difference tests were used to evaluate whether constraining paths across groups significantly worsened model fit, indicating a change in pathways. Model comparisons were further supported by the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with lower values indicating better fit. An omnibus test was conducted to detect overall group differences, followed by pairwise comparisons of path coefficients where necessary. Finally, the outcomes from the global estimation were compared and validated against the local estimation results, and the findings were reported accordingly.

The multi-group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following formula.

Equation 1 : $Y_i = \alpha_1 + \beta_{11} \cdot M_i + \beta_{12} \cdot X_i + \beta_{13} \cdot C_i + \varepsilon_{1i}$

Equation 2 : $M_i = \alpha_2 + \beta_{21} \cdot X_i + \beta_{22} \cdot C_i + \varepsilon_{2i}$

Equation 3 : $X_i = \alpha_3 + \beta_{31} \cdot C_i + \varepsilon_{3i}$

Y : women participation within households (Y_1) / communities (Y_2)

X : sum of FMNR training participated

M : sum of FMNR types practiced

C : covariates

Moderating (multi-group) variable : prepost

Accordingly, the indirect and total effects were calculated as follows.

Indirect effects : $\beta_{11} \cdot \beta_{21}$

Total effects : $\beta_{11} \cdot \beta_{21} + \beta_{12}$

6. Document Analysis with Human-Artificial Intelligence (AI) Collaboration

This study also employed document analys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gender-transformative principles are embedded in two FMNR training manuals, which was used in the project. By analyzing the main training manual of the project, it can give a more concrete and detailed idea of how FMNR training promote gender equity, giving more qualitatie story of linkage in the pathway. Document analysis involves the systematic evaluation of documents to elicit meaning, gain understanding, and develop empirical knowledge (Bowen, 2009). It is particularly suited to policy and curriculum analysis because it allows researchers to identify patterns, themes, and biases in written texts and visual representations.

The two manuals analyzed were (1) the FMNR Lead Farmer Guide and (2) the Kenya FMNR Manual. Both were selected due to their practical role in farmer training and guiding them in the whole procedure of the FMNR activities.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based on a 97-item gender-transformative checklist derived from two Gender Mainstreaming Toolkit of Commonwealth of Learning (Frei & Leowinata, 2014) and UNESCO Bangkok (2019), which provides a structured tool for assessing gender equity and inclusion in educational materials.

The document analysis followed a five-step process: (1) validation and contextual adaptation of the checklist, (2) item weighting and selection, (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ating criteria, (4) systematic scoring of each manual, and (5) synthesis of results through cross-manual comparison.

In the first step, a 97-item gender-transformative checklist, which was originally derived from two gender toolkits, was reviewed for clarity and relevance within the context of agricultural extension training and landscape restoration.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relative importance in reflecting gender-transformative principles. A detailed five-point scoring rubric was developed for each item through discussions within the research team, enabling granular and objective evaluation. Each FMNR manual was read in full, with the checklist applied item by item. Both textual and visual elements were assessed, and each item was scored on the five-point scale. Page numbers and direct excerpts from the manuals were documented to justify each score, ensuring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Bowen, 2009) as well as triangulating by

human researchers (Gao et al., 2023; Prescott et al., 2024). Upon completion of individual scoring, results were compiled and compared across all eight FMNR manuals. This comparison helped identify strengths, gaps, and recurring patterns in the integration of gender-transformative elements. Differences in item scores between manuals were analyzed to generate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revising and improving gender-equitable training materials.

A novel component of this research was the integration of human expertis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assisted analysis. Four human researchers defined the analysis scope, provided domain-specific materials (e.g., the GENIA-based checklist), and verified judgments in each step, while the AI systems (ChatGPT, Copilot, google NotebookLM) performed the following tasks; Verifying duplication among items of checklist and refining them for contextual adaptation; Weighting items on the gender transformative perspective; Structuring and refining the scoring rubric based on the GENIA Toolkit; Extracting relevant textual evidence from the manuals to match each checklist item; Organizing evaluation outputs into standardized Excel-based formats for review and validation; Generating comparative summaries and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for manual improvement.

This collaborative method reflects a growing trend in qualitative research, where AI tools assist with data organization and pattern recognition, while humans retain responsibility for critical interpretation and contextual judgment (Gao et al., 2023; Prescott et al., 2024). To enhance trustworthiness, triangulation was implemented by cross-verifying AI outputs with manual readings, and all evaluative decisions were anchored in concrete textual evidence. No assumptions were made about content not explicitly present in the manuals (Prescott et al., 2024).

Ⅳ. RESULTS

1. Basic Characteristics

The baseline survey included 153 households, while the endline survey covered 166 households from Garsen North and Kipini East, respective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re detailed in 〈Table 1〉. Although all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250 project beneficiaries, the gender distribution of household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t baseline and endline

Ward	Villages	Baseline (0)		Endline (1)		χ^2 or t-value
		Sample (n) or mean	% or SD	Sample (n) or mean	% or SD	
Garsen North	Vumbwe	41	26.8	34	20.5	10.918
	Mikameni	11	7.2	23	13.9	
	Sailoni	17	11.1	15	9.0	
Kipini East	Kizuliani	8	5.2	18	10.8	
	Tosi	8	5.2	14	8.4	
	Kaloleni	24	15.7	19	11.4	
	Shauri Moyo	19	12.4	18	10.8	
	Uenze	15	9.8	13	7.8	
	Luvu	10	6.5	12	7.2	
Total		153	100.0	166	100.0	
Gender of household head						
- Male (0) - Female (1)		129 24	84.3 15.7	113 53	68.1 31.9	10.599**
# of family members		6.412	2.834	6.958	2.535	-1.808
Age of respondent		43.216	13.429	44.590	12.882	-0.931
Occupation of respondent						
- Farmer - Farmer plus paid work - Paid work - Other		146 2 1 4	95.4 1.3 0.7 2.6	156 3 0 7	94.0 1.8 0.0 4.2	1.823
Agricultural income (Ksh)		23,374.2	76,093.7	22,720.9	51,539.9	0.089

heads differed between the baseline and endline surveys.

2. Comparison between the Baseline and Endline

Firstly, regarding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women's participation, 〈Table 2〉 demonstrate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level of women's participation both within the household and the community post-project implementation.

Gender disparities were observed in domestic work distribution, with boys being more likely to engage in feeding livestock, while girls and women were more

〈Table 2〉 Women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Baseline (SD)	Endline (SD)	t-value
Women participation in HH			
- Proportion (SD) - Mean (SD)	0.744 (0.272) 2.949 (0.424)	0.800 (0.204) 3.109 (0.501)	2.047* 3.0938**
Wom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 Proportion - Mean (SD)	0.593 (0.373) 2.582 (0.597)	0.718 (0.290) 2.893 (0.466)	3.318** 5.160***

inclined to collect firewood (〈Appendix 1〉). It remained largely consistent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Nevertheless, both boys' and girls' working hours decreased significantly follow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Appendix 2〉).

To ascertain whether these effects could be attributed to the FMNR activities conducted in this project, the thoroughness of FMNR training was assessed. Consequently, 〈Table 3〉 below indicates that the cumulative participation in various types of training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the project. Consequently,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ho had heard about and practiced FMNR notably increased. Moreover,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um of FMNR activity types practiced in their own land after the project compared to before its initiation.

3. Multigroup Path Analysis Result

Multigroup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whether such changes occurred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through FMNR training and practice performed in this project, as well as to identify statistically significant pathways of infl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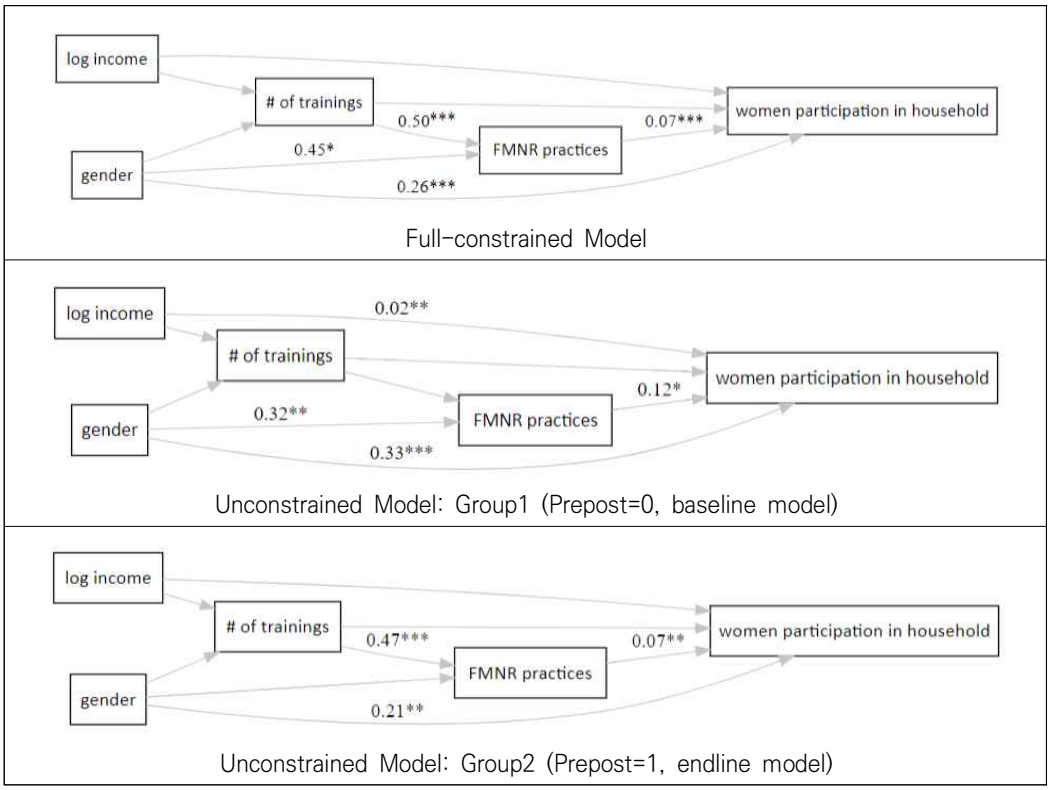
The analysis of women's participation at the household level is presented in 〈Figure 4〉 (〈Appendix 3〉). The final global model, simplified based on local estimation, demonstrated good fit with RMSEA=0.068 (90% CI: 0.00-0.18), CFI=0.994, TLI=0.948, and x^2=2.459 (df=1, p>.05). As shown in 〈Table 4〉, the unconstrained model exhibited significantly better fit than the fully constrained model (Δx^2=248.57,

〈Table 3〉 FMNR practices

	Baseline (%)	Endline (%)	χ^2 or t-value
Sum of training participated	0.379 (0.752) (N=153)	2.614 (2.073) (N=166)	12.994***
Heard FMNR - Yes - No	(N=153) 34 (22.2) 119 (77.8)	(N=166) 128 (77.1) 38 (22.9)	93.779***
Practice FMNR - Yes - No	(N=34) 14 (41.2) 20 (58.8)	(N=128) 118 (92.2) 10 (7.8)	43.008***
Who practice FMNR - Adults male - Adults female - Both - Others	(N=14) 5 (35.7) 5 (35.7) 2 (14.3) 2 (14.3)	(N=118) 45 (38.1) 29 (24.6) 43 (36.4) 1 (0.8)	12.368**
Sum of FMNR types practiced	0.150 (0.559)	2.325 (1.833)	14.569***

Note: FMNR,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igure 4〉 Impact pathway to the women participation in households



Note: FMNR,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Table 4〉 Goodness-of-fit indices of models on women participation in households

	Df	Chisq	Chisq diff	AIC	BIC	RMSEA
Unconstrained Model	2	3.1197		2,321.1	2,426.4	
Full-constrained Model	13	251.69***	248.57***	2,547.7	2,611.6	0.369

Note: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p<.001), indicating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baseline and endline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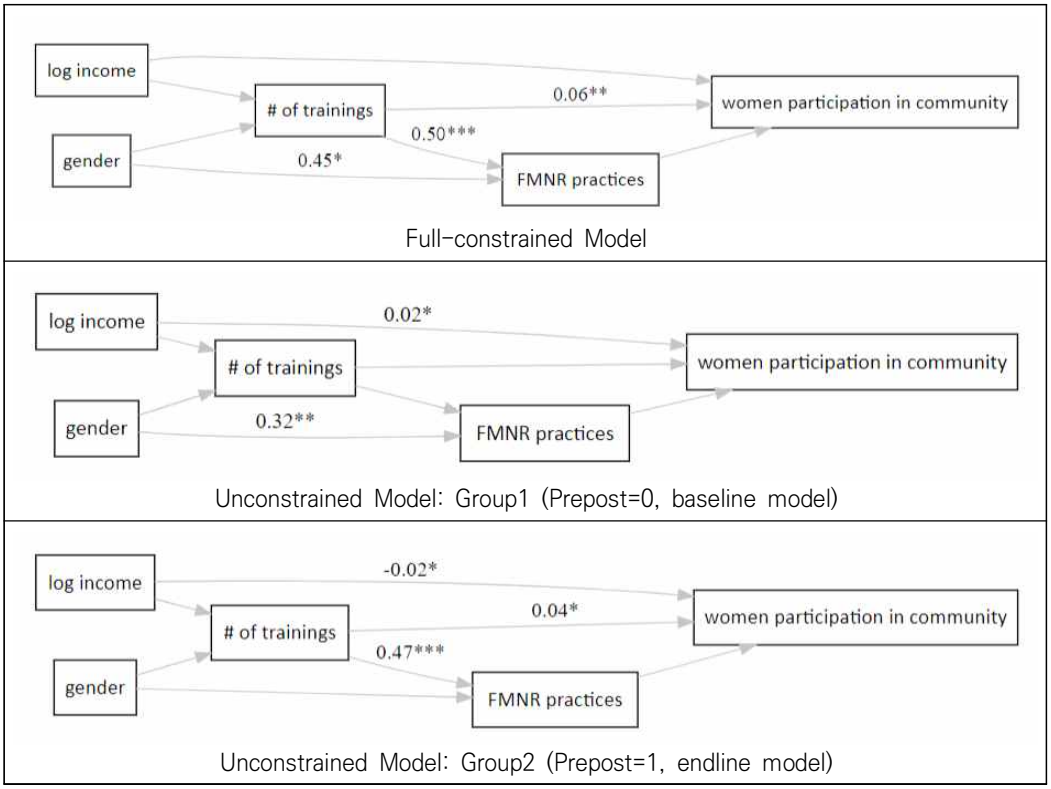
At baseline (Group 1), women's participation in the household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headed households (β=0.327, p<.001) and positively influenced by FMNR practice (β=0.12, p<.05) and log income (β=0.019, p<.01). FMNR practice itself was also higher in female-headed households (β=0.316, p<.01). However,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FMNR training on women's participat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ndicates that prior to the intervention, knowledge acquisition through FMNR training did not directly influence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nor indirectly through the adoption of FMNR practices.

In contrast, at endline (Group 2), the indirect effect of FMNR training on women's participation became statistically significant (β'=0.034, p<.01). FMNR training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MNR practice (β'=0.472, p<.001), which in turn significantly influenced women's participation (β'=0.071, p<.001). Although participation remained higher in female-headed households (β'=0.213, p<.01), log income no longer had a significant effect (β'=-0.007, p>.05).

The omnibus test revealed significant overall group differences (χ^2=323.34, df=12, p<.001), indicating tha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changed significantly from baseline to endline. Pairwise comparisons of path coefficients indicated that several paths and intercepts significantly differed across timepoints, including the indirect effect of FMNR training on women's participation, the path from log income to participation, the effect of FMNR training on practice, and intercepts for women's participation, FMNR practice, and FMNR training.

The analysis of women's participation at the community level is presented in 〈Figure 5〉 (〈Appendix 4〉). The final global model, simplified through local estimation, demonstrated good fit: RMSEA=0.027 (90% CI: 0.00-0.12), CFI=0.998, TLI=0.991, and χ^2=2.460 (df=2, p>.05). As in the household-level analysis, the unconstrained model provided a significantly better fit than the fully constrained

〈Figure 5〉 Impact pathway to the wom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Note: FMNR,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model (Δx^2=263.71, p〈.001), indicating tha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differed meaningfully between the baseline and endline groups (〈Table 5〉).

At baseline (Group 1), women's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og income (β=0.020, p〈.05), and FMNR practice was higher among female-headed households (β=0.316, p〈.01). However,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FMNR training on women's participat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able 5〉 Goodness-of-fit indices of models on wom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df	Chisq	Chisq diff	AIC	BIC	RMSEA
Unconstrained model	4	4.6251		2,434.6	2,532.4	
Full-constrained model	14	268.3405	263.71***	2,678.3	2,738.5	0.39946

Note: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In contrast, at endline (Group 2), the direct effect of FMNR training on women's participation became statistically significant (β'=0.041, p<.05), and FMNR training remained positively associated with FMNR practice (β'=0.472, p<.001). Interestingly, log income showed a negative association with women's participation (β'=-0.015, p<.05) at this timepoint.

The omnibus test for overall group differences was significant (χ^2=376.17, df=11, p<.001). Pairwise comparisons of path coefficien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imepoints for several pathways and intercepts, including the effect of log income on women's participation, the effect of FMNR training on FMNR practice, and the intercepts for women's participation, FMNR practice, and FMNR training.

4. Document Analysis Results

This study assessed the gender responsiveness of the Kenya FMNR Manual and the Lead Farmer Guide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of eight items. 〈Table 6〉 presents the total scoring results based on an analytical framework comprising eight items. To ensure internal consistency among evaluators,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was calculated by each manual. The resulting ICC value exceeded 0.50, indicating an acceptable level of inter-rater reliability.

〈Table 6〉 Gender perspective analysis of FMNR manuals

	Kenya FMNR manual				Lead farmer manual			
	eval1	eval2	eval3	Aver.	eval1	eval2	eval3	Aver.
1. Are women and men represented equally throughout the manual, including in both text and images?	3.00	4.00	3.00	3.33	4.00	3.00	4.00	3.67
2. Does the manual show women taking on non-traditional roles, helping to expand gender role diversity?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3. Are female characters shown as key decision-makers, rather than only in supportive roles?	4.00	4.00	4.00	4.00	3.00	4.00	3.00	3.33
4. Are both women and men described as active agents in FMNR?	5.00	4.00	5.00	4.67	4.00	3.00	5.00	4.00
5. Is women's leadership (e.g., women's farmer groups, female community leaders) highlighted?	4.00	4.00	4.00	4.00	4.00	4.00	5.00	4.33

〈Table 6〉 Continued

	Kenya FMNR manual				Lead farmer manual			
	eval1	eval2	eval3	Aver.	eval1	eval2	eval3	Aver.
6. Does the manual promote equal access to FMNR training opportunities for all genders?	5.00	5.00	4.00	4.67	3.00	2.00	3.00	2.67
7. Does the manual promote equal land access and use rights for both women and men?	4.00	4.00	4.00	4.00	2.00	1.00	1.00	1.33
8. Are there strategies in the manual to address cultural barriers that limit women's participation in FMNR?	4.00	3.00	3.00	3.33	3.00	3.00	4.00	3.33
	4.13	4.00	3.88	4.00	3.38	3.00	3.63	3.33

Note: FMNR,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Specifically, the Kenya FMNR Manual showed an ICC of 0.534 while the Lead Farmer Manual demonstrated a higher reliability with an ICC of 0.675.

Specifically, each item one by one was analy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gender representation across text and images, the Kenya FMNR Manual scored 3.33, demonstrating balanced language by referring consistently to both men and women, stating that "FMNR change agents are women and men", and incorporates sex-disaggregated indicators in its monitoring framework. It also includes images depicting women's participation, such as women's learning sessions, although men are often portrayed in more active roles. This indicates a partial imbalance in visual representation. The Lead Farmer Guide received a slightly higher score of 3.67. It utilizes inclusive language, stating that "anyone can practice FMNR including men, women,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y." Visual analysis shows that 93% of images include women, and 55% depict only women. However, the text frequently defaults to gender-neutral terms like "farmers" or "communities," and some narrative examples lean subtly male. Overall, both manuals show intent toward gender inclusivity but do not fully achieve consistent representation across all elements.

Second, both manuals portray women in non-traditional roles, receiving a score of 4.0. The Kenya FMNR Manual highlights women as "change agents" and features Irene Ojuok, an FMNR expert, as a national leader. It also depicts women engaging in value chain activities, such as harvesting frankincense and myrrh, and participating in governance and training programs. While these efforts signal a

departure from traditional gender roles, their representation is not uniform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text. The Lead Farmer Guide provides more targeted examples of women as leaders, producers, and entrepreneurs. It highlights women's involvement in tree nurseries and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energy-saving cookstoves", noting their roles as "extension agents" and "champion farmers." Although these examples are primarily located in the "Project Enabling Models" section, they offer more explicit recognition of women's contributions beyond domestic roles.

Third, with respect to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the Kenya FMNR Manual received a score of 4.0. It emphasizes inclusive governance and land-use planning involving "women, men, youth, and disadvantaged groups," and supports gender-balanced representation in local FMNR institutions. While women are identified as "FMNR champions" and engaged in leadership training, specific examples of individual women making high-level strategic decisions are limited. The Lead Farmer Guide scored slightly lower at 3.33. It refers to women's roles as group leaders and "extension agents", and includes language supporting stakeholder participation, such as "decision making of all stakeholders". However, it lacks concrete examples of women occupying formal decision-making positions, suggesting that while women's practical leadership is acknowledged, their strategic agency remains underdeveloped.

Fourth, both manuals portray women and men as active agents in FMNR, receiving high average scores of 4.67 for the Kenya Manual and 4.0 for the Lead Farmer Guide. The Kenya Manual underscores equitable participation through consistent use of inclusive language, such as "FMNR change agents are women and men", and integration of sex-disaggregated monitoring and value chain development. It frames FMNR as a gender-transformative intervention. Similarly, the Lead Farmer Guide positions FMNR as universally accessible, repeatedly affirming that "anyone can practice FMNR." It promotes a community-led approach that supports active engagement by all genders, and features women prominently as "extension agents" and "champion farmers". However, while both manuals strongly advocate for gender inclusion, they fall short of providing a roadmap for sustaining this inclusion beyond the life of the project.

Fifth, regarding the support for women's leadership, the Kenya FMNR Manual

received a score of 4.0, and the Lead Farmer Guide scored slightly higher at 4.33. The Kenya Manual frequently references women's groups as central to FMNR implementation, showcased through images and examples such as the "FMNR Women group in Laisamis", and acknowledges their role in sustaining FMNR and participating in value chain decision-making. The manual explicitly notes that "gender equity should be observed right from group membership to the leadership positions." The Lead Farmer Guide similarly promotes women's leadership in managing tree nurseries and leading community-based income-generating activities. It visually represents women-led initiatives and emphasizes their role in community influence and entrepreneurship. Nonetheless, while both manuals depict women as change agents, they do not propose concrete strategies to institutionalize women's leadership roles beyond project implementation.

Sixth, on gender-equitable access to training, the Kenya FMNR Manual scored 4.67. It emphasizes direct involvement of "men, women, and youth" in training activities and discourages the use of proxies that might undermine inclusivity. The manual also integrates gender-disaggregated indicators in its M&E framework. Whil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are lacking, its consistent language on "inclusive capacity building" and encouragement of women's participation as FMNR change agents indicate a clear intent to ensure equal access. In contrast, the Lead Farmer Guide scored lower at 2.67. Though it asserts that FMNR is open to all and promotes community-wide learning, it lacks operational guidance to address barriers faced by women—such as caregiving responsibilities or limited mobility—that often restrict access. Thus, while inclusive in principle, it falls short of operational guidance to ensure gender-equitable training access in practice.

Seventh, the Kenya FMNR Manual received a score of 4.0 for its attention to equitable land access and use rights. It recognizes gender-based restrictions, noting that "women may have rights to harvest certain tree products but may not be allowed to plant trees", and promotes gender-equal land rights by encouraging "dialoges that increase participation by all community groups (women and men) in land us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minimize vulnerability through prohibition of retrogressive land use practices". However, the manual lacks discussion on labor distribution and benefit sharing by gender, and does not providecomprehensive solutions for structural land tenure inequalities. By contrast, the Lead Farmer Guide scored only 1.33. It mentions land access generally, "as long as land is available,

access guaranteed", and highlights "community agreements and bylaws" but lacks a gender perspective in its analysis. No attention is given to systemic land ownership disparities, rendering its approach insufficient to support gender-equitable land rights.

Finally, both manuals acknowledge cultural barriers that limit women's participation in FMNR though with limited articulation of strategies to address them. The Kenya FMNR Manual scored 3.33, recognizing cultural barriers such as "depriving women of opportunities to own land and/or limiting access and control of trees and their products" and advocating FMNR with mindset change through gender-inclusive training to reverse such cultural negatives. While it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behavioral transformation, it lacks concrete and gender--sensitive strategy to these cultural barriers. The Lead Farmer Guide also scored 3.33, relying primarily on the "Empowered World View" model, which promotes introspection and belief transformation within communities. While this framework encourages cultural change, it does not specifically address gendered constraints or provide mechanisms tailored to overcoming them. Consequently, both manuals promote inclusion and positive attitudinal shifts but fall short of offering systematic strategies to address deep-seated cultural norms.

V. CONCLUSION

1. Key Findings

During the project, 250 community members, including 43 female-headed households and 207 male-headed households, participated in l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FMNR and agroforestry.

At the endline, 77.05% (n=141) of households had at least one member trained in land rehabilitation and management, compared to only 18.38% (n=25) at the baseline. The training program not only focused on land rehabilitation and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FMNR and agroforestry but also emphasized women's participation. On average, program participants adapted 2.33 types of FMNR activities, an improvement from 0.15 types at the baseline. Furthermore, the women's participation score improved from 2.95 (in-house) and 2.58

(in-community) to 3.11 and 2.89, respectively.

A multigroup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ticipation in training programs on women's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at the household and community levels, mediated by the practice of FMNR activities. The analysis also revealed significant increases in women's participation, FMNR training attendance, and FMNR practices from baseline to endline. At the endline, the number of training participation and the diversity of FMNR activities practiced emerg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women's participation scores, whereas at baseline, these f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layed a more substantial role. Notably, the magnitude and significance of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MNR training on women's participation at household and community level differed across timepoints, highlighting temporal variations in the mechanisms of influence.

Analyzing the FMNR manual used in the project allows for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observed differences in outcomes between the baseline and endline can be attributed, at least in part, to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training provided. This analysis of the Kenya FMNR Manual and the Lead Farmer Guide reveals that both documents demonstrate a strong commitment to gender inclusion in principle. Both manuals reflect progress toward gender-equitable FMNR implementation but would benefit from more explicit, operational guidance to address systemic gender disparities. Integrating detailed strategies for institutionalizing women's leadership, addressing cultural norms, and ensuring equitable land and training access can enhance their transformative potential. Such efforts are essential for realizing inclusive environmental restoration that empowers both women and men as equal agents of change.

2. Reflections on the Study in Comparison with Existing Literature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empirically elucidating the pathway through which participation in FMNR training fosters heightened female engagement, delineating the influence trajectory of the FMNR project.

Most notably, the analysis of the FMNR training pathways before and after the project's implementation confirmed that the integration of gender-sensitive content within World Vision's FMNR project contributed to positive outcomes in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FAO & CARE, 2019; World Vision Australia, 2019). In particular, the time spent on traditionally gendered tasks such as firewood collection and grazing not only decreased but also showed a more equitable redistribution of these roles between genders (Too et al., 2025). While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similar trends through qualitative methods (World Vision Australia, 2019),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statistical validation of those findings.

This study also underscored the varied pathways through which the FMNR project influences women's involvement in household and community affairs. Specifically, it was evident that tangible implementation of FMNR practices in their own land following trainings, embedded with gender-transformative elements, played a crucial role in strengthening women's participation at the household level. Experiential learning, where trainees internalize gender-sensitive values through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FMNR, proved to be an effective approach in reinforcing these transformative pathways (Cherewick et al., 2021; Zawadzki et al., 2014). Hence, advancing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within households necessitates more specific interventions or role alterations compared to fostering community participation. Conversely, women's engag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appeared to be influenced by training as well as other project activities besides FMNR. Notably, the project incorporated diverse activities aimed at enhancing local residents' awareness and augmenting the income of vulnerable females and youths alongside FMNR activities, potentially contributing to shifts in women's community involvement (Too et al., 2025).

Female-headed households demonstrated higher levels of women's participation at the household level,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t the community level. According to the intrahousehold bargaining model, when a woman is the primary income earner or has an independent source of income, her bargaining power within the household increases, thereby enhancing her autonomy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Becker, 1981). This theoretical expectation aligns with the study's findings, which showed that, at baseline, both household and community-level participation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log income. Although the project did not entirely mitigate the gap between female- and male-headed households, the relative influence of household headship on women's participation declined over time (β

0.33 baseline → β' 0.21 endline). In contrast, the effect of income exhibited notable changes. Specifically, while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log income and women's participation at the household level diminished by endline, the direction of its effect on community-level participation reversed, shifting from positive to negative. Given that the survey sample was composed of project participants, this reversal is likely attributable to the impact of broader income-enhancement interventions targeting vulnerable groups, beyond the FMNR intervention alone.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and proactive measure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female household heads and other vulnerable populations in community-level decision-making (Too et al., 2025; World Vision Australia, 2019).

3. Implications

Drawing from the study findings, several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ly, it is imperative to undertake FMNR activities over the long term while systematically monitoring and evaluating outcomes. Short-term projects, such as those lasting approximately one year, may not adequately demonstrate achievements like transformation of gender norms, income growth or carbon reduction. Therefore, sustained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re essential to verify income increments resulting from FMNR activities, assess gender transformative change in institutions, power relations and gender norms within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gauge the environmental impact in terms of carbon reduction.

Secondly, there is a need to proactively address gender balance not only by intentionally emphasizing women participation in FMNR implementation but also by ensuring a more equitable gender ratio among participants. This study observed a gender ratio disparity between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mirroring the trend observed in the actual project. While gender ratio was not initially considered in project planning, it became evident that female participation increased in tandem with project performance. In other studies, male participation tends to outweigh female involvement due to factors like property rights or economic activities predominantly led by men in agriculture (Crawford et al., 2016; Deininger et al., 2011; Haley & Marsh, 2021; Iiyama et al., 2017). To address this, FMNR training or

activities should be designed from inception with due consideration for gender parity. Specifically,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oject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strategies: setting quotas to ensure a minimum level of female participation; utilizing more female trainers to encourage and relate to female participants; conducting women-only training sessions to create a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reducing the duration of training events to accommodate women's schedules; and scheduling training sessions during periods in the seasonal calendar when women are more likely to be available to attend. These measures can help to maximize women's involvement and ensure they benefit fully from FMNR activities (Rinaudo et al., 2019).

Ultimately, to enhance the genuine involvement of women, it is imperative to instigate alterations in communal norms, necessitating a fortified community-oriented strategy. It is crucial to acknowledge that in developing nations such as Kenya, the application of existing legislation is inadequate, allowing social customs and traditional laws to dominate. This implies that despite the enactment of laws that recognize spouses as equal proprietors, including the rights of women to inherit land, these regulations are not reliably enforced in practice. To effectuate a substantial improvement in the circumstances, it is insufficient to focus solely on the training of women; a transformation in the prevailing social norms within the community is essential (Keleher & Franklin, 2008; Schensul et al., 2015). While the FMNR manual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within local realities, they fall short in offering concrete solutions to address entrenched gender norms. Thus, the manuals should be enhanced to better reflect strategies for social norm change, and additional complementary interventions are needed to support this transformation.

4. Strengths and Limitations

Despite thes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his study exhibits certain limitations, prompting a call for follow-up research that addresses these constraints.

Firstly, this study examined women's empowerment within the FMNR project primarily in terms of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However, women's empowerment is a broader process of transforming power

relations related to beliefs and resources, encompassing formal and informal systems across individual, family, community, and global levels (Boserup, 1970; Cornwall, 2016; Kabeer, 1999; Moser, 2012; Rai, 2013). Moreover, the measurement tools used in this study captured only three domains, which are representation, resources, and opportunities, omitting institutional or structural dimensions emphasized in Moser's framework.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changes in women's land ownership and related system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understanding women's empowerment as a process in which women act as agents of change, rather than merely as beneficiaries of the project.

Secondly, a methodological limitation of this study arises from its reliance on two cross-sectional surveys, which restricts causal inference and introduces potential biases such as social desirability bias, interference effects, and the influence of external factors unrelated to the intervention. Future studies would benefit from establishing a comparative group or acquiring time series data to delve deeper into and validate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pathway of the project. Additionally, this study employed proxy variables to represent components of the KAP model. Future research should aim to measure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more directly.

Thirdly, this study predominantly assessed the project's effectiveness by focusing on FMNR activities among the array of initiatives undertaken. Consequently, it was evident that the pathways influencing women's involvement in household and community decision-making differed, with community engagement being influenced by project activities beyond FMNR training. However, the study did not thoroughly explore how these additional project activities outside FMNR contribute to community participation. Therefore, conducting follow-up studies from a holistic perspective, considering the synergy between various project activities conducted alongside FMNR, is warranted.

Lastly, this study employed a mixed-methods design, combining multi-group path analysis for the quantitative component and document analysis for the qualitative component. The quantitative analysis aimed to assess whether FMNR training and practices contributed to women's empowerment, while the qualitative analysis evaluat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FMNR training content in supporting this outcome. However, the document analysis, which was based solely on the

training manual, was limited to a content-level review and did not capture how the material was delivered during training sessions or how it was perceived and internalized by participants.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incorporate direct interviews or participatory observations to explore the delivery process and participant reception in greater depth.

REFERENCES

Agnihotri, N. (2021). Women empowerment and their decision-making supremacy: A literature review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Business and Creative Economy, 1*(1), 57-65.

Agúndez, D., Lawali, S., Mahamane, A., Alía, R., & Soliño, M. (2022). Development of agroforestry food resources in Niger: Are farmers' preferences context specific? *World Development, 157*, 105951.

Anda, I. (2016). *Evaluation report: Building resilience to a changing climate and environment (BRACCE) timor leste.* Uxbridge: World Vision.

Andrade, C., Menon, V., Ameen, S., & Kumar Praharaj, S. (2020). Designing and conducting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surveys in psychiatry: Practical guidance. *Indian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42*(5), 478-481.

Awogbemi, C. A., Alagbe, S. A., & Oloda, F. S. S. (2022). On the path analysis techniques and decomposition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sian Journal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20*(4), 208-219.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oserup, E. (1970).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Crows Nest: Geroge Allen & Unwin.

Bowen, G. A. (2009). Document analysi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9*(2), 27-40.

Buyinza, J., Okia, C. A., Kegode, H., & Muriuki, J. (2016).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project: Status survey report for Uganda.* Kampala: FMNR.

Chaitanya, G., Tevari, P., & Hanumanthappa, D. (2024). Path analysis: An overview and its application in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riculture Extension and Social Development, 7*(4), 299-303.

Cherewick, M., Lebu, S., Su, C., Richards, L., Njau, P. F., & Dahl, R. E. (2021). Promoting gender equity in very young adolescents: Targeting a window of opportunity for social emotional learning and identity development. *BMC Public Health, 21*(1), 2299.

Coady, D., Dai, X., & Wang, L. (2001). *Community programs and women's participation: The Chinese experie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622).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Cornwall, A. (2016). Women's empowerment: What work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8*(3), 342-359.

County Government of Tana River. (2024). *2023-2027 County integrated development plan* (3rd generation CIDP). Nairobi: KiPPRA.

Crawford, A., Shteir, S., & Chaves, D. (2016).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Evidence gap analysis.* Melbourne: World Vision Australia.

de Sherbinin, A., Bukvic, A., Rohat, G., Gall, M., McCusker, B., Preston, B., Apotsos, A., Fish, C., Kienberger, S., Muhonda, P., Wilhelmi, O., Macharia, D., Shubert, W., Sliuzas, R., Tomaszewski, B., & Zhang, S. (2019). Climate vulnerability mapping: A systematic review and future prospects.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10*(5), e600.

Deininger, K., Ali, D. A., & Alemu, T. (2011). *Impacts of land certification on tenure security, investment, and land market participation: Evidence from Ethiopia.*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24).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A technique to effectively combat poverty and hunger through land and vegetation restoration.* New York, NY: United Nations.

Dugard, P., Todman, J., & Staines, H. (2022). Path analysis. In P. Dugard, J. Todman, & H. Staines (Eds.), *Approaching multivariate analysis* (2nd ed., pp. 159-176). London: Routledge.

Eckstein, D., Künzel, V., Schäfer, L., & Winges, M. (2019).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0: Who suffers most from extreme weather events?* Briefing Paper. Bonn: Germanwatch.

Elias, M. (2016). Gendered knowledge sharing and management of shea (*Vitellaria paradoxa*) in central-west Burkina Faso. In C. J. Pierce Colfer, B. S. Basnett, & M. Elias (Eds.), *Gender and forests: Climate change, tenure, value chains and*

emerging issues (pp. 263-282). London: Routledge.

Elias, M., Hummel, S. S., Basnett, B. S., & Colfer, C. J. P. (2017). Gender bias affects forests worldwide. *Ethnobiology Letters, 8*(1), 31-34.

FAO & CARE. (2019). *Good practices for integrat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climate-smart agriculture programmes*. Atlanta, G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CARE.

Frei, S., & Leowinata, S. (2014). *Gender mainstreaming toolkit for teachers and teacher educators.* Vancouver, BC: Commonwealth of Learning.

Galudra, G., Rubio Echazarra, N., Juita, R., & Silori, C. S. (2024). Transforming agroforestry through gender practic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ropical Forest Issues, 62*, 12-20.

Gao, J., Cao, J., Yeo, S., Tsu Wei Choo, K., Zhang, Z., Jia-Jun Li, T., Zhao, S., & Tangi Perrault, S. (2023). *Impact of human-AI interaction on user trust and reliance in AI-assisted qualitative coding.* Woodstock'18: ACM Symposium on Neural Gaze Detection. New York, NY.

Garrity, D. P., Akinnifesi, F. K., Ajayi, O. C., Weldesemayat, S. G., Mowo, J. G., Kalinganire, A., Larwanou, M., & Bayala, J. (2010). Evergreen agriculture: A robust approach to sustainable food security in Africa. *Food Security, 2*(3), 197-214.

Government of Kenya. (2017). *Tana Delta integrated management plan, 2017-2027*. Nairobi: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Government of Kenya. (2018a). *Kenya integrated household budget survey 2015-2016*. Nairobi: 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Government of Kenya. (2018b). *Third medium term plan 2018-2022*. Nairobi: Kenya Vision 2030.

Government of Kenya. (2018c). *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 (Kenya) 2018-2022*. Nairobi: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Government of Kenya. (2019). *2019 Keny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sults* (Vol. I). Nairobi: KNBS.

Haley, C., & Marsh, R. (2021). Income generation and empowerment pathways for rural women of Jagusi Parish, Uganda: A double-sided sword. *Social Sciences & Humanities Open, 4*(1), 100225.

Iiyama, M., Derero, A., Kelemu, K., Muthuri, C., Kinuthia, R., Ayenkulu, E., Kiptot,

E., Hadgu, K., Mowo, J., & Sinclair, F. L. (2017). Understanding patterns of tree adoption on farms in semi-arid and sub-humid Ethiopia. *Agroforestry Systems, 91*(2), 271-293.

Jamal, M. (2023). *Women as agents of change for greening agriculture and reducing gender inequality* (UNDP Global Policy Network Brief, 58). New York, NY: UNDP.

Jean, G. R., & Medard, G. K. (2016). *Mid term evaluation report. Towards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project.* Rwanda: World Vision.

Kabeer, N. (1999). Resources, agency, achievements: Reflections on the measurement of women's empowerment. *Development and Change, 30*(3), 435-464.

Kameri-Mbote, P., & Kabira, N. (2023). Gender equality and climate change in plural legal contexts: A critical analysis of Kenya's law and policy framework. In C. Albertyn, M. Campbell, H. Alviar Garcia, S. Fredman, & M. R. de Assis Machado (Eds.), *Feminist frontiers in climate justice: Gender equality, climate change and rights* (pp. 165-187). Cheltenham: Edward Elgar.

Keleher, H., & Franklin, L. (2008). Changing gendered norms about women and girls at the level of household and community: A review of the evidence. *Global Public Health, 3*(suppl 1), 42-57.

Kim, E. M., Hong, S. Y., Choi, Y. K., Kim, S. E., Kim, J. H., Cho, Y., Choi, S. Y., & Park, H. I. (2022). *2022 Impact Evaluation Report "Basic for Girls Project in Zambia.* Seoul: World Vision Korea.

Kim, S., Cho, Y., Kim, M., Choi, S., Kim, E. M., & Hong, S. Y. (2024).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basic for girls (B4G) project in Zambia on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view, 16*(2), 77-93.

Kiptot, E., & Franzel, S. (2012). Gender and agroforestry in Africa: A review of women's participation. *Agroforestry Systems, 84*(1), 35-58.

Kuyah, S., Buleti, S., Dimobe, K., Nkurunziza L, Moussa S, Muthuri C, & Öborn I. (2023).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in Africa: Evidence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in drylands. In J. C. Dagar, S. R. Gupta, & G. W. Sileshi (Eds.), *Agroforestry for sustainable intensification of agriculture in Asia and Africa* (pp. 53-88). Singapore: Springer.

Le, K., & Nguyen, M. (2020). How education empowers wome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21*(2), 511-536.

Leghari, R., & Wretblad, E. (2016). *Typology on training for gender equality.* New

York, NY: UN Women.

Marigi, S. N. (2017).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impacts analysis in Kenya. *American Journal of Climate Change, 6*(1), 52-74.

Mishra, D., & Min, J. (2010).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in marketing: A comparison of multiple regression with path analysis. *Innovative Marketing, 6*(3), 113-120.

Moonzwe Davis, L., Schensul, S. L., Schensul, J. J., Verma, R. K., Nastasi, B. K., & Singh, R. (2014). Women's empowerment and its differential impact on health in low-income communities in Mumbai, India. *Global Public Health, 9*(5), 481-494.

Moser, C. (2012).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Theory, practice and training.* London: Routledge.

Mwangi, K. K., & Mutua, F. (2015). Modeling Keny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 multifactor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Research, 4*(6), 12-19.

Nguyen, M. P., North, H., Duong, M. T., & Nguyen, M. C. (2021). *Assessment of women's benefits and constraints in participating in agroforestry exemplar landscapes* (ICRAF Working Paper, 315). Montpellier: CGIAR.

Odwori, P.O., Wachilonga, L. W., & Wabwile, S. W. (2016).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project: Kenya. Mid term evaluation report.* Kenya: World Vision.

Prescott, M. R., Yeager, S., Ham, L., Rivera Saldana, C. D., Serrano, V., Narez, J., Paltin, D., Delgado, J., Moore, D. J., & Montoya, J. (2024). Comparing the efficacy and efficiency of human and generative AI: qualitative thematic analyses. *JMIR AI, 3*, e54482.

Rai, S. M. (2013). *Gender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From nationalism to globalization.* Hoboken, NJ: John Wiley & Sons.

Rinaudo, T., Muller, A., & Morris, M. (2019).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mannual.* Addis Abada: FMNR.

Rocca, C. H., Rathod, S., Falle, T., Pande, R. P., & Krishnan, S. (2009). Challenging assumptions about women's empowerment: Social and economic resources and domestic violence among young married women in urban South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8*(2), 577-585.

Schensul, S. L., Singh, R., Schensul, J. J., Verma, R. K., Burleson, J. A., & Nastasi, B.

K. (2015). Community gender norms change as a part of a multilevel approach to sexual health among married women in Mumbai, India HHS public acc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6*(1-2), 57-68.

Shipley, B. (2000). A new inferential test for path models based on directed acyclic graph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7*(2), 206-218.

Soria, S. M. N., & Borja, A. S. (2024). Reading proficiency level and syntactical skills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alibon II district, Bohol. *University of Bohol Multidisciplinary Research Journal, 12*(1), 94-107.

Streiner, D. L. (2005). Finding our way: An introduction to path analysi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0*(2), 115-122.

Sunderland, T., Achdiawan, R., Angelsen, A., Babigumira, R., Ickowitz, A., Paumgarten, F., Reyes-García, V., & Shively, G. (2014). Challenging perceptions about men, women, and forest product use: A global comparative study. *World Development, 64*(supple 1), S56-S66.

Thomas, K., Hardy, R. D., Lazrus, H., Mendez, M., Orlove, B., Rivera-Collazo, I., Roberts, J. T., Rockman, M., Warner, B. P., & Winthrop, R. (2019). Explaining differential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 social science review.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10*(2), e565.

Too, P. T., Chesire, M. A., Kigen, C., Korir, J., & Munyao, C. M. (2025). Enhancing gender equality, disability and social inclusion through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in central rift, Keny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s, 8*(1), 40-59.

UNESCO Bangkok. (2019). *Gender in education network in Asia-Pacific (GENIA) toolkit: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Paris: UNESCO.

Urooj, K., Ahmad, T. I., Nawaz, M. A., & Bhatti, M. A. (2023). Family planning decision in the context of women empowerment: Case of a middle-income economy. *IRASD Journal of Economics, 5*(1), 160-178.

Weston, P., Hong, R., Kaboré, C., & Kull, C. A. (2015).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enhances rural livelihoods in dryland west Africa. *Environmental Management, 55*(6), 1402-1417.

World Vision. (202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climate action: Investing in sustainable outcomes for children*. Hong Kong: World Vision.

World Vision Australia. (2019). *Evidence of impact: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 Gland: FMNR.

Zawadzki, M. J., Shields, S. A., Danube, C. L., & Swim, J. K. (2014). Reducing the endorsement of sexism using experiential learning: The workshop activity for gender equity simulation (WAG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8*(1), 75-92.

논문 접수일: 2025. 5. 7.
수정논문 접수일: 2025. 6. 9.
게재 확정일: 2025. 7.22.

Appendix

〈Appendix 1〉 Responsible for work

	Herding livestocks		Collecting firewoods	
	Baseline (%)	Endline (%)	Baseline (%)	Endline (%)
Mostly boys	17 (30.4)	38 (46.9)	2 (1.5)	4 (2.7)
Mostly girls	3 (5.4)	1 (1.2)	29 (21.3)	40 (26.8)
Boys and girls	2 (3.6)	1 (1.2)	5 (3.7)	1 (0.7)
Mostly men	15 (26.8)	13 (16.0)	9 (6.6)	4 (2.7)
Mostly women	11 (19.6)	15 (18.5)	88 (64.7)	68 (45.6)
Men and women equally	2 (3.6)	2 (2.5)	3 (2.2)	1 (0.7)
Shared between all family members	6 (10.7)	11 (13.6)	0 (0.0)	31 (20.8)

〈Appendix 2〉 Working hours

	Seasons	Baseline (SD)	Endline (SD)	t-value
Hours (per day) to take animals to graze	Dry season	5.72 (6.355)	2.88 (2.795)	2.960**
	Wet season	4.43 (5.178)	1.95 (1.708)	3.273**
Hours (per day) to collect firewood	Dry season	3.65 (5.628)	1.36 (1.499)	4.309***
	Wet season	3.15 (3.651)	1.73 (1.766)	3.953***

〈Appendix 3〉 Direct & indirect effect of FMNR project to women participation in households

Left hand side (LHS)	Right hand side (RHS)	Full-constrained Model		Unconstrained Model			
				Group1 (baseline)		Group2 (endline)	
		Coefficient (β)	Z	Coefficient (β)	Z	Coefficient (β')	Z
Women participation	.	2.871	73.443***	2.776	55.457***	3.015	38.52***
Women participation	Sum of FMNR types practiced	0.072	3.776***	0.12	2.087*	0.071	3.036**
Women participation	Sum of training participated	-0.025	-1.591	0.029	0.686	-0.034	-1.618
Women participation	Log income	0.008	1.665	0.019	2.929**	-0.007	-0.98

〈Appendix 3〉 Continued

Left hand side (LHS)	Right hand side (RHS)	Full-constrained Model		Unconstrained Model			
				Group1 (baseline)		Group2 (endline)	
		Coefficient (β)	Z	Coefficient (β)	Z	Coefficient (β')	Z
Women participation	Gender of household head	0.268	4.592***	0.327	3.681***	0.213	2.723**
Sum of FMNR types practiced	·	0.03	0.504	0.108	2.044*	0.998	4.876***
Sum of FMNR types practiced	Sum of training participated	0.499	12.659***	-0.02	-0.334	0.472	8.105***
Sum of FMNR types practiced	Gender of household head	0.446	3.329***	0.316	2.605**	0.292	1.135
Sum of training participated	·	0.386	4.179***	0.32	3.464***	2.2	7.844***
Sum of training participated	Log income	0.022	1.788	0.011	0.919	0.045	1.384
Sum of training participated	Gender of household head	0.26	1.608	0.018	0.105	0.492	1.442
Indirect effect	·	0.036	3.619***	-0.002	-0.33	0.034	2.843**
Total effect	·	0.011	0.911	0.026	0.622	0	-0.005

Note: FMNR,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Appendix 4〉 Direct & indirect effect of FMNR project to wom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Left hand side (LHS)	Right hand side (RHS)	Full-constrained Model		Unconstrained Model			
				Group 1 (baseline)		Group 2 (endline)	
		Coefficient (β)	Z	Coefficient (β)	Z	Coefficient (β')	Z
Women participation	·	2.699	59.834***	2.518	35.37***	2.941	39.944***
Women participation	Sum of FMNR types practiced	-0.001	-0.055	-0.139	-1.648	-0.026	-1.123
Women participation	Sum of training participated	0.056	3.538***	-0.034	-0.541	0.041	1.997*
Women participation	Log income	-0.003	-0.451	0.02	2.071*	-0.015	-2.101*
Sum of FMNR types practiced	·	0.03	0.504	0.108	2.044*	0.998	4.876***

〈Appendix 4〉 Continued

Left hand side (LHS)	Right hand side (RHS)	Full-constrained Model		Unconstrained Model			
				Group 1 (baseline)		Group 2 (endline)	
		Coefficient (β)	Z	Coefficient (β)	Z	Coefficient (β')	Z
Sum of FMNR types practiced	Sum of training participated	0.499	12.659***	-0.02	-0.334	0.472	8.105***
Sum of FMNR types practiced	Gender of household head	0.446	3.329***	0.316	2.605**	0.292	1.135
Sum of training participated	·	0.386	4.179***	0.32	3.464***	2.2	7.844***
Sum of training participated	Log income	0.022	1.788	0.018	0.105	0.492	1.442
Sum of training participated	Gender of household head	0.26	1.608	0.011	0.919	0.045	1.384
Indirect effect	·	-0.001	-0.055	0.003	0.327	-0.012	-1.112
Total effect	·	0.056	4.496***	-0.031	-0.493	0.029	1.657

Note: FMNR,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5, 20(2), 89-114
https://doi.org/10.34225/jidc.2025.20.2.89
pISSN: 2093-212X, eISSN: 2671-9797

연구논문

모리타니아 다르비다(Dar El Beida) 지역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아동 대응 주민 주도 통합모델 PBN (Programme Better Nutrition) 파일럿 사례 연구*

조미경**
정선희***
김수정****

요 약

본 연구는 모리타니아 다르비다 지역에서 지역보건요원이 주도한 Programme Better Nutrition(PBN) 파일럿의 설계·실행을 기술하고,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아동의 단기 영양 지표와 보호자 변화를 평가하였다. 2025년 4~6월 3개 기수(29가구)로 운영된 PBN은 2

* 본 연구는 사단법인 더멋진세상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사업명: 모리타니 PBN, 2025 회계연도). 본 연구의 재정적, 운영적, 그리고 현장 지원을 제공해 주신 사단법인 더멋진세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 수행에 협조한 Mouhamedou Wague(영양사, 데이터 수집 및 자문), Ibrahima N'Diouck(코디네이터, 현지 조정), 행정을 총괄한 이종구 지부장님, 그리고 한국의 PBN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 **Main author:** 더멋진세상 모리타니아 지부 프로젝트 매니저 / mkjo707@gmail.com
*** **Co-author:** CHE코리아 전문강사 / shkids0028@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 soojungkim@hnu.kr

© Copyright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주간 센터 기반 교육과 2주간 가정 방문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었으며, 센터기반교육은 위생 · 질병 시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이유식 등 보호자 교육과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참여형 조리 실습이 병행되었다. 보호자 교육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는 발달수준에 적합한 놀이활동이 제공되었으며, 3회기에는 보호자-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놀이활동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데이터는 사전-종료-종료 2주 후의 상완위둘레 · 체중 · 신장 측정값과 참여자 인터뷰 · 운영일지 · 회의록 등 질적 자료를 포함하였으며, 양적 자료는 평균 변화 비교를 통해 기술통계로 분석하고,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으로 주제별 패턴을 도출하였다. 수료율은 97%였으며, 다수의 아동에서 상완위둘레와 체중이 단기간에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평균 +3.6~4.5 mm, +0.72~0.73 kg). 보호자들은 영양결핍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성장 모니터링 능력과 식단 · 위생 실천 지식을 확대하여 행동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호자–아동 음악놀이와 자발적 놀이활동을 매개로 애착과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고, 보호자의 양육 효능감 · 희망 · 안도감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정기 가정 방문은 지지 경험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수용성과 지속 의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주민 주도형으로 영양 · 위생교육, 조리 실습, 정서적 지지 활동, 가정 방문을 통합한 PBN은 단기간 내 영양지표와 보호자 지식 · 행동 ·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시사하며, 1차 보건체계 내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아동, 통합, 지역사회 주민 주도, 지속가능성, 베터뉴트리션 프로그램(Programme Better Nutrition, PBN)

Ⅰ. 서론

모리타니아는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영양실조가 아동 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리타니아 15개 지역 중 12개 지역에서 전반적인 급성 영양결핍(Global Acute Malnutrition) 유병률이 10%를 넘어 위기 단계로 분류되었으며, 그 중 5개 지역은 15%를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FSIN, 2025). 전국적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전반적인 급성 영양결핍 비율은 약 11%에 달했으며, 이 중 중증 급성 영양결핍(Severe Acute Malnutrition)은 약 1.9%를 차지하여 아동 생존과 발달에 구조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SIN, 2025).

모리타니아의 이러한 영양 문제는 단순한 식품 부족을 넘어, 영양과 직결되는 양육 행동의 취약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19~2021년 조사에 따르면, 6~23개월 영유아 중 최소 한의 식이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며, 생후 6개월까지의 완전모유수유율도 약 41%로 국제 권장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FSIN, 2025). 또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소 비용의 영양식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식품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결과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56%, 5세 미만 아동의 빈혈 유병률은 77%에 달해 인구 전반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영양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FSIN, 2025).

이와 같은 영양의 구조적 취약성은 아동의 급성 영양실조 문제로 직접 이어진다. 특히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Moderate Acute Malnutrition, MAM) 아동은 적시에 관리되지 않을 경우 중증 영양실조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그러나 국제적 보건체계에서 중증 급성 영양결핍은 사망 위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리타니아의 경우에도 WHO와 UNICEF의 지침에 따라 비교적 체계적이고 자원집약적인 개입(예: 치료용 조제식 제공, 입원・외래 치료 등)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은 발달 지연과 질병 취약성, 중증 급성 영양결핍으로의 진행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우선순위가 낮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Dalglish et al., 2020).

최근 WHO와 UNICEF는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아동과 중증 급성 영양결핍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영양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발달 자극을 병행하는 통합적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WHO, 2020). 이는 영양치료만으로는 아동의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을 충분히 회복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발달 지연, 학습 부진,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 또한 아동의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인지적・사회정서적 발달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이 효과적인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으며(Beukes et al., 2025; Black et al., 2017), 특히 영양 개입에 반응적 보살핌과 놀이 자극을 통합하는 접근이 단일한 영양 중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Black et al., 2017; Engle et a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영양실조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는 단순히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생애초기 발달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Escher et al., 2024; Jeong et al., 2018).

이러한 통합적 개입은 아동 발달의 생물학적 토대(영양 공급)와 심리·사회적 환경(양육자–아동 상호작용, 자극적 경험)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는 상호보완적 효과를 발휘하게 한다(Dulal et al., 2023; Grantham-McGregor et al., 2007; Walker et al., 2011; Yousafzai et al., 2014, 2016). 예를 들어, Yousafzai와 동료들이 파키스탄에서 수행한 지역사회 기반 무작위 대조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서는 파키스탄 저소득층 가정에 영양강화개입과 반응적 자극 개입을 단독 혹은 결합하여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반응적 자극 개입을 경험한 아동은 대조군보다 발달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영양과 반응적 자극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에서 가장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행동과 가정 내 돌봄 환경의 개선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부모의 변화된 양육 행동을 통해 아동의 영양 개선과 전인적 발달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통합적 접근이 단기적 효과를 넘어, 지속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Yousafzai et al., 2016).

더 나아가, 최근 국제 개발 및 영양·보건 개입 연구에서 프로그램 설계와 수행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참여와 실행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개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전략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Smith & Blumenthal, 2012). 단순히 외부 주도의 일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주도의 참여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개입의 문화적 적합성, 자원 활용의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 유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커뮤니티 기반 참여 방식을 활용한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입이 구성원의 주도하에 계획·실행될 때 식량의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식량 및 영양의 안정적 확보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보고하고 있다(Ranisavljev et al., 2025).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통합적이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개발한 모리타니아 다르비다(Dar El Beida) 지역의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아동들을 위한 Programme Better Nutrition(PBN)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합적이며 주민 참여적인 PBN은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아동과 그 보호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단순한 영양 지원을 넘어 아동의 영양 회복과 보호자 및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활동을 제공할 뿐 아니라, 모자 간 애착을 증진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아동의 신체 성장뿐 아니라 보호자의 영양 및 양육 행동 변화, 정서적 상호작용 강화를 함께 도모하였으며, 이는 WHO와 UNICEF가 제시한 영양–보육 통합 접근 지침(UNICEF, 2019; WHO, 2020)과 아동 발달 관련 실증 연구(Beukes et al., 2025; Dulal et al., 2023; Escher et al., 2024; Grantham-McGregor et al., 2007; Yousafzai et al., 2014)에 근거한다.

프로그램 명칭이 시사하듯, PBN은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으면서 보호자의

긍정적 양육 태도 형성 또한 효과적으로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 중 선발된 지역보건요원이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영양결핍 아동이 많은 다르비다 마을 주민들이 PBN에 높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고, 동시에 참여자와 지역보건요원의 역량이 함께 강화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PBN은 보호자와 지역보건요원의 적극적 활동을 토대로 구현되는 "주민 주도형 참여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PBN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파일럿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PBN 참여 아동의 단기영양상태 개선과 보호자의 지식·행동·심리사회적 변화를 확인하고, 도출된 프로그램의 보완점 및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디자인 및 대상

본 연구는 모리타니아에서 수행된 PBN을 분석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case study)이다. 사례연구는 특정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을 맥락적 요인과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다(Stake, 1995; Yin,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PBN이 지닌 프로그램적 특성과 실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맥락적·실천적 특성을 탐구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 양상과 내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PBN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모리타니아 수도 누악쇼트 남쪽 엘미나 시의 다르비다 지역에 위치한 JOY 센터를 거점으로 총 3회기에 걸쳐 운영되었다. 각 기수마다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으로 진단된 6~59개월 아동 10명과 그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 10명을 모집하여 약 4주간의 집중 개입을 실시하였으며, 총 3회기에 걸쳐 30쌍의 아동–어머니(또는 주 양육자) 집단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 및 센터 내 공간·인력 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회기당 약 10가구 내외로 참여 규모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탐색하는 파일럿 단계로서, 실질적 참여·운영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3회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시 일정과 연구참여자에 관하여 〈표 1〉에 요약하였다.

〈표 1〉 프로그램 실시 일정 및 연구참여자 정보

	1회기	2회기	3회기
센터기반 교육 진행 일시	2025년 4월 14일~4월 24일 주 4회 월~목요일 9~12시	2025년 5월 12일~5월 22일 주 4회 월~목요일 9~12시	2025년 5월 26일~6월 5일 주 4회 월~목요일 9~12시
가정방문 모니터링 종료 일시	2025년 5월 9일	2025년 6월 7일	2025년 6월 21일
참여 아동 월령 범위 & 평균 월령	17~54개월 (M=33.7개월)	14~48개월 (M=30.2개월)	11~48개월 (M=22.1개월)

이러한 연구 설계는 사례연구가 지닌 맥락 중심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 지역과 참여자의 구체적 환경을 토대로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되고, 어떠한 효과를 지향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PBN의 핵심 목표는 (1) 아동의 영양 상태 회복과 재발 예방, (2) 모자 상호작용 증진을 통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참여자 보호와 연구윤리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수행되었다. PBN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 자료 활용 범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동의를 확보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기관으로부터 본 연구의 자료 활용에 대한 사전 승인 및 협조를 공식적으로 받았으며,[1] 모든 자료는 익명화 절차를 거쳐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의 전 과정은 연구 윤리 기본 원칙(자발성, 비밀보장, 무해성)을 준수하였으며, 수집된 정보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현장 기반 실행연구로서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2. 프로그램 설계

PBN은 각 회기별로 4주간씩 진행되었으며, 2주간의 센터 기반 교육과 2주간의 가정 추적관리로 구성되었다.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PBN의 센터 기반 교육은 보호자 교육, 동반 자녀 놀이 활동, 그리고 보호자–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음악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다. 보호자 교육은 지역보건요원이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PBN을 개발한 JOY센터 소속 연구자로부터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이수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보건요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단순히 외부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르비다 지역 주민인 지역보건요원들의 경험과 관점을 토대로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곧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보호자 교육은 CHE(Community Health Education) 전략에서 활용되는 성인참여학습법(adult participatory learning methods)을 적용하였다(Green & Kreuter, 2005). 저자원 환경의 성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UNESCO, 2015). 이러한 한계는 인지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교육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습 기회가 제공될 경우 성인들은 갖고있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쉽게 이해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여준다(Knowles, 1980).

1) PBN의 실행기관(사단법인 더멋진세상)으로부터 논문 협의 및 논문 승인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였음.

〈표 2〉 PBN 단계별 회기구성 요약

단계	기간	주요 활동	담당 주체	세부 내용
센터 기반 교육	2주 (총 8회)	보호자 교육	지역 보건요원 중심	• 주제별 교육(위생, 질병 시 영양관리, 모유수유, 이유식 도입 등) • 영양 요리 실습(현지 식재료 활용: 바칼, 죤디 돌레 등) • 어머니 간 경험 공유 · 상호학습 촉진
		동반 자녀 놀이활동	지역 보건요원 중심	• 유치원 교사 경험 있는 지역보건요원이 제안한 놀이 우선 수용 • 놀이의 안전 및 발달 적합성 확인 • 지역의 전통놀이(둥글게 돌면서 노래 부르기, 신체의 일부분을 치면서 노래 부르기, 풍선이나 작은 공을 활용한 공놀이 등) 중심 활동 진행 •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격려함으로써, 놀이시간을 통해 사회성 · 정서 발달 지원
		보호자-자녀가 함께하는 음악놀이 활동[2]	지역 보건요원 중심	• 노래 · 율동 · 악기놀이(손유희, 신체놀이, 음율놀이 등) • 긍정적 상호작용 · 정서적 유대 강화-애착 형성 및 발달 자극
가정 방문 모니터링	2주	가정방문 지도 & 건강 모니터링	지역 보건요원+ 보건소	• 교육내용 실천 점검 및 지도 • 아동 건강 점검 • 주 1회 보건소 방문 원칙 안내(상완위둘레, 키, 몸무게 계측) • 위험 증상 시 보건소 연계 • 영양 보충식 · 구충제 · 비타민 제공

PBN, Programme Better Nutrition.

강사의 일방적 지식 전달을 지양하는 성인참여학습법은 '주제 제시-소그룹 토의-발표-지식 습득'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고 토론하며 상호 자극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Muscat et al., 2016; Smith et al., 2012). 나아가 동료 간 경험 공유와 상호 학습 촉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습득한 정보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Bhutta et al., 2013).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보호자 교육은 단순히 영양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동적 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질문과 토의를 통해 보호자 스스로 자녀의 영양과 건강에 관한 실천적 지식을 보다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하였다.

각 회차별 교육은 보호자의 일상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영양 및 위생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손 위생, 가정 위생 개선, 안전한 물 사용, 조리 위생, 모유수유 권장, 이유식 도입, 질병 발생 시 영양관리 등 아동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제를 선별하였으며, 이를 실천 중심의 반복 학습으로 운영하여 보호자의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교

2) 보호자-자녀가 함께하는 음악놀이 활동은 총 3회기 중, 2회기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필요성에 기인하여 2회기 5회차부터 개발되어 운영되었음.

육은 성인참여학습법으로 훈련받은 지역보건요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토론과 발표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실행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단편적 지식 전달을 넘어 보호자들로 하여금 아동 영양결핍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PBN을 외부 주도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주도 모델로 정착시키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었다.

회차별 보호자 교육의 주제 및 세부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센터기반교육에서는 주제별 교육과 병행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참여형 영양 조리 실습을

〈표 3〉 회차별 보호자 교육 주제 및 내용

회차	주제	내용
1	위생교육	• 손 씻기 위생: 배변 후, 아동 배설물 처리 후, 음식 조리・수유 전, 쓰레기 처리 후 반드시 실시하기. 비누와 깨끗한 물로 20초 이상 문질러 씻기 • 물・음식 위생: 끓인 물・안전한 물 사용하기. 식기・영아컵은 세척 후 건조 보관하기
2	위생실천 및 생활환경 개선	• 생활공간 청결: 아동 놀이・식사 공간의 동물・해충 배설물・먼지 제거함. 파리 차단 위해 덮개・그물 사용 • 화장실・배변: 개방 배변 금지함. 배변 후 즉시 손 씻기 • 음용수 저장: 뚜껑 있는 용기에 보관. 전용 국자 사용하기
3	합병증 없는 급성 중증 영양실조 관리	• 영양결핍 선별방법: 6~59개월 아동 상완위둘레 측정. 〈115 mm=중증 급성 영양결핍, 115≤125 mm=중등도 급성 영양결핍으로 분류 • 보건소와의 연계방법: 상완위둘레〈115 mm 또는 양측부종・식욕저하 시 외래치료 연계하여 치료용조제식 처방 및 주 1회 추적. 115≤125 mm는 중등도 관리로 연계할 것. 고열・지속 구토, 기면・경련, 양측부종, 식욕테스트 실패 시 즉시 의료기관 의뢰해야 할 것 • 영양실조 아동 가정에서의 관리: 치료용조제식은 물・우유와 혼합하지 않고 제조. 물은 별도로 충분히 제공됨
4	아픈 아동 관리	• 설사 질환 관리원칙: (1) 추가 수분 제공(깨끗한 물, 모유), (2) 아연 보충(2~59개월 대상), (3) 먹이기 지속(모유 포함), (4) 재내원 기준 숙지 • 탈수 위험 징후: 눈 함몰, 심한 갈증・음료 불가, 무기력・의식저하, 혈성 설사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시설로 의뢰해야 함 • 회복기 관리: 회복 후 약 2주간 평소보다 더 자주・조금 더 많이 먹일 것
5	영양실조의 위험 신호인식	• 상완위둘레(MUAC) 색띠 이해: 빨강=중증 급성 영양결핍, 노랑=위험・주의, 초록=정상으로 구분함. 빨강일 경우 즉시 치료 연계함 • 영양결핍 경고 징후 이해: 체중 정체・감소, 양측 발부종, 심한 마름, 식욕저하, 지속적 설사・발열, 무기력・의식 저하는 영양결핍의 위험 신호로 인식해야 함 • 가정에서의 영양실조 선별법: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상완위둘레 측정할 수 있음. 빨강・노랑일 경우 즉시 보건시설로 의뢰함
6	완전 모유수유 권장	• 초기 수유 방법: 출생 1시간 이내 첫 젖 물림 • 완전 모유수유의 중요성: 생후 6개월까지 물・차 포함 다른 액체 전혀 주지 않고 완전 모유수유 실시 • 지속 수유의 중요성: 6개월 이후 보충식과 병행하며 2세 이상까지 모유수유 지속 • 수유 방법: 자녀 요구에 따라 낮밤 수유함. 올바른 자세와 유착법 지도

〈표 3〉 계속

회차	주제	내용
7	임산부 및 수유부의 영양교육	• 식사 관리: 균형 잡힌 식사와 하루 한 끼 추가 섭취로 에너지 · 단백질 요구량 충족,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병행 • 영양 보충: 임신 중 철분(30~60 mg)과 엽산(400 μg) 매일 복용, 부작용 시 주 1회 간헐 복용 가능 • 정기 관리: 정기적인 산전관리 참여, 필요 시 구충제 · 칼슘 등 보충은 지역 보건소의 지침에 따를 것 • 금기 사항: 술과 담배는 철저히 금지
8	6-8개월 영유아의 이유식 교육	• 시작 시기: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 시작함(모유 계속 병행) • 빈도 · 양: 하루 2~3회 제공+모유수유 병행함. 2~3큰술부터 시작하여 ½컵(약 125 mL)까지 점진적으로 증량함 • 농도 조절: 너무 묽지 않게 조리하여 스푼에서 흐르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제공함 • 식단 구성: 매 끼니에 곡물, 콩 · 씨앗류, 채소 · 과일, 동물성 식품(계란 · 고기 · 생선 · 우유 등)을 다양하게 포함함 • 위생 및 반응적 먹이기(responsive feeding): 전용 그릇 사용함. 강요하지 않고 격려하며 자녀의 신호에 반응하여 먹임

MUAC, Mid-Upper Arm Circumference.

실시하였다. 조리 실습 역시 지역보건요원이 주도하여 일방적 강의나 시연 중심 전달을 지양하고, 보호자가 직접 조리 전 과정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재료는 쇠고기 · 생선 · 곡물 · 채소 등 현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식재로 제한하였으며,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아동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양질의 단백질, 철 · 아연 등 미량영양소, 에너지 밀도)를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가정 재현 가능 메뉴를 개발 ·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센터에서만 가능한 요리'가 아니라 가정에서 지속 적용 가능한 식단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초점을 두었다(Satav et al., 2024).

실습 과정은 조리 단계별 의사결정(재료 선별-손질-조리-배합-위생관리)에 교육 내용을 내재화하도록 구성하여, 강의로 전달되는 영양지식이 아닌 경험적 학습을 통한 체득이 이루어지게 했다. 참여자들은 동료와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조리법을 보정하였고, 완성된 음식을 자녀와 함께 섭취함으로써 반응적 급식과 모자 상호작용을 강화했다. 이러한 지역보건요원 주도 및 참여형 실습방식은 PBN의 보호자 교육이 지식 전달을 넘어 행동 변화와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자생적 · 지속가능한 영양 실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한편, 센터기반교육에 참여한 아동은 보호자들이 영양 및 양육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놀이교실로 이동하였다. 아동에게 제공된 발달적 놀이 시간은 PBN이 단순히 보호자의 지식 ·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영양실조 당사자인 아동이 신체적 회복과 더불어 전인적 발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도록 한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기존 영양교육 중심 프로그램과 달리, 아동의 발달적 권리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통합적 접근을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PBN은 영양 실조 관리의 단기적 효과(체중·상완위둘레·신장 개선)를 넘어, 아동의 발달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기존 프로그램과 뚜렷이 구별되는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한편, 2회기 센터 기반 교육에서는 1회기와 달리 저연령 자녀들이 다수 동반되면서 보호자와 즉각적인 분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분리불안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에 지역보건요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2회기 5회차부터는 보호자 교육에 앞서 보호자–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놀이 활동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원활한 분리를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보호자들로 하여금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프로그램에 활기차게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한 비언어적 소통의 매개로서 영아기·유아기 모자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교감을 심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한다. 실제로 선행연구는 정기적 음악 활동이 양육자의 스트레스 감소,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애착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지은, 2017; Vazquez-Diaz de Leon, 2024). 이는 음악놀이 활동이 통합된 PBN이 단순한 영양 회복 프로그램을 넘어 정서적 건강과 관계 중심의 양육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총체적 접근임을 시사한다.

특히, 센터 기반 교육 2회기의 5~8회차 및 3회기 전 회차에서 진행된 음악놀이 활동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 회기 '헬로송'과 '굿바이송'으로 시작과 종료를 구성하였다. 주요 활동에는 손유희, 까꿍놀이, 신체놀이와 율동, 리듬악기 연주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손유희와 까꿍놀이는 보호자와 아동 간의 신체 접촉과 눈맞춤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정서적 유대와 애착 형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음악·놀이 기반 활동은 아동의 주의집중과 언어·운동·사회성 발달을 촉진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양육 효능감과 정서적 안정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하였다.

센터 기반 교육이 종료된 후, 2주간의 가정 기반 추적관리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지역보건요원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가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적용하도록 지도·조언하였다. 또한 보건소와 연계하여 아동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진료·치료로 연계하였다. 가정방문 시에는 상완위둘레를 측정하여 영양 상태를 추적하였으며, 주 1회 보건소 내 영양센터를 방문하여 신체계측(상완위둘레, 몸무게, 신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발열·설사 등 위험 증상 발견 시 즉시 보건소에 의뢰하였다. 더불어 참여 아동에게는 영양 보충식[3], 구충제, 멀티비타민 등이 제공되었으며, 이는 지역 보건소의 관리 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WHO, 2023).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모리타니아에서 시행된 PBN의 실행 과정에서 수집된 현장 자료를 활용한 2차 분

3) 현지에서 생산된 영양강화 가루 Conndi Doole.

석 연구이다.

양적 자료는 각 기수별로 프로그램 시작 전(baseline), 2주 후(센터 기반 영양・양육교육 종료 시점), 그리고 추가 2주 후(가정방문 기반 모니터링 종료 시점)에 아동의 상완위둘레(mm), 체중(kg), 신장(cm)을 측정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단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지역보건요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센터 소속 연구자로부터 신체계측 절차와 기록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자료수집에 참여하였다. 측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신체계측은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각 회차별로 수집된 자료는 센터 소속 연구자에 의해 검토되었고, 명백한 오류나 이상값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재확인을 실시하였다. 양적 자료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값 비교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자료는 참여자 개별 인터뷰, 그룹 토의, 현장 관찰 메모, 프로그램 운영일지, 그리고 센터 소속 연구자 및 지역보건요원의 평가회의 기록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절차를 적용하여, 참여자의 진술과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지식 및 인식 변화, 행동 변화, 정서적 반응, 건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범주화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귀납적 코딩 방식을 사용하여, 초기 개념을 도출한 후 유사한 개념 간의 관계를 비교・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주요 주제와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2인의 연구진이 독립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코딩을 수행한 후, 주제 간 일치 여부를 비교하여 합의를 통해 최종 분석틀을 확정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원문에서 대표적 인용구를 제시하였으며, 참여자 식별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Ⅲ. 연구 결과

PBN은 총 3개 기수에 걸쳐 29가구(아동 30명, 어머니 29명; 쌍둥이 1쌍 포함)가 참여하였으며, 이 중 1가구가 중도에 이탈하여 최종적으로 28가구(아동 29명, 어머니 28명)가 수료하여 매우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2주간 매일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97%의 수료율을 유지하였으며, 가정방문 모니터링 또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음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참여 소감 사례이다.

> “지역보건요원의 방문이 실생활에서 조언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이의 체중과 키를 확인하는 법, 이상 징후를 살피는 법도 배웠습니다. 프로그램 팀이 정말 친절하고 잘 들어줬어요.” (3회기 참여 어머니, F)
>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이에요. 지금도 지역보건요원들이 계속 찾아와 주시고, 그게 큰 위안이 돼요.” (2회기 참여 어머니, I)

이 사례는 가정방문이 단순히 단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과 지지로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PBN이 2주간의 집중 개입을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확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을 시사한다.

1. 아동 건강 상태 변화

본 연구에서 실시된 PBN의 3개 기수(총 29명 참여아동)의 결과를 종합한 분석에서, 주요 영양지표인 상완위둘레와 체중 및 신장이 단기간(4주 간격) 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먼저 상완위둘레의 변화를 살펴보면, 1회기에서는 9명 중 8명(89%)의 아동에서 상완위둘레가 증가하거나 유지되었으며 평균 증가 폭은 약 3.6 mm였다. 일부 아동은 측정값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신장 증가와 체중 상승이 동시에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측정 환경이나 실습생 참여에 따른 오차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회기에서는 10명 전원에서 상완위둘레가 증가하였으며 평균 증가 폭은 약 3.6 mm였다. 3회기에서도 10명 전원이 상완위둘레 증가를 보였으며 평균 증가 폭은 약 4.5 mm였다. 표본 수가 제한된 파일럿 연구이므로 통계적 검정보다는 변화의 방향성과 일관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세 차례의 측정 모두에서 유사한 증가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점은 프로그램 참여가 단기간 내에도 긍정적인 영양 상태 개선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체중 변화를 살펴보면, 1회기에서는 9명 중 7명(78%)의 아동이 체중 증가를 보였으며 평균 증가량은 약 0.72 kg이었다. 2회기에서는 모든 아동이 체중이 증가하였고 평균 증가량은 약 0.72 kg이었으며, 3회기에서도 평균 0.73 kg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소규모 표본이지만, 모든 회기에서 일관된 체중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관찰 결과로 해석된다. 1회기에서 일부 아동의 체중 유지나 소폭 감소는 감기·설사 등 급성질환에 따른 일시적 정체로 이해되었다.

목표체중 도달여부를 살펴볼 때, 2회기에서는 10명 전원의 체중이 증가하였고 평균 증가량

〈표 4〉 회기별 주요 영양 지표

지표	1회기(n=9)	2회기(n=10)	3회기(n=10)
상완위둘레 변화	8명(89%) 증가 또는 유지/평균 +3.6 mm	10명(100%) 증가/ 평균 +3.6 mm	10명(100%) 증가/ 평균 +4.5 mm
체중 변화	7명(78%) 증가/평균 +0.72 kg(1명 유지, 1명 감소)	10명(100%) 증가/ 평균 +0.72 kg	10명(100%) 증가/ 평균 +0.73 kg
목표 체중 도달률	7명(78%)	7명(70%)	10명(100%)
신장 변화	평균 +0.0 cm	평균 +0.1 cm	평균 +0.4 cm

은 약 0.72 kg이었다. 이 중 7명(70%)은 목표 체중에 도달하거나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0.3~2.0 kg 정도 미달하였다. 3회기에서는 10명 전원에서 체중이 증가하였고 평균 증가 폭은 약 0.73 kg이었으며, 모든 아동이 목표 체중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장 변화는 단기간에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3회기의 경우 평균 0.4 cm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단기간 내 신장 성장 폭은 제한적이었으나 일부 아동에서 소폭의 개선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단기 개입의 특성상, 체중이나 상완위둘레 변화에 비해 신장 성장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경향적 결과로 해석된다.

질적 자료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는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단기간의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도 자녀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점에 대해 놀라움과 만족감을 표현하였으며 다음의 사례들로 확인할 수 있다.

> “딸의 체중이 늘고, 상완위둘레도 좋아졌어요. 이 변화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회기 참여 어머니, F)
> “제 아들 레민은 체중이 잘 늘지 않아 걱정이 많았어요. PBN 프로그램의 맞춤형 관리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잘 먹고 체중도 오르고 있어 안심이 됩니다.” (2회기 참여 어머니, A)
> “제 아기는 매우 허약했어요. 지역보건요원들이 죽에 영양을 더하는 방법과 바칼 요리법을 알려줬어요. 몇 주 만에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안내심 있게 도와주신 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회기 참여 어머니, C)

이와 같은 결과는 PBN이 아동의 단기적인 영양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긍정적 체감 효과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2. 보호자의 지식 · 행동 변화 및 심리사회적 반응

1) 보호자의 영양 및 건강 관련 지식의 확장

(1) 보호자의 영양결핍 징후 인지 및 영양상태 모니터링 능력 향상

PBN 프로그램 참여는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영양결핍의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참여 이전에는 자녀의 상태가 영양결핍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보호자들도 있었으나, 프로그램 이후에는 아동의 허약 신호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성장 과정을 점검하는 법을 배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 프로그램 전에는 제 아이가 영양실조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파서 보건소에 검진을 갔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권유받았습니다. 원인과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바칼'을 조리하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회기 참여 어머니, A)
"영양실조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아이의 허약 신호를 인식하고 영양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1회기 참여 어머니, B)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영양실조의 징후를 알아채는 법도 몰랐어요. 이제는 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되었죠." (2회기 참여 어머니, B)

이러한 사례들은 PBN이 보호자들의 영양결핍 조기 인지 능력과 아동 성장 모니터링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보호자의 균형 잡힌 식단 구성에 대한 이해 증진

PBN 프로그램은 보호자들이 자녀들의 균형 잡힌 식단 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주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적합한 식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센터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정에서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예전에는 아이 식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먹는 것을 함께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이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알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영양죽을 만들어 줄 겁니다." (1회기 참여 어머니, D)

또한 센터 교육에서 병행된 현지 식재료 활용 요리 실습은 보호자들로 하여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통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리 지식을 터득하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직접적인 실천 가능성을 높여주었을 뿐 아니라, 자녀 영양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을 자연스럽게 개선되도록 하였다. 다음의 사례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쁜 영양 상태는 좋은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법을 배운 것이 좋았습니다." (3회기 참여 어머니, H)
"아이를 위한 식단을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회기 참여 어머니, H)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적은 자원으로도 아이를 더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요리 시연을 보며 우리가 가진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2회기 참여 어머니, E)

(3) 모유수유 및 모자(母子) 영양에 대한 지식 확대

PBN 참여 후 보호자들의 모유수유와 산모 영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산모의 식단이 태아와 영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강화하였다. 한 임산부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엄마의 식단이 아기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임산부 영양 교육 덕분에 이제부터라도 제 식단도 신경 써서 둘째는 건강하게 출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회기 참여 어머니, C)

또 다른 보호자는 완전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과거 경험을 반성하였다.

> "모유 수유만으로도 생후 6개월까지 충분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일찍 분유를 줬던 것을 후회하고, 다음 아이부터는 제대로 실천할 겁니다." (1회기 참여 어머니, E)

이처럼 보호자들은 임신부 및 수유부 영양의 중요성과 함께 생후 6개월까지의 완전 모유수유 권장 지식을 습득하였다. 일부는 이전의 잘못된 수유 경험을 되돌아보며 향후 올바른 실천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한 어머니는 교육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교육 덕분에 수유 중인 여성의 영양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것이 아이 건강에 왜 중요한지도 이해했습니다." (3회기 참여 어머니, E)

이러한 진술들은 PBN이 보호자들의 모자(母子) 영양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보호자의 영양 및 건강 관련 행동 개선

보호자들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행동 변화를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가정에서 준비하는 실천이었다. 다음의 사례들은 PBN 교육에 참여한 보호자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가정에서 매일 자녀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 "이 프로그램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집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더 영양이 있는 음식을 요리하도록 노력하겠어요." (1회기 참여 어머니, I)
>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적은 자원으로도 아이를 더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요리 시연을 보며 우리가 가진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2회기 참여 어머니, E)

한편,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가정 내 위생 실천에 대한 교육 및 가정방문을 통한 지속적 관리로 가정 내 위생 실천도 개선되었다. 참여자들은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자녀의 위생을 챙기는 노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질병 중 위생과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들이 아플 때에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배웠고,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3회기 참여 어머니, G)
"음식 도입 방법과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조언 덕분에 가정 내 습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2회기 참여 어머니, B)

위의 사례들은 PBN을 통한 교육과 사후 관리 지원이 보호자들로 하여금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갖추고 자녀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필요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나타낸다.

3) 보호자의 심리적, 사회적 반응의 변화

(1) 양육 자신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의 증진

PBN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아동의 건강이 개선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동시에 정서적 안도감과 만족감을 얻었다. 특히 아이의 체중과 신체 발달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한 경험은 보호자들에게 양육 효능감을 높여주었고, 앞으로도 아이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희망과 동기부여로 이어졌다.

"영양실조인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정말 낙담했어요. 하지만 PBN 프로그램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2회기 참여 어머니, A)
"딸의 체중이 늘고, 상완위둘레도 좋아졌어요. 이 변화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전엔 영양실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2회기 참여 어머니, F)
"아이들을 잘 돌보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3회기 참여 어머니, J)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요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보호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보호자들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이에요. 지금도 지역 요원들이 계속 찾아와 주시고, 그게 큰 위안이 돼요." (2회기 참여 어머니, I)

(2) 보호자와 자녀 사이 관계의 질(애착) 개선

센터기반교육 진행과정에서 아동의 분리불안으로 보호자와 즉각적인 분리가 원활치 않은 상황 해결을 위해 포함된 보호자-자녀 동반 음악놀이 활동(2회기 5회차부터 3회기)은 참여 어머니들에게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을 강화시켜주었다. 이에 대해 어머니들은 반복적으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특히 음악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보호자-자녀 간 관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아이들과 함께한 음악 놀이가 정말 즐거웠어요. 그 시간은 아이와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었고, 애착관계가 아이 건강에 음식만큼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3회기 참여 어머니, D)
> "특히 아이와 함께한 음악 놀이가 좋았는데, 우리 사이의 유대감도 깊어졌어요." (2회기 참여 어머니, D)

위의 사례들은 음악놀이 경험이 어머니로 하여금 애착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음악놀이 활동 시간이 보호자-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PBN에서 실시한 영양교육과 병행된 음악놀이 활동이 보호자의 심리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아동 발달의 핵심 보호 요인인 안정적 애착 관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들은 PBN이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회복과 자신감, 그리고 희망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감과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보호자들은 지역사회 내 다른 어머니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권유할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실시된 PBN은 모리타니아 다르비다 지역의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개입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영양 상태, 보호자의 영양 지식과 행동,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상완위둘레와 체중의 개선은 본 프로그램이 단기적 영양 회복을 촉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일부 보호자들이 "몇 주 만에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진술한 사례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를 넘어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으로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특히 3회기에서 참여 아동 대부분이 목표 체중에 도달한 것으로 관찰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소개한 PBN이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관리의 공백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보여준다(Dalglish et al., 2020). 다만, 이러한 변화는 단기 개입 후의 관찰에 기반한 것이므로,

그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PBN 개입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보호자들의 영양 관련 인식과 행동에서 관찰된 개선 경향이었다. 참여 이전에는 아동의 영양결핍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보호자들이 개입 후에는 영양결핍의 신호를 인식하고 성장 과정을 점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전에는 아이가 영양결핍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체중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진술은, 교육을 통해 보호자가 아동 건강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 내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WHO(2020)의 권고 방향과도 맥락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일부 보호자들은 모유수유와 모자 영양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만으로도 6개월까지 충분하다", "엄마의 식단이 아기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교육 경험이 양육 관행에 대한 재고를 유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PBN은 강의식 일방 전달이 아니라 토론과 실습을 결합한 참여형 학습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보호자들이 습득한 지식을 가정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부 보호자들이 "집에서도 매일 실천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이러한 학습 경험이 지식의 단기적 습득을 넘어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Bhutta et al., 2013). 이러한 경향은 파키스탄에서 수행된 영양·양육 통합 개입의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Yousafzai et al., 2014)와도 맥락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CHE 전략에 기반한 성인 참여학습 접근은 보호자들의 학습 참여와 실천 의지를 촉진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호자들은 "아이의 연령에 맞는 음식을 따로 준비하게 되었다", "아이의 영양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음식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등과 같이 구체적 실천 방안을 스스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요리 실습을 하며 가진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진술은, 학습 과정에서 지식이 단순히 주입된 것이 아니라 참여와 경험을 통해 재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CHE 접근방식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할 잠재력을 지님을 보여준다.

또한 "프로그램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고, 성장 곡선을 스스로 점검하고 있다.", "아이의 건강에 음식만큼이나 애착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와 같은 진술은, 참여형 학습이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 건강 관리의 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응답은 보호자가 단순한 수혜자에서 학습자이자 실행 주체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는 성인 참여학습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Muscat et al., 2016; Smith et al., 2012)와도 맥락적으로 부합한다.

결과적으로 CHE의 전달방식인 성인참여학습 접근은 (1) 가정 내 실천으로의 확산, (2) 행동변화의 지속 가능성, (3) 참여자의 주체성 강화 등 다층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사회 기반 영양·보건 프로그램이 외부 주도형 개입에서 주민 주도적 모델로 전환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하며, 프로그램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보호자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보호자들은 자녀의 건강 개선을 경험하며 양육 효능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거나 강화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영양결핍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보호자가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재인식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영양 실천이 보호자의 주체적 태도와 심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Rahman et al., 2013; Seguin-Fowler et al., 2021)와도 맥락적으로 부합한다.

한편, 2회기 후반부(5~8회차)와 3회기 전체 회차에서 도입된 보호자–자녀 음악놀이 활동은 아동 발달의 심리사회적 차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호자들이 "음악놀이가 음식만큼 아이 건강에 중요하다"고 진술한 것은, 정서적 교감이 영양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 변화를 시사한다. 실제로 음악과 놀이 자극이 아동–보호자 간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하여 애착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Gerry et al., 2012; Malloch & Trevarthen, 2009)와도 맥락적으로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눈맞춤・신체 접촉・웃음을 통한 상호작용은 보호자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는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영양 실천의 지속성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로 해석된다.

특히, 3회기에서 신체계측 결과 모든 아동이 2주 만에 목표 체중에 도달한 것은, 영양 개입과 심리사회적 개입의 통합이 상호보완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영양과 발달 자극의 결합이 아동 발달 잠재력 증진의 핵심 요인임을 제시한 선행연구(Grantham-McGregor et al., 2007; Walker et al., 2011)와도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며, 현장 수준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Beukes et al., 2025; Dulal et al., 2023; Escher et al., 2024).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양 개입과 보호자–자녀 음악놀이를 통한 심리사회적 개입의 통합이 보호자와 아동 모두의 역량 강화와 행동 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BN을 다르비다 전 지역으로 확대할 때에는 센터 기반 교육에 음악놀이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며, 이는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아동 개입 모델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구성 요소로 논의될 수 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은 주민 주도적 구조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지역보건요원이 교육과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보호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실행 주체로 참여한 점은 개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보건요원의 정기 방문이 큰 위안이 된다"는 보호자의 진술은, 개입이 외부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유감과 책임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주민참여형 모델이 문화적 적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임을 제시한

Ranisavljev et al.(2025)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적으로 부합한다.

특히 본 연구의 PBN은 외부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단순히 이전·전달한 것이 아니라, 지역 보건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며 현지 문화와 가치관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가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주체로 참여하도록 이끌었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율과 실행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보건요원들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예컨대, 한 지역보건요원은 "첫 번째 세션이 매우 의미 있었고,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에 자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또 다른 지역보건요원은 "이번 회기에서 아동 명단 관리가 제 역할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대상자 선정에서도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역보건요원들이 단순한 보조자 역할을 넘어 책임 있는 참여 주체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요리 실습을 준비하면서 엄마들이 영양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역보건요원으로서 교육받고 활동하면서 저 자신도 성장했다"는 진술은, 지역 구성원이 교육의 '수행자'이자 동시에 '학습자'로서 역량을 확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영양과 양육 개입을 보건 체계 내에 통합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WHO(2020)와 UNICEF(2019) 역시 영양–보육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일차 보건서비스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둘째, CHE 방식의 피교육자 참여형 교육과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가정 재현 가능 레시피의 보급은,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영양 개선을 촉진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지역보건요원의 훈련 및 감독 체계 강화와 지역 모임·또래 지지망의 제도화를 통해, 주민 주도형 개입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효과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의 검증이 요구된다. 본 파일럿의 PBN 1회기 운영에는 식자재 구입비, 지역보건요원 인건비, 수료 기념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한화 약 130만 원(약 940달러, 환율 1달러=1,400원 기준)[4]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JOY 센터 소속 연구자와 지역보건요원이 협력하여 총 3회기의 회기별 투입비용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PBN의 비용-효과율(Cost-Effectiveness Ratio, CER)은 총비용을 중등도 영양결핍 아동이 정상으로 복귀한 아동의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고, 아동 1인당 약 133달러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은 회기당 평균 9~10명의 아동이 참여하여 상완위둘레 및 체중이 유의하게 향상된 가운데, WHO 기준(상완위둘레≥12.5 cm 또는 체중/연령 z-score≥−2SD)에 따라 정상영양 범주로 회복된 이후 정상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의 비율(75%)[5]을 효과값으로 반영하여 계산

4) 평균적으로 식자재 구입비는 약 18만 원, 지역보건요원 인건비는 약 115만 원, 부대비용은 약 1만 6천 원으로, 총 한화 약 134만 6천 원이 소요되었다.

한 결과이다(Ahmed et al., 2023; Bhutta et al., 2013). 이러한 추정 결과는 WHO(2023) 및 Ahmed et al.(2023)이 제시한 저·중소득국가 영양개입의 국제 벤치마크 범위(63~306달러, 평균 100~200달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PBN이 제한된 자원 하에서 비용효율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 효과와 실제 운영비용을 통합한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하여, 예방접종·영양보충 등 타 공중보건 개입과의 비교를 통해 PBN의 경제적 효율성을 국제적 근거 수준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CHE 기반의 참여형 보호자 교육, 발달에 적합한 아동놀이 경험 제공, 보호자–자녀가 함께하는 음악놀이 활동을 통한 애착 강화, 그리고 주민 주도적 실행 구조가 결합될 때 중등도 급성 영양결핍 아동의 영양 상태와 발달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영양치료에 따른 한계를 넘어, 보호자의 행동 변화와 심리사회적 회복,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로서의 잠재력을 제시한다. 향후 제도화를 통해 본 모델이 확산된다면, 모리타니아와 유사한 맥락의 영양 결핍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다.

참고문헌

박지은. (2017). 치료적 음악활동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1), 89-113.

Ahmed, M., Muhoozi, G. K. M., Atukunda, P., Westerberg, A. C., Iversen, P. O., & Wangen, K. R. (2023). Cognitive development among children in a low-income setting: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a maternal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in rural Uganda. *PLOS ONE, 18*(8), e0290379.

Beukes, J., Alcock, S., Leal, M., Thompson, U., Draper, C. E., & Norris, S. A. (2025). Explor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terventions for building human capital in Sub-Saharan Africa: A scoping review.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51*(4), e70138.

Bhutta, Z. A., Das, J. K., Rizvi, A., Gaffey, M. F., Walker, N., Horton, S., Webb, P., Lartey, A., & Black, R. E. (2013). Evidence-based interventions for improvement of maternal and child nutrition: What can be done and at what cost? *The Lancet,*

5) 중등도 영양결핍 아동의 정상 복귀율을 추정하기 위해, PBN 프로그램 종료 이후 지역보건요원이 약 3개월간 참여 아동의 영양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결과, 약 75%의 아동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치는 WHO 기준에 따라 '정상 복귀 후 최소 3개월 이상 정상 상태가 지속된 아동'만을 유효한 효과값으로 포함하여, 재발을 방지한 실질적·보수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이다.

382(9890), 452-477.

Black, M. M., Walker, S. P., Fernald, L. C. H., Andersen, C. T., DiGirolamo, A. M., Lu, C., McCoy, D. C., Fink, G., Shawar, Y. R., Shiffman, J., Devercelli, A. E., Wodon, Q. T., Vargas-Barón, E., & Grantham-McGregor, S. (2017).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oming of age: Science through the life course. *The Lancet, 389*(10064), 77-90.

Dalglish, S. L., Seni Badou, M., Sirat, A., Abdullahi, O., Adalbert, M. F. E., Biotteau, M., Goldsmith, A., & Kozuki, N. (2020). Combined protocol for severe and moderate acute malnutrition in emergencies: Stakeholder perspectives in four countries. *Maternal & Child Nutrition, 16*(2), e12920.

Dulal, S., Saville, N. M., Merom, D., Giri, K., & Prost, A. (2023).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integrating health, nutrition and stimulation interventions for children under three years in Nepal's health system: A qualitative study. *PLOS Global Public Health, 3*(4), e0001398.

Engle, P. L., Black, M. M., Behrman, J. R., Cabral de Mello, M., Gertler, P. J., Kapiriri, L., Martorell, R., & Eming Young, M. (2007). Strategies to avoid the loss of developmental potential in more than 200 million children in the developing world. *The Lancet, 369*(9557), 229-242.

Escher, N. A., Andrade, G. C., Ghosh-Jerath, S., Millett, C., & Seferidi, P. (2024). The effect of nutrition-specific and nutrition-sensitive interventions on the double burden of malnutrition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Global Health, 12*(3), E419-E432.

Food Security Information Network (FSIN). (2025). Global network against food crises.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GRFC)*. Retrieved from https://doi.org/10.71958/wfp130664

Gerry, D., Unrau, A., & Trainor, L. J. (2012). Active music classes in infancy enhance musical, communicative and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Science, 15*(3), 398-407.

Grantham-McGregor, S., Cheung, Y. B., Cueto, S., Glewwe, P., Richter, L., & Strupp, B. (2007). Developmental potential in the first 5 years for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ancet, 369*(9555), 60-70.

Green, L. W., & Kreuter, M. W. (2005). *Health program planning: An educational and ecological approach* (4th ed.). New York, NY: McGraw-Hill.

Jeong, J., Pitchik, H. O., & Yousafzai, A. K. (2018). Stimulation interventions and

parenting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meta-analysis. *Pediatrics, 141*(4), e20173510.

Knowles, M. S.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Hoboken, NJ: Prentice Hall.

Malloch, S., & Trevarthen, C. (2009). *Communicative musicality: Exploring the basis of human companio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uscat, D. M., Smith, S., Dhillon, H. M., Morony, S., Davis, E. L., Luxford, K., Shepherd, H. L., Hayen, A., Comings, J., Nutbeam, D., & McCaffery, K. (2016). Incorporating health literacy in education for socially disadvantaged adults: An Australian feasibilit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5*(1), 84.

Rahman, A., Surkan, P. J., Cayetano, C. E., Rwagatare, P., & Dickson, K. E. (2013). Grand challenges: Integrating maternal mental health into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grammes. *PLOS Medicine, 10*(5), e1001442.

Ranisavljev, M., Kurniawan, A. L., Ferrero, E., Shinde, S., Zhao, S., Partap, U., Mkwanazi, N., Clarisse Dah, N., Agure, E., Berhane, H. Y., Neumann, C., Ogum Alangea, D., Liu, S., Ostojic, S. M., Fawzi, W. W., Walsh, F., & Bärnighausen, T. (2025). Community-based interventions addressing multiple forms of malnutrition among adolescent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scoping review. *Nutrition Journal, 24*(1), 69.

Satav, A. R., Dani, V. S., Pendharkar, J. S., Satav, K. A., Raje, D., Jain, D., Khirwadkar, S. S., & Simões, E. A. F. (2024). Locally prepared therapeutic food for treatment of severely underweight children in rural India: An interventional prospective controlled community-based study with long follow-up:—'SAMMAN' trial. *Nutrients, 16*(17), 2872.

Seguin-Fowler, R. A., Hanson, K. L., Jilcott Pitts, S. B., Kolodinsky, J., Sitaker, M., Ammerman, A. S., Marshall, G. A., Belarmino, E. H., Garner, J. A., & Wang, W. (2021).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plus nutrition education improves skills, self-efficacy, and eating behaviors among low-income caregivers but not their childre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8*(1), 112.

Smith, S. A., & Blumenthal, D. S. (2012). Community health workers support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ethics: Lessons learned along the research-to-practice-to-community continuum.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23*(4), 77-87.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London: Sage Pres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2019).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9: Children, food and nutrition: Growing well in a changing world. *UNICEF*. Retrieved from https://www.unicef.org/reports/state-of-worlds-child ren-2019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2015). *Education and nutrition: Learn to eat well*. Paris: UNESCO.

Vazquez-Diaz de Leon, V. (2024). The interactive role of music as a facilitator for mother–infant bonding in early motherhood. *Empirical Musicology Review, 19*(1), 41-67.

Walker, S. P., Wachs, T. D.,Grantham-McGregor, S., Black, M. M., Nelson, C. A., Huffman, S. L., Baker-Henningham, H., Chang, S. M., Hamadani, J. D., Lozoff, B., Meeks Gardner, J. M., Powell, C. A., Rahman, A., & Richter, L. (2011). Inequality in early childhoo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early child development. *The Lancet, 378*(9799), 1325-133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0).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WHO*.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infant-an-young-child-feeding

WHO. (2023). Guidelines on the economic evaluation of health interventions. *WHO*.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72224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London: SAGE Press.

Yousafzai, A. K., Obradović, J., Rasheed, M. A., Rizvi, A., Portilla, X. A., Tirado-Strayer, N., Siyal, S., & Memon, U. (2016). Effects of responsive stimulation and nutrition interventions on children's development and growth at age 4 years in a disadvantaged population in Pakistan: A longitudinal follow-up of a cluster-randomised factorial effectiveness trial. *The Lancet Global Health, 4*(8), E548-E558.

Yousafzai, A. K., Rasheed, M. A., Rizvi, A., Armstrong, R., & Bhutta, Z. A. (2014). Effect of integrated responsive stimulation and nutrition interventions in the Lady Health Worker programme in Pakistan on child development, growth, and health outcomes: A cluster-randomised factorial effectiveness trial. *The Lancet, 384*(9950), 1282-1293.

논문 접수일: 2025. 9.18.
수정논문 접수일: 2025.10.19.
게재 확정일: 2025.10.22.

A Community-Led Integrated Model for Moderate Acute Malnutrition Response in Dar El Beida, Mauritania: A Better Nutrition Programme Pilot Case Study*

Mikyung Cho**
Sunhee Chung***
Soojung Kim****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Better Nutrition Programme (BNP) pilot study led by community health workers in Darbeida, Mauritania, which examined the short-term outcomes for children with moderate acute malnutrition and their caregivers. Implemented between April and June 2025 and assessing three cohorts (29 households), the 4-week program combined center-based caregiver education, participatory cooking, and home visits. During the sessions, caregivers learned about hygiene, child nutrition, and responsive feeding, whereas children engaged in play and joint music activities designed to promote attachment. Anthropometric measurements (MUAC, weight, height) and qualitative data obtained from interviews and field logs were analyzed descriptively and thematically. The completion rate was 97%, and most children showed short-term improvements in MUAC (+3.6–4.5 mm) and weight (+0.72–0.73 kg). Caregivers showed better recognition of the signs of malnutrition, improved growth monitoring, and adoption of balanced feeding and hygiene practices. The playing of music and regular home visits appeared to strengthen emotional bonding, parenting efficacy, and sustained participation. Overall, the community-driven BNP, which integrated nutritional education, psychosocial support, and home visits, showed favorable short-term trends in nutritional and psychosocial outcomes. These findings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grating and scaling community-based nutrition programs within the primary health-care system.

Key words: Children with MAM, Integration, Community-Led, Sustainability, Programme Better Nutrition (PBN)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Better World (Project: Mauritania PBN, FY2025). We acknowledge Better World for financial, operational, and field support to the Mauritania PBN program. We would also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Mouhamedou Wague (nutritionist, for data collection and consultation), Ibrahima N'Diouck (coordinator, for local coordination), Country Director Jong-Gu Lee for administrative oversight, and to all members of the PBN team in Korea for their valuable support and collaboration.

** **Main author:** Project Manager, Mauritania Branch, Better World / mkjo707@gmail.com
*** **Co-author:** Certified CHE Instructor, CHE Korea / shkids0028@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 soojungkim@hnu.kr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5, 20(2), 115-141
https://doi.org/10.34225/jidc.2025.20.2.115
pISSN: 2093-212X, eISSN: 2671-9797

연구논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윤리적 개입 전략: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성찰적 실천[*,**]

남수연[***]

요 약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실무자는 가부장제, 부패, 족벌주의 등 전통 관행으로 인해 사업 목적 달성과 인권 개선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딜레마에 자주 직면한다. 이는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가 충돌하는 현장이다. 이러한 딜레마 해결을 위해 현재 학계에서 제시하는 '완화된 보편주의'는 규범적 합의에 그쳐 실무 현장의 복잡한 딜레마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정'에 대한 최근 학계의 관심을 반영하여 성찰적 실천가 접근을 통해 이론과 실행의 간극을 잇는 윤리적 경계 개입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도전 · 협상 · 존중' 구역을 기반으로 실무자 감정 기반 개입 사안 포착, 내부 개인 · 그룹 성찰, 권력 · 문화 매핑, 개입 설계 및 실행, 평가 · 환류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 성찰을 통해 실무자의 위치

[*] 본 연구는 2025년 성결대학교 교내 연구비를 통해 수행되었음.
[**] 본 논문은 2025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조교수 / skatndus@sungkyul.ac.kr

© Copyright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성의식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조한다. 결론에서 연구의 학문적, 정책적 기여 및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보편주의, 문화 상대주의, 개발윤리, 성찰적 실천가, 국제개발협력

Ⅰ. 서론

개발협력 현장에서 실무자들은 종종 특정 지역의 문화적 관행[1]이 보편 원칙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한다. 여성할례, 조혼,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과 발언권 제한 등은 인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제로 간주되지만 지역 내부에서는 전통, 종교,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Merry, 2006).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주체가 섣불리 개입을 시도할 경우 서구 중심 규범 기반의 문화 자율성 침해 혹은 문화 식민주의(cultural colonialism)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Abu-Lughod, 1998). 반면 개입을 유보하거나 침묵할 경우 인권 침해의 지속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윤리적 부담도 존재한다.

이러한 긴장은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 개선에 대해 점진적 접근 방식 취할 경우 취약한 개인 이익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메시지 전달할 수 있다. 반면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게 되면 사업 대상의 지역 내 소외를 초래하는 동시에 사업 지속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Bell & Carens, 2004; Bell & Coicaud, 2006). 이러한 긴장은 나아가 개입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귀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편성과 상대성 간 딜레마는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으로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역량의 강화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윤리적 긴장 관계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관련 실무 분야 및 학계의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개발 윤리와 같이 개입의 경계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보편적 인권 담론이나 문화 상대주의 간의 이분법을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논의 자체가 적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까지 발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무 영역에서도 현장 개입은 주로 경험적 관행에 의존할 뿐, 문화적 개입이 함의하는 의미, 내부 권력 구조, 역사적 불평등의 기원을 성찰하여 보편 원칙과 맥락적 조율 사이의 긴장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틀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맥락에서 문화 개입의 경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 전개 과정은 몇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모든 개입에서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충돌이

1) 본 연구에서 '개발 윤리'는 인간과 생태계의 번영을 위해 개인과 집단의 행위가 지향해야 할 글로벌한 규범적 기준으로, 특히 사회의 발전 경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권리 및 의무와 이익 및 위해 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도덕적 행위의 준거를 의미한다(Banks et al., 2023; Gasper & Truong, 2005: 374). '문화'는 보편주의와 충돌하면서 개발에 대한 장애 혹은 촉진 요인으로 기능하는 전통 관행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사용한다. '실무자' 혹은 '실천가'는 광범위하게는 지역사회개발 활동가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비정부 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 정의한다.

발생한다고 전제하지는 않는다. 즉, 개입이 시작되면서 협력국 주민들이 기존 문화적 선입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자율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유 의지가 발현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 목적 달성에 이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대립 상황 역시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본 연구는 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상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본 연구는 활동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활동가는 가치 갈등의 최전선에서 현지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윤리적 판단을 실천하고 문화적 맥락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개입 전략을 조율하는 중재자이자 실행자로 기능한다(Eyben,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활동가의 성찰적 개입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함으로써 개발협력 현장의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실천적 대응 가능성을 모색한다. 셋째, 본 연구는 실무자에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치 충돌과 감정, 위치성(positionality)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실무자는 가치중립적 전달자가 아니라 특정한 제도적, 문화적, 계급적 위치에 놓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복잡한 권력 관계, 문화적 규범, 조직적 기대 사이에서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따라서 실무자는 자신의 개입이 어떤 권력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성찰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실무자 내부에서의 감정적・인식적 갈등에서 출발하여 윤리적 개입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개발협력 실무자가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적 규범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 개입의 정당성과 한계를 판단할 것인가”이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긴장 관계를 분석하고 두 관점 간 절충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성찰적 실천가 접근이 이러한 절충 방안의 실천적 구현에서 지니는 이론적 함의와 방법론적 기여를 규명한다. 이후 실무에 적용 가능한 윤리적 개입의 판단 원칙과 절차적 기준을 체계화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실시된 우리나라 개발협력 기관의 농촌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절충

1. 보편주의 vs. 문화 상대주의

국제개발 현장에서 타문화에 대한 개입의 윤리적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직면하는 이론적 긴장은 보편주의(universalism)와 문화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의 갈등이다. 이 두 관점은 인권, 개발, 젠더, 종교 등 다양한 실천 영역에서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근본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정치체제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적 · 윤리적 원칙이 존재한다는 철학적 입장이다. 보편주의적 윤리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인권규약(1966), 인도주의 원칙(인도·중립·독립), 인도적 원조와 개발협력의 비(非)해악성 원칙(Do No Harm) 등으로 이어지며 국제개발과 인도주의 실천의 윤리적 최소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UN, 2025).

현재 국제개발 분야에서 제도적 표준으로 적용되는 주요한 보편 원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인권 기반 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이다. 이는 국제 인권법에 근거한 도덕적 의무론과 정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 개입의 규범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접근법의 확산은 전통적인 자선 기반 개발 모델에서 권리 기반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필요 기반(needs-based) 접근법이 개발 수혜자를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동적 대상으로 간주했다면, HRBA는 이들을 법적·도덕적 권리를 가진 능동적인 '권리 보유자'(rights-holders)로 재정의한다. 동시에 정부나 개발 기관은 단순한 원조 제공자가 아닌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명확한 '의무 이행자'(duty-bearers)로 규정되어 개발 관계를 자선적 시혜에서 법적·도덕적 의무로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 포용성, 평등, 참여, 책무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하는 HRBA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개발 분야에서 제도화되어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와 평가 기준을 단순한 산출물 중심에서 권리 실현과 역량 강화 중심으로 개발의 초점을 전환시켰다.

둘째, 의료 분야 *primum non nocere*(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에서 차용된 '해악 방지 원칙'은 개발 개입이 선행을 추구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의도하지 않은 상해나 고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방적 윤리를 구현한다. 이 원칙은 1990년대 Anderson(1999)이 폭력적 분쟁의 맥락에서 제공되는 국제 지원은 분쟁에 영향을 미치므로 분쟁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제안하였다. 해악 방지 원칙에는 두 가지 핵심 차원이 있다. 첫째는 해악 예방 차원이다. 이는 개발 개입이 기존의 갈등 구조, 사회적 불평등, 또는 환경적 취약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익 극대화 차원으로, 지역사회의 기존 역량과 자원을 식별하여 이를 강화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해악 방지가 부정적 영향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건설적인 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실무에 적용되면 해악방지 원칙은 분쟁 감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통합하는 분석적 도구로 기능하여, 특히 인권 침해나 폭력 노출과 같은 근본적 피해는 프로젝트의 선의적 의도나 잠재적 이익과 무관하게 용납될 수 없다는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복원력과 자립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셋째, 참여적 프레임워크는 민주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 원칙은 전통적인 개발 모델에서 '전문가'가 '수혜자'를 대신해 결정하는 권위주의적 또는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에 도전하여 지식과 자원을 통제하는 이들과 개발 개입의 영향을 받는 이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잡는다. 주요 국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UN(United Nations) 프로그램은 참여적 방법을 윤리적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면서 연대와 상호 존중의 윤리적 태도를 구현하고 있다.

세 가지 핵심 원칙 이외에도 다양한 보편적 윤리 원칙이 상호 중첩되는 요인을 기반으로 국제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공정성, 책무성, 투명성,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Leave No One Behind* 원칙은 사회적 포용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의 이론의 실무적 구현으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추구한다. 또한 최근에는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와 환경 통합 등 새로운 영역으로 보편적 윤리 원칙이 확장되고 있다.

2)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는 지역 고유의 문화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Franz Boas와 그의 제자들이 체계화한 문화적 상대주의 접근법은 20세기 초 인류학적 패러다임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문화의 고유성과 내재적 일관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분석틀을 제공하였다(Brown, 2008). 이 접근법은 문화의 구성 요소들이 통합적이고 일관된 전체로서 기능한다는 총체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문화는 위계적 비교나 외부의 기준에 의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해당 문화를 구성하는 내부 구성원들만이 그 문화적 특수성과 고유한 의미 체계를 적절히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화 상대주의는 보편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편 원칙 또한 초역사적·초문화적 기준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즉,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시되는 원칙들이 서구 중심 사회가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정립해 온 규범과 가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Abu-Lughod, 2002; Boas, 1966). 따라서 젠더 평등, 인권 옹호, 민주적 거버넌스와 같은 보편 규범이 특정 지역의 전통적 가치 체계와 충돌할 경우 이러한 개입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성을 지니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보편주의는 식민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비판도 초래하였다. 후기 식민주의 이론가들은 보편주의가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도구로 작동한다고 지적하였다(Said, 1978; Spivak, 2023). 특히 비서구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일방적, 억압적 관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교정의 대상으로 삼는 서구의 개입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 식민주의' 혹은 '문화 제국주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 상대주의는 외부 개입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내재적 권력 관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한계를 가진다. 공동체의 문화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상대주의적 입장은 문화적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현존하는 젠더 불평등, 계층적 지배, 권력 독점과 같은 내부 억압 구조를 방치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Banks et al., 2023). 예를 들어 여성할례나 조혼과 같은 관행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순응의 일부로 대체로 정당화되지만, 실제로는 남성을 포함한 특정 권력 집단 중심의 질서가 이를 유지시키는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권력자 집단이 고유의 문화를 앞세울 때 외부 실무자가 이에 도전하지 않고 단순히 존중의 이름으로 침묵하는 것은 현지의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 침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Zechenter,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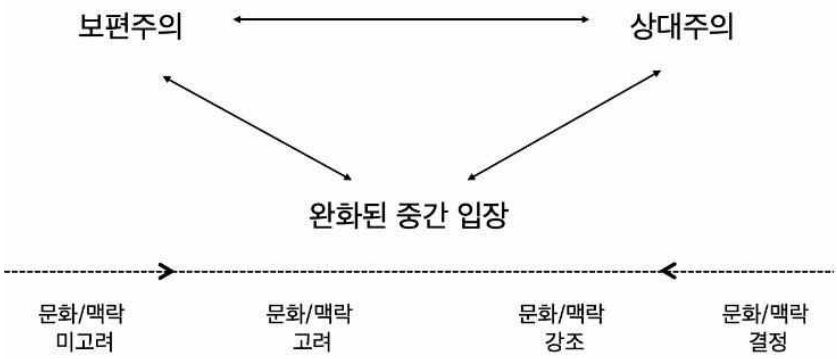
이에 개발학 분야에서는 '완화된 보편주의'가 대안적 접근으로 제시되고 있다(Agyare, 2024; Bukuluki, 2013; Healy, 2007; Moka-Mubelo, 2019). 이는 권리의 개념적 보편성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구체적 실현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현실과 권력 역학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력'(정필운 · 박선웅, 2019: 110)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과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법이다(Donnelly, 2013). 이에 있어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상대적 강조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적용은 시공간적 변형을 나타내게 된다(〈그림 1〉).

2.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절충 전략

1) 보편 원칙의 맥락 적용 전략

보편 원칙과 문화 특수성 간 긴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보편적 규범을 존중하면서도 현지 문화의 특수성을 조정 · 통합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보편원칙 위계 기반 조정 전략이다. Dolgoff et al.(2005: 65)이 제시한 윤리 원칙 위계는 국제개발 맥락에서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간의 긴장을 조정하는 전략적 기준으로 유

〈그림 1〉 윤리적 결정을 위한 보편주의-문화 상대주의의 연속선



출처: Healy(2007: 12).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위계는 생명 보호, 평등 및 불평등, 자율 및 자유, 최소 해악, 삶의 질, 프라이버시 및 비밀 보호, 진실성 및 정보 공개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배치하고 있다. 생명 관련한 절대적 권리를 최상위에 두고 상대적으로 해석 가능한 윤리 원칙들을 하위 층위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도 윤리적 판단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보편 원칙에 접근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윤리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문화 상대주의가 자칫 정당화할 수 있는 구조적 폭력을 예방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편 원칙을 현지 용어와 의미로 번역하는 과정인 규범적 현지화 전략이다. 해당 과정을 Merry(2006)는 "vernacularization"으로 개념화하면서,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글로벌과 로컬 규범의 지속적인 협상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인권, 페미니스트 등 보편원칙은 국가 엘리트와 중간층 사회 활동가들에 의해 수용되고 NGO와 사회 운동의 중개자 역할을 통해 수용과 번역의 과정을 통해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Zwart(2012) 역시 'receptor approach' 개념을 통해 지역의 가치, 종교, 위계 등 공식, 비공식적 제도를 활용하여 보편 원칙을 적용할 경우 후자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Maguchu(2020)는 아프리카의 인간성 철학 우분투(*ubuntu*)를 인권 기반 프레임워크 내에서 반부패 및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절충 방안은 Renteln(2013)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지역 문화와 보편 원칙에 공통되는 가치를 도출하여 지역의 문화를 통해 보편 원칙을 실현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셋째는 제도적 중개 전략이다. 이는 보편적 원칙이나 규범을 현지에 적용할 때 노인, 종교 지도자, 부족장, 여성 네트워크 등 지역 사회 내에서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이들이 '관문(gatekeeper)'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전략은 외부 개입이 현지 맥락에 맞지 않거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특히 국제 개입 후에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사업 효과의 지속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insider mediation' 접근을 적용한다(Bashir, 2023; 예: UNDP, 2014). 이 전략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전통적·종교적 중재 메커니즘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협력을 통해 보편 원칙(예: 인권, 성평등 등)을 현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대체 전략은 문제 관습이 지역에서 수행해 온 사회적·경제적·상징적 기능을 규명한 뒤 동일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제도를 공동체 주도로 설계·정착시키는 방식이다. 여성 할례(FGM) 근절을 위한 대체 통과의례(Alternative Rites of Passage, ARP)와 시술자 생계 전환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Muhula et al., 2021; Spotlight Initiative). 이러한 프로그램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서도(Shell-Duncan, 2008) 대체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는 의례의 상징성을 살리되 해악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시술자의 생계 기반을 대체하였으며, 지역 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화 규범 자

체를 재구성하였기 때문이다.

2) 보편원칙의 맥락적 적용을 위한 윤리 모델 사례

주요 국제개발기관은 '보편 원칙'과 '문화적 맥락 존중' 사이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다층적 적용 전략을 개발하여 왔다. 본 절에서는 UNDP HRBA와 Grameen Foundation의 Do No Harm Framework & Safeguarding Plan을 실천적 판단 모델의 사례로 검토한다.

UNDP의 인권 기반 접근(HRBA)은 개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을 의무 기준으로 채택하여 사업 개입의 윤리적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NDP, 2025). 이 접근은 2003년 UN 공동이해(UN, 2003) 이후 개발의 전 과정을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하는 전략적 틀로 도입되었다. HRBA는 인간의 존엄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의무 관계를 핵심 철학으로 삼는다. 즉 개발을 '권리 실현 과정'으로 재정의하고 수혜자를 권리보유자, 정부・개발기관을 책임의무자로 규범화한다. 구체적 실행 과정은 먼저 3단계 인과분석을 통해 문제의 직접적・구조적・심층적 원인을 규명한 후, 각 행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역할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역량 격차를 진단해 보완책을 설계하는 역량분석을 의무화하고, 정책・재정・훈련 계획을 설계하도록 한다. 사업 전 주기에는 PLANET(Participation, Link, Accountability, Non-discrimination, Empowerment, Transparency)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참여, 인권 지표와의 연계, 책임 의무자의 책무성, 비차별 및 평등, 투명성이 전 주기에 내재화 하도록 하였다.

소액대출 기관인 Grameen Foundation의 '해악을 끼치지 않는 프레임워크 및 보호 계획'(The Grameen Do No Harm Framework & Safeguarding Plan)은 재단과 파트너 기관이 지원하는 여성과 가정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면서도 해악을 끼치지 않기 위해 프로젝트, 제품, 서비스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종료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회 내 행위 및 성별 관념을 형성하는 사회적 규범에 주목하면서 특히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사업 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알파벳 'A'로 시작하는 Do No Harm의 10가지 평가 분야인 actors, awareness, availability, agents, additional services, appropriateness, adoption, agency, assessment에 대해 폭력, 성폭력(GBV), 부상, 영구 장애, 사망을 초래하여 프로젝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심각', 갈등 증가, 참여 제한, 만족도 감소,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중간', 소수의 수혜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쉽게 완화 가능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경미'로 위험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 제거, 위험 최소화, 대체의 순서로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 사업 실행자가 사업 제안 단계부터 프로젝트 종료 단계까지 이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새

로운 정보나 경험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설계되었다.

두 사례는 윤리적 개입에서 보편 원칙과 맥락적 조율 사이의 긴장 해결이 절차적 체계화와 정교한 위험 평가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먼저 두 접근법 모두 시간적 경과에 따른 단계별 절차를 핵심 운용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UNDP HRBA는 사업 설계 단계의 인과-역할-역량 분석을 거쳐 전 주기에 걸친 PLANET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선형적 절차를 통해 보편 원칙의 체계적 내재화를 도모한다. Grameen Foundation은 사업 제안부터 종료까지 10-A 매트릭스를 지속 적용하되 새로운 정보와 경험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순환적 절차를 통해 맥락적 적응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절차적 차이는 각각의 위험 평가 방식과 직결된다. HRBA의 구조적 변화 지향은 권리 침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는 포괄적 접근을 취하지만 단일한 인권 기준 적용으로 인해 문화적 맥락별 위험 차별화에 한계를 보이는 반면, Grameen Foundation의 심각-중간-경미 등급화 시스템은 젠더 관련 위험을 분야별로 정교하게 식별하고, 제거-완화-대체의 우선순위 체계를 통해 맥락에 특화된 점진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제도적 정합성과 윤리적 일관성을 통해 장기적 구조 변화를 추진하지만 즉시적 현장 적응에 제약을 받으며, 후자는 현실적 위험 관리와 즉시적 효과성을 확보하지만 거버넌스 체계와 표준화된 평가 기준의 부족으로 제도적 지속성에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윤리적 개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편 원칙의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간적 절차의 유연성과 분야별 차별화된 위험 평가를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절충 절차의 구조화 필요성

국제개발 윤리 담론에서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는 실천적 차원에서 해결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보편주의적 접근은 인권과 개발 목표의 초문화적 타당성을 전제로 하여 규범적 일관성을 추구하지만, 문화적 특수성을 외재적 변수로 처리함으로써 현지 사회의 내재적 논리와 권력 구조를 간과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문화 상대주의적 접근은 각 문화권의 고유한 가치 체계를 존중하지만 문화 내부의 불평등과 억압적 구조를 정당화할 위험성을 내포시킴으로써 개발 개입의 규범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한다. 이러한 대립은 학술적 정교화에는 기여하지만 실제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윤리 딜레마에 대한 실천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주요 국제개발기구들이 도입한 절충적 문화 적응 전략 역시 체계적 실행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즉 이들 전략은 보편적 개발 목표와 문화적 특수성 간의 조율을 표방하지만 문화적 적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판단의 준거와 절차를 명시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장 실무에서는 사업 설계,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지침, 측정 지표, 의사결정 프로토콜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실천가의 경험적 판단과 직관적 대응에 의존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은 '맥락적 해석'이라는 이론적 지향을 공허한 수사로 전락시키면서 오히려 현장의 복잡한 권력 역학을 재현하거나 왜곡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의 중간 지점에서 양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면서도 절차를 명시적으로 체계화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매개 개념이 필요하다.

Ⅲ.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성찰적 실천가

1. 성찰적 실천가

성찰적 실천가(the reflective practitioner) 개념은 MIT 도시계획 및 교육 분야 교수였던 도널드 쇤(Schön, 1983)이 전문성과 경험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했다. 그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각 분야 전문가가 선형적 지식이나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는 대신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뒤따르는 행동에 적용하는 성찰적 사고를 통해 전문가적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성찰적 사고는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먼저 '행동 중 성찰'(reflection-in-action)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행동 중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실무자는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내재되어 있던 이해와 특정 행동 방식을 선택하게 된 감정,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처음 구조화한 방식을 반추한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재구조화하여 미래의 행동에 반영한다. 이와 달리 '행동에 대한 성찰'(reflection-on-action)은 사후에 실무자가 자신의 행동을 결과의 맥락에서 다시 탐구하는 과정이다. 이는 완료된 행동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무자가 자신의 의사결정 논리, 적용된 지식체계, 그리고 행동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메타인지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개선된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학습 과정으로 기능한다.

성찰적 실천의 개념은 주로 비판이론과 조직학습 이론의 영향을 받아 단순한 경험 반성의 차원을 넘어 권력과 구조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실천의 방향성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다. 우선, Argyris와 Schön이 제시한 이중고리 학습(double-loop learning) 개념은 단순히 전략이나 행동을 조정하는 1차적 학습을 넘어 행위를 지배하는 근본적 가치와 전제 자체를 의심하고 재구성하는 2차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Argyris & Schön, 1974). 최근에는 비판적 성찰 혹은 성찰성의 개념을 통해 실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가치, 권력 위치, 문화적 전제가 실천적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의식적으로 탐색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강조하고 있다(Fook, 2015; Thompson & Pascal, 2012).

2.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용

국제개발 관련 분야에서 성찰적 실천가 연구는 많지 않지만 크게 권력 역학 재구성과 맥락적 복잡성 적응, 실천 방안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권력 역학 재구성 연구는 비판적 성찰이 실천가의 특권적 지위를 '불안정화'하며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 연구는 개발 실무자의 위치성과 동기, 혹은 특권과 편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가부장적 관행을 줄이고 협력적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재구성에 기여하여 현지 협력자들과의 평등하고 효과적 협업으로 이어짐을 입증하였다(Heron, 2005). 구체적으로 Eyben(2014)은 실천가들의 자기 검토를 통해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Chambers & Pettit(2013)은 기부자를 대상으로 권력 전환에 대한 내부적 성찰을 촉구하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더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맥락적 복잡성에 대한 적응 연구는 성찰성이 맥락 특유의 복잡성에 적응하는 핵심 학습 메커니즘으로 기능함을 보이고 있다. 개입에 대한 청사진이 통제 불가능한 현실과 충돌할 경우 지속적 학습・조정이 필요한데(Chambers, 2017), 성찰은 그 동력을 제공한다. 성찰적 실천가는 성찰을 통해 보편 규범과 지역 실천을 동적으로 조정한다. 즉, *reflection-in/on-action*, *double-loop learning* 등의 순환 학습 모델을 통해 실무자는 권력(내가 이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가?), 정의(누구의 이익이 충족되고 있는가?), 결과(잠재적 해악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인권・참여・무해 같은 보편 원칙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서 출발하되, "어떻게" 실현할지는 현장의 문화・권력 맥락 속에서 재해석한다.

성찰적 실천가 개념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은 개인/조직의 수직적 차원과 내부/외부의 수평적 차원이 교차하는 매트릭스 구조로 체계화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성찰에서 내부적 절차는 실천가의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성찰 기법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한 성찰 일지 작성, 자기 평가 도구 활용 등의 기법을 통해 실무자는 일상적 실천 경험을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서 전문적 지식 생산과 윤리적 민감성 개발의 원천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외부적 절차는 von Seggern et al.(2023)이 분석한 자기 민족지를 동료들과 동반 기록한 사례나 캐나다 사회복지사들이 가나・니카라과 현지 전문가와의 개방적 성찰 대화를 통해 문화적 편향을 교정한 사례(Kreitzer & Wilson, 2010) 등과 같이 동료 지원 그룹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편 조직 차원의 내부적 성찰은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 루프 기반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개별 실천가의 성찰적 통찰을 조직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책과 실천 방식의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러한 협력적 성찰은 안전한 대화 공간에서 개인의 가정과 편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Thompson & Pascal, 2012), 조직 내 권력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촉진하여 조직 자체의 윤리성과 실천적 효과성을 지속

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내재화한다. 조직 차원의 외부적 성찰은 조직의 관행, 문화, 권력 구조를 직시하도록 돕는다(Strumm, 2020).

Ⅳ. 윤리적 개입 모델

1. 모델 구조

본 장에서는 보편 원칙과 맥락적 조율 사이의 윤리 딜레마에 대한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델로 제시한다. 해당 모델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윤리적 딜레마의 심각도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 수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Healy(2007)의 조건부 보편주의(conditional universalism)를 이론적 토대로 하여 Grameen Foundation의 여성 대상 위험 평가 3등급 체계(심각 · 중간 · 경미)와 Dolgoff et al.(2005: 65)의 7단계 윤리 원칙 위계를 방법론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딜레마는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 보편적 규범과 문화적 관행이 상충하지만 상호 조정의 여지가 존재하는 사안,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위계화된다. 이에 따라 외부 행위자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이 요구되는 '도전(challenge)' 영역, 이해관계자 간 상호 조정과 협의가 핵심이 되는 '협상(negotiation)' 영역, 그리고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현지 문화와 관행을 존중하는 '존중(respect)' 영역으로 위계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삼분위 체계는 '가치의 절대적 우선 → 조건부 조정 → 문화적 자율'이라는 연속적 스펙트럼을 활동가의 의사결정 도구로 체계화함으로써 보편주의적 책임과 문화적 존중 사이의 실천적 균형점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분석적 프레임워크로 작동한다.

두 번째 구조적 특성은 성찰적 실천가의 윤리적 개입이 순차적 절차를 통해 체계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적 판단이 고정된 규범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문제 인식부터 개입과 조정에 이르는 시간적-행위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다는 성찰 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Schön(1983)은 전문가가 '행동 중 성찰(reflection-in-action)'과 '행동에 대한 성찰(reflection-on-action)'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실천적 지식을 구성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접근은 UNDP HRBA를 포함한 국제개발 분야의 주요 개입 모델들이 단계적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여기서 절차적 구조는 순환적 체계로 설계된다. Argyris & Schön(1974)의 단일고리 학습(single-loop learning)과 이중고리 학습(double-loop learning) 개념에 따르면, 초기 개입 조치가 예상된 결과와 상이할 경우 실천가는 다음 순환 과정에서 행위를 지배하는 가정과 가치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모델은 각 단계에서 도출된 학습과 피드백이 후속 사이클의 설계 근거로 환류되는 순환적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지속적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맥락에 따라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윤리적 개입 모델의 세 번째 특징은 Schön(1983)이 설명했듯 각 단계에서 성찰이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천가가 도덕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가정과 전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에 대한 해석적 분석을 병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실천가의 판단이 매 단계마다 상호작용과 응답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교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각 개입 단계에서 실천가는 자신의 문화적 편견과 권력적 위치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동시에 현지 맥락으로부터 발생하는 피드백을 해석하고 통합하는 이중적 성찰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윤리적 개입은 고정된 절차적 적용이 아닌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과정으로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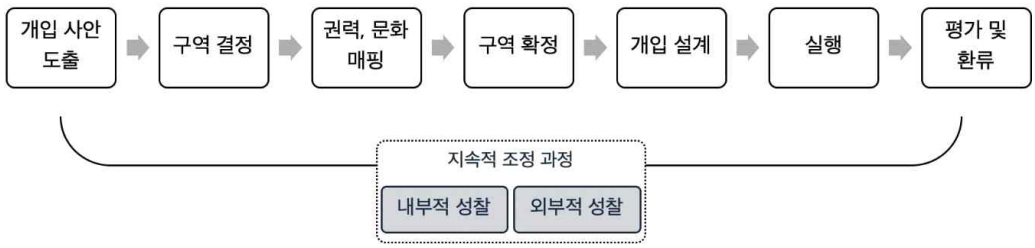
2. 윤리적 개입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내부 성찰을 통한 개입사안 도출 – 구역 설정 – 권력·문화 매핑 – 개입 설계 – 실행 – 평가 및 환류'라는 선형 구조를 취하되, 전 과정에 지속적 조정 루프를 탑재함으로써 고정적 처방을 피하고 맥락 변화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그림 2〉).

'내부 성찰을 통한 개입사안 도출' 단계는 성찰적 실천가 모델(Schön, 1983)을 조직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긴장을 자각하여 절충하고 이 과정에서 개발 실무자의 주관적 판단 과정에 내재된 권력 역학과 문화적 편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성찰적 진단 과정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실무자가 자기 민족지학적(auto-ethnographic) 접근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문화적 배경, 전문적 정체성, 그리고 제도적 위치가 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탐색한다. 이를 통해 실무자가 일일 단위로 감정로그를 작성하여 현장의 미세한 감정 변동과 권력 신호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주간 팀 감정 공유·분석 세션을 통해 권력의 작용을 통한 보편 원칙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입 이슈를 도출한다.

'구역 설정' 단계에서는 도전·협상·존중 구역의 삼원적 구분을 통해 보편적 원칙[2]과 문화적 상대성 간 긴장 관계를 유형화하고 각 구역별로 차별화된 개입 전략을 마련한다. '도전 구

〈그림 2〉 윤리적 개입 프레임워크 적용 단계



2) 인권 원칙 및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한 기준 설정은 Global Protection Cluster(2024) 참고.

역'은 지역의 내부적 동맹을 구축하고 외부 담론을 결합하여 감정 기반의 개입 정당화 서사를 마련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협상 구역'은 대화와 점진적 변화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가능하며, '존중 구역'은 개입보다는 이해와 존중이 우선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구역화는 보편원칙에 대한 비협상 원칙을 보전하면서도 문화 상대주의적 협상 공간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권력 · 문화 매핑' 단계는 맥락에서 작동하는 권력 구조와 문화적 역학을 가시화하는 분석적 매핑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분석(stakeholder analysis) 기법을 확장하여 공식적 · 비공식적 권력 관계, 문화적 권위의 원천,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과 수용의 동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내부 · 외부 이해관계자를 목록화하고 관심사 · 역할 · 영향력 · 권한을 변수로 하는 Stakeholder Matrix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협력 · 갈등 구조와 상호의존성을 가시화하는 이해관계자 지도를 구축하여 권력 관계의 위계성, 문화적 규범의 강도, 그리고 변화 동력의 잠재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한 후 각 이해관계자별 대응 계획을 작성한다.

나머지 단계에서는 실행과 평가를 수행한다. 먼저 앞선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입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설계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역별 차별화된 접근법을 적용하되, 문화적 감수성과 인권 실현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적 설계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설계된 개입 전략의 구체적 실행 과정으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응적 조정을 통해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저항에 대응한다. 이 단계에서는 실행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필요시 전략적 수정을 가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달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는 의도된 결과와 의도치 않은 결과 모두를 포괄하는 포괄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며, 특히 문화적 저항, 권력 관계의 변화, 그리고 보편원칙 실현 수준의 개선을 핵심 평가 지표로 설정한다.

본 모델은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을 극복하고 맥락적 적응성과 윤리적 일관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특히 내부 성찰을 통한 실무자의 주관성 인정과 구조적 분석을 통한 객관성 확보를 균형화함으로써 개발 실무에서 요구되는 실용적 판단력과 윤리적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실무 지향적 도구로서의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선형적 진행과 순환적 조정의 결합을 통해 체계적 접근과 유연한 적응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복잡하고 역동적인 개발 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3. 사례 적용

본 절에서는 국내 한 국제개발협력 수행 기관과 사업을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윤리적 개입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 정교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해당 기관은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개발 경험을 전수해 빈곤 · 취약 지역의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한국 본부, 현지 담당자, 마을 단위 실행 조직, 그리고 전문가 집단 간의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기관은 한국 본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 교민 또는 주민 1~2명을 현지 사업 담당자로 임명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오해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사업 참여 마을 차원에서는 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직되어 실질적인 사업 실행 주체로 기능한다. 마을 단위 조직 구성은 외부 주도적 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지 주민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참여도를 제고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본부 차원에서는 연간 2회 이상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파견하여 사업 성과와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현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업의 품질 관리와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적 접근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실무자와 전문가를 동시 포함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케 한다. 또한 5년 사업주기를 기준으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중간평가와 종료평가는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6가지 기준을 평가 준거로 활용함으로써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0~2024년 5년간 피지 Viti Levu 섬 3개 마을에서 실시된 농촌개발사업은 전술한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마을회관 · 상수도 · 도로 · 분리수거장 등 인프라 건설과 주민 소득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자가 2024년 10월 종료평가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성한 감정 로그는 문화적 권력 역학과 젠더 기반 차별 구조의 복합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윤리적 개입 프레임워크의 실증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표 1〉).

피지 사업에 대한 개입 프레임워크는 본 연구자가 2024년 10월 종료평가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성한 감정 로그를 바탕으로 적용하였다. 1단계인 개입 사안 도출을 위해 감정 로그를 검토한 결과 피지에서는 마을회관의 성별 공간 분리, 마을 회의에서의 여성 발언권 제한, 부녀회의 높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프로젝트 운영권 배제, 사업 운영권의 마을 대표 가족 집중, 성직자 · 대표 주택 우선 개선, 사업 지도자 교체 관련 책무성 문제, 기후변화 대비 사업 수요에 대한 미반영 등의 사안들이 포착되었다. 연구자뿐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기존 모니터링단의 보고에서도 젠더 권력관계 고려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단계인 구역 결정을 위해 1단계에서 도출된 개입 사안을 삼원적 구역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안이 '협상 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문화적 전통과 성평등 및 취약계층 우선 지원 원칙 간의 긴장이 존재하지만 대화와 점진적 변화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단계는 이해관계자간 권력 관계 매핑을 수행한다. 피지 사례의 경우 현지 사업 담당자를 통해 전통적 추장 제도와 현대적 마을 지도자 체계, 새마을지도자가 중첩되는 복합적 권력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원래 그러는 것'이라는 주민의 답변만을 받았기에 단기간 방문한 연구자가 이해관계자의 전체적인 모습과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표 1〉 피지 사례에 대한 윤리적 개입 모델 적용 결과

사업 개요	
분류	내용
국가	피지
사업 기간	2020~2024(5년간)
사업 지역	Viti Levu 섬 3개 마을
사업 유형	농촌개발사업(마을 단위 인프라 건설+소득사업)
사업 총예산	3억 6천만 원
사업 내용	마을회관, 상수도, 도로, 분리수거장 건설; 주민 소득사업 실시; 연 1회 한국 연수 프로그램
수행 체계	한국 본부 – 현지 담당자 – 마을 위원회 – 전문가 집단

윤리적 개입 모델 적용 결과					
1단계			2단계	3단계	…
개입 사안 도출			구역 결정	권력 매핑	…
분야	구체 사안	감정 로그 사례			
젠더	마을회관의 성별 공간 분리	“마을회관에서 공식적 회의에는 남성들만 참석. 마을 방문 손님 맞이 의례에도 여성은 미참여. 여성들의 공간은 주방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적인 회의에서는 invisible하므로 의아함”(2024년 X월 XX일 XX마을 방문 후 작성)	협상	공적 장소에서 젠더별 공간 구분	…
	마을회의 여성 발언권 제한	“XX 마을 여성 대상 인터뷰 시 마을회의에서 사업을 제안한 경험에 대해 묻자 여성들이 답을 얼버무림. 발언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것으로 보임”(2024년 X월 XX일 XX마을 방문 후 작성)	협상	공적 회의에서 여성의 발언권 제한적	…
사업 혜택의 배분	마을 대표자의 가족이 모두 사업에 적극 참여	“대표는 마을 대표자, 부인은 부녀회 대표자, 자녀는 총무로 사업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며, 모두 한국 방문 1~2회 경험. 혜택이 집중되는 듯한 인상을 받음”(2024년 X월 XX일 XX마을 방문 후 작성)	협상	마을 대표의 사업 배분권	…
	마을 성직자 주택 우선 개량	“마을 대표가 사업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평가단을 한 주택으로 데리고 감. 30대 정도의 남성이 실내에서 옷을 입으며 나왔으며, 대표는 개량한 결과라면서 화장실을 보여줌. 다른 주택에 비해 특별히 열악하지 않았기에 이유를 물으니 성직자를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관례라고 함”(2024년 X월 XX일 XX마을 방문 후 작성)	협상	마을 단위 성직자 우대 관습	…
책무성	마을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교체됨	“5년의 사업 기간 동안 마을 집행부가 3번 교체됨. 직전 회장이 비공식적으로 사업비를 착복한 것으로 현 집행부가 보고 있음. 책무성 문제가 마을의 사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2024년 X월 XX일 XX마을 방문 후 작성)	협상	마을 대표의 예산 관리권 및 책무성 강제 제도 부재	…

피지 사례에 대한 이상의 모델 적용은 성찰적 접근의 구체적 실천 사례로서 평가자 개인의 문화적 편향과 권력적 위치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윤리적 개입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델 적용을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사업지 방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이후 단계까지 적용하지 못했던 점을 포함하여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연구자 1인만의 감정 로그를 분석하여 사안 도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였다. 실제 적용에서는 모니터링단, 평가단, 현지 사업 담당자가 모두 감정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문화적 충돌과 권력 역학에 대한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하는 질적 데이터를 보다 풍부하게 다각적 관점에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조사 및 연구 활동의 부족으로 3단계 권력 역학 규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본부에서는 기존의 사업 체계 내에서 단계별 삼각 검증법을 도입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사업 담당자의 현지 평가를 통해 공식적·비공식적 권력 구조에 대한 내부자 관점을 확보한다. 둘째, 국내 연수 과정에 '마을 주민 관계도 도출 워크샵'을 추가하여 주민들이 직접 인식하는 권력 관계와 영향력 구조를 가시화한다. 셋째,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역사적·구조적 맥락을 파악한다. 이러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숨겨진 권력 관계와 비공식적 영향력 구조를 식별하고 개발 개입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분석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포착한 감정을 개입으로 연결하기 위한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단계 구역 분류 및 권력 역학은 연구자 개인의 예비적 판단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다. 이들 단계 및 향후 단계에서의 실질적 개입을 위해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 대상자의 참여, 본부의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화 전문가, 지역개발 전문가, 현장 실무자, 지역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가 논의를 통해 사안 도출, 구역 결정 및 확정, 권력 역할 조사, 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대표자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과 수용성 검증을 필수 절차로 포함해야 한다. 지역 대표자는 설계된 개입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피드백을 수집하여 협의체에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주민 수용성 검증 과정에서는 개입 방안에 대한 이해도, 참여 의지, 우려 사항, 개선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기술적 지식과 현지 주민의 로컬 지식을 대등한 위치에서 통합하여 모델에 반영해야 한다.

V. 논의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만큼 유관 기관의 실무 차원 활용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관에서의 적용을 위한 분야는 크게 체계 구축, 문화적 상대성 반영을 위한 장치 구축, 교육 강화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우선 조직의 공식적 절차와 연동되는 제도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인류학자, 지

역학 전문가, 현지 사업 담당자, 실무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입 사안 심의, 구역 분류 결정, 개입 전략 승인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관리주기(project cycle management)에 모델의 핵심 단계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선 사업 식별(identification) 단계에서 개입의 윤리적 전제를 검토하는 '내부 성찰'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기반으로 형성(formulation) 단계에서는 '권력 · 문화 매핑'과 '구역 설정'을 통한 정교한 상황 분석을 거쳐 전략적인 '개입 설계'를 완성해야 한다. 이후 실행(implementation) 및 모니터링(monitoring) 단계에서는 '감정 로그'를 활용한 '지속적 조정 루프'를 통해 권력 관계의 변화를 추적하며 사업을 적응적으로 관리하고, 마지막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는 윤리적 이슈 조기 발견율, 구역별 개입 성공률, 문화적 갈등 감소율 등의 정량적 지표와 현지 파트너 만족도, 문화적 적절성 평가 등의 정성적 지표를 설정하여 모델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윤리적 판단이 실무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검증 가능한 조직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문화적 상대성 반영 장치 구축은 주민 참여형 설계를 제도화하고 맥락 진단을 정례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업 지역별로 자문단을 두어 성 · 연령 ·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된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마을 회의 정례화와 익명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문화적 맥락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주요 금기사항, 의사소통 방식, 전통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한 문화 코드북을 제작하고, 도전 · 협상 · 존중 구역별로 차별화된 적응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 조직 내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적 갈등 발생 시에는 존경받는 현지 인사를 중재자로 하여 전통적 소통 방식을 활용한 단계별 조정 프로토콜을 운영함으로써 갈등의 건설적 해결을 도모한다.

셋째, 모델의 성공적 안착은 이를 운영하는 실무자의 역량과 조직의 문화에 달려 있으므로 교육 훈련을 통한 인적 기반 강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실무자 교육은 기초-심화-전문가 과정으로 단계화하여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주의 이해, 감정 로그 작성법, 이해관계자 매핑 기법, 윤리적 딜레마 해결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되, 시뮬레이션과 사례 기반 학습을 통한 체험형 교육으로 실무 적용력을 강화한다. 현지 파트너 역량 강화에서는 현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젠더 평등, 투명성, 참여 민주주의 모듈을 포함한 리더십 및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지역별 · 주제별 실무자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공동체 형성과 주간 성찰 일지, 월간 팀 성찰 세션, 분기별 조직 성찰 워크샵을 통한 성찰적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지속적인 조직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 차원의 적용 방안 외에도 연구에서 제안한 성찰적 실천가 기반 윤리적 개입 모델은 실제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 본 논의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이론적, 실천적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정책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가치 수준에서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성찰적 실천가 접근법이 보편주의의 폭력적 적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제시하는 윤리적 개입 모델에 대한 교조적 접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본 모델은 특정한 보편주의적 가치나 개입 방식을 일률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강제적 프레임워크가 아니다. 절차적 틀이 정형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맥락적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조적 폭력이나 긴급한 인권 침해 상황에서는 충분한 윤리적 숙고보다 즉각적 개입이 우선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모델은 사후적 성찰과 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문화적 긴장이 구조화되어 있으나 상호 조정이 가능한 개발 사업에서는 실무자가 충분한 시간과 상호작용 여유를 갖고 윤리적 판단을 구조화하는 인지적 도구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모델은 모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완결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불확실하고 복잡한 개발협력 현실에서 보다 책임감 있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틀로서의 인지적 보조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조적 적용에 대한 우려가 체계적 접근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구조화된 성찰 과정의 부재는 개발 실무자들로 하여금 임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판단에 의존하게 만들어 윤리적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개발 목적 달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교조적 경직성을 경계하되, 이를 이유로 체계적 성찰 과정까지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모델의 가치는 고정된 답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윤리적 사고와 성찰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본 모델은 개발협력의 윤리적 품질과 현장 적합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모델이 활동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참여적 개발협력을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활동가가 윤리적 판단의 주체로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지역주민은 수동적 수혜자로 전락하여 진정한 참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러나 참여적 민주주의 적용에는 한계가 따른다. 많은 개발협력사업에서 참여를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생업, 권력 구조 등으로 인해 주민의 참여율 자체가 저조한 경우가 많고 제한적 규모의 주민이 컨설팅을 위해 참여한다고 해도 주민 문맹률과 같은 현지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여와 민주적 절차 자체가 특정 맥락에서는 서구적 가치 강요로 인식될 수 있다는 문화 상대주의적 딜레마도 여전히 남는다. 이처럼 참여적 개발은 이론적으로는 적절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적 구현이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성찰 과정의 중심에는 사업 대상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여의 실질적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모델이 참여적 국제개발협력을 저해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천적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시간 및 비용 소요의 현실적 제약이다. 제안된 7단계 모델의 체계적 수행은 상당한 시간적 투자와 인적 자원의 집중적 배치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감정 포착에서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순환적 프로세스는 각 단계별로 충분한 성찰과 분석 시간을 요구하며 이해관계자 분석과 권력·문화 매핑 등의 체계적 수행은 전문적 역량과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제약 하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실적 여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모델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 규모와 맥락에 따른 단계별 적용 방안의 차별화, 핵심 단계만을 선별적으로 실행하는 간소화된 버전의 개발, 그리고 기존 사업 관리 프로세스와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의 현실적 보완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윤리적 판단의 주관성과 개인 및 조직의 역량 차로 인해 효과성이 상이할 수도 있다. 윤리적 개입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실무자 개인의 도덕적 성향, 가치 체계, 현지 권력 관계에 대한 분석적 민감성, 사업 내 역할과 책임 범위, 그리고 소속 기관의 조직 역량, 문화와 정책 지향성 등 다층적 변수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다면성으로 인해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입 여부와 방식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구조적 억압이나 권력 불균형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개인이나 조직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 문제 상황을 간과하거나 다자 간 협력 사업에서 윤리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 및 조직 차원의 성찰은 윤리적 판단의 최종 기준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두어야 하며, 집단적 피드백, 사례 공유, 제도화된 윤리 검토 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검증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성찰적 실천가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개입 모델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우선 국내 국제개발협력 기관(NGOs 포함)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윤리 개입 경계 설정을 위한 증거 기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윤리적충돌이나 개입 실패 및 성공사례 등 개별 기관이 산발적으로 보유한 경험을 집단적 학습 자원으로 전환하여 윤리적 개입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는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에서는 또한 공동으로 축적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역, 보편원칙, 시기 등 여러 기준에 따른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구축 및 공유함으로써 유관 기관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유관 기관 및 개인 간 윤리 기준의 일정 수준 합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윤리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성향과 가치 체계, 현지 권력 관계에 대한 인식적 민감성과 분석 역량, 사업 내에서의 기능적 역할과 책임 범위, 소속 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책적 지향성 등 다면적 변수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서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권력 불균형이나 구조적 억압이 뚜렷함에도

개인에 따라 이를 '문제로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특히 다자 간 협력 사업에서 불가피하게 윤리적 판단의 주관적 차이를 야기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협력 주체들 간의 규범적 불일치와 실천적 갈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찰은 윤리 판단의 단독 기준이 아니라 정당한 판단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며, 그 유효성은 집단적 피드백, 사례 공유, 제도화된 윤리 검토 구조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윤리적 개입의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감정 기반 성찰과 사회적 검증을 위한 구조가 상호작용하는 공간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Ⅵ. 결론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장에서 실무자가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 '성찰적 실천가'를 기반으로 3구역 7단계로 구성된 윤리적 개입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입 사안은 '도전 · 협상 · 존중' 구역으로 설정하여 구역에 따라 대응 방안을 달리한다. 다음으로 우선 실무자의 감정에서 포착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 그룹 성찰 과정을 거쳐 개입 여부 및 개입 결정된 사안의 구역을 결정한 후, 이해관계자 분석 등을 활용해 권력 · 문화 매핑 수행한 후 개입 설계 및 실행, 마지막으로 평가 및 환류를 거쳐 윤리적 개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는 내 · 외부적 성찰을 통해 개입 사안 포착부터 환류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편견에 대한 의심을 통해 위치성을 의식하고 동료 및 사업 대상자 등과 소통하면서 개입 방안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성찰적 실천가 이론을 국제개발협력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 메커니즘으로 확장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추상적 윤리 담론을 실무자 중심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개발학 분야에서 그동안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간의 이론적 긴장 관계를 절충하는 규범적 선언에 머물렀던 윤리적 실천 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적용하도록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기여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성찰적 실천가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개발 실무자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최근 개발학 분야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Chambers, 2017; Clouser, 2016; Jakimow, 2022). 해당 학계에서는 감정이 억압적 관행이나 배제 구조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긴장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성찰과 규범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무자의 감정과 경험을 윤리적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Noh, 2023). 그러나 본 연구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므로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일관성과 정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실무자의 감정은 윤리 감각의 기초로 의미를 지니되, 그것이 실천적 판단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숙의 가능한 규범 체계와 제도로 구체화된 절차를 통해 사회적으로 승인 가능한 기준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계화된 개입 모델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실천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기관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개입의 경계 설정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

중물을 제공한다. 이는 다양한 개발협력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유연성과 확장성을 담보하여 기관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윤리적 개입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구는 성찰적 실천가 기반 윤리적 개입 모델의 이론적 구축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사업 규모, 조직적 특성, 개인 역량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적용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 규모, 기간과 단계, 윤리적 딜레마의 복잡성 정도에 따른 단계별 모델의 적용 기준 정립, 기관의 조직적 특성(규모, 전문 영역, 운영 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 조정 메커니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여전히 모델이 이론에 치우친 경향을 지닌 만큼 Agile 접근 등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기민한 전략 조정 방안이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정필운, 박선웅. (2019).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논쟁: 인권이론과 인권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세법학, 34*, 97-117.

Abu-Lughod, L. (1998). *Remaking women: Feminism and modernity in the Middle Ea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u-Lughod, L. (2002). Do Muslim women really need saving?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cultural relativism and its others. *American Anthropologist, 104*(3), 783-790.

Agyare, P. (2024). Contextualizing human rights in multicultural environments. *Research in Social Sciences and Technology, 9*(3), 210-230.

Anderson, M. B. (1999). *Do no harm: How aid can support peace—or war*.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Argyris, C., & Schön, D. A. (1974). *Theory in practice: Increasing professional effectivenes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Banks, S., Shevellar, L., & Narayanan, P. (2023). Ethical issues in community development: Setting the scene.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58*(1), 1-18.

Bashir, N. K. (2023). Community gatekeepers: Power, pitfalls and possibilities when recruiting and researching 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BAME) participants. *The Qualitative Report, 28*(5), 1501-1519.

Bell, D., & Carens, J. H. (2004). The ethical dilemma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NGOs: Reflections on a dialogue between practitioners and theorists. *Human Rights Quarterly, 26*(2), 300-329.

Bell, D. A., & Coicaud, J. M. (2006). *Ethics in action: The ethical challeng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as, F. (1966). The aims of anthropological research. In F. Boas (Ed.), *Race, language, and culture* (pp. 243-259). New York, NY: Free Press.

Brown, M. F. (2008). Cultural Relativism 2.0. *Current Anthropology, 49*(3), 363-383.

Bukuluki, P. (2013). Negotiating universalism and cultural relativism in peace and development studies. *International Letters of Social and Humanistic Sciences*, *10*, 1-7.

Chambers, R. (2017). *Can we know better? Reflections for development*. Rugby: Practical Action.

Chambers, R., & Pettit, J. (2013). Shifting power to make a difference. In L. Groves & R. Hinton (Eds.), *Inclusive aid* (pp. 137-162). London: Routledge.

Clouser, R. (2016). Nexus of emotional and development geographies. *Geography Compass, 10*(8), 321-332.

Dolgoff, R., Loewenberg, F. M., & Harrington, D. (2005). *Ethical decis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Belmont, CA: Brooks/Cole.

Donnelly, J. (2013).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Eyben, R. (2014). *International aid and the making of a better world: Reflexive practice*. New York, NY: Routledge.

Fook, J. (2015). Reflective practice and critical reflection. In S. Shardlow, J. Aldgate, A. Gibson, J. Brearley, B. Daniel, D. Statham, M. Sheppard, G. Macdonald, P. Marsh, S. Walker, & M. Doel (Eds.), *Handbook for practice learning in social work and social care: Knowledge and theory* (3rd ed.). London: SAGE.

Gasper, D., & Truong, T. D. (2005). Deepening development ethics: From economism to human development to human security.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7*(3), 372-384.

Global Protection Cluster. (2024). *Protection risks and human rights analysis matrix*. Geneva: Global Protection Cluster.

Healy, L. M. (2007). Universalism and cultural relativism in social work ethics. *International Social Work, 50*(1), 11-26.

Heron, B. (2005). Self-reflection in critical social work practice: Subjectivity and the

possibilities of resistance. *Reflective Practice, 6*(3), 341-351.

Jakimow, T. (2022). Understanding power in development studies through emotion and affect: Promising lines of enquiry. *Third World Quarterly, 43*(3), 513-524.

Kreitzer, L., & Wilson, M. (2010). Shifting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alliances in social work: Lessons from Ghana and Nicaragua. *International Social Work, 53*(5), 701-719.

Maguchu, P. (2020). Localizing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fight corruption: The role of ubuntu. *Cross-cultural Human Rights Review, 2*(1), 5-22.

Merry, S. E. (2006). Transnational human rights and local activism: Mapping the middle. *American Anthropologist, 108*(1), 38-51.

Moka-Mubelo, S. J. W. (2019). Towards a contextual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Ethics & Global Politics, 12*(4), 40-52.

Muhula, S., Mveyange, A., Oji Oti, S., Bande, M., Kayiaa, H., Leshore, C., Kawai, D., Opanga, Y., Marita, E., Karanja, S., Smet, E., & Conradi, H. (2021). The impact of community led alternative rite of passage on eradic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in Kajiado County, Kenya: A quasi-experimental study. *PLOS ONE, 16*(4), e0249662.

Noh, J. E. (2023). Ethical challenges faced by Korean development practitioners in international community development practice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58*(1), 44-63.

Renteln, A. D. (2013). *International human rights: Universalism versus relativism*. London: Quid Pro Books.

Said, E. W. (1978). *Orientalism*. New York, NY: Pantheon.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NY: Basic Books.

Shell-Duncan, B. (2008). From health to human rights: Female genital cutting and the politics of intervention. *American Anthropologist, 110*(2), 225-236.

Spivak, G. C. (2023). Can the subaltern speak? In P. H. Cain & M. Harrison (Eds.), *Imperialism* (pp. 171-219). London: Routledge.

Strumm, B. (2020). Using critical reflection to question self and powe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Gender & Development, 28*(1), 175-192.

Thompson, N., & Pascal, J. (2012). Developing critically reflective practice. *Reflective Practice, 13*(2), 311-325.

United Nations (UN). (2003).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agencies*. New York, NY: UNDP.

UN. (2025). UNDP highlights its support to regional insider mediators on International Day of Peace. New York, NY: UN.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4). *Supporting insider mediation: Strengthening resilience to conflict and turbulence*. New York, NY: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5).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programming HRBA toolkit*. New York, NY: UNDP.

von Seggern, J., Holst, J., & Singer-Brodowski, M. (2023). The self in the mirror: Fostering researchers' reflexivity in transdisciplinary and transformative studies at the science-policy interface. *Ecology and Society, 28*(2), 17.

Zechenter, E. M. (1997). In the name of culture: Cultural relativism and the abuse of the individual.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53*(3), 319-347.

Zwart, T. (2012). Using local culture to furthe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receptor approach. *Human Rights Quarterly, 34*(2), 546-569.

논문 접수일: 2025. 6.13.
수정논문 접수일: 2025. 8. 8.
게재 확정일: 2025. 9. 2.

Negotiating Ethical Boundar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 Reflexive Framework for Culturally Embedded Interventions[*,**]

Souyeon Nam[***]

Abstrac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actitioners often face ethical dilemmas when traditional practices such as patriarchy, corruption, and nepotism impede project goals and human rights. These challenges highlight tensions between universalism and cultural relativism. However, existing "soft universalism" approaches remain normatively abstract and insufficiently practical. This study proposes an ethical boundary intervention model grounded in reflective practitioner theory and the emerging scholarship on emotions in development. The model includes stages of emotional cue recognition, individual and group reflections, power and cultural mapping, interven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and feedback. It emphasizes practitioner positionality and stakeholder communication, offering a practical framework for navigating ethical complexities in development practice.

Key words: Universalism, Cultural Relativism, Development Ethics, Reflective Practitione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25 Sungkyul University Research Grant.

[**] This paper was based on the research presented at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n 2025.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ungkyul Universtiy / skatndus@sungkyul.ac.kr

『국제개발협력』 운영지침

국제개발협력지 운영지침

제정 2019.10.16. 지침 제289호
개정 2021.04.12. 지침 제350호
개정 2023.03.15. 지침 제474호
개정 2024.05.24. 지침 제528호
개정 2025.09.29. 지침 제5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이「간행물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정책적·실무적 아이디어 개발에 기여하고자 발간하는「국제개발협력」학술지의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제개발협력」학술지(이하"국제개발협력"이라 한다) 발간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개발협력(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연구 학술지를 의미한다. 〈개정 2025.09.29.〉
2. "저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주저자"(first author)는 논문 저자 명단 중 가장 먼저 오는 자로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자를 의미한다. "공동저자"(co-author)는 "주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자들을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4조(연구윤리자가진단서)

① “국제개발협력”에 연구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윤리자가진단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이하 “연구윤리자가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연구윤리자가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논문유사도를 포함한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사결과를 ‘연구윤리자가진단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를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직은 연구의 구상, 설계, 자료수집, 연구비 지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연구 성과의 출판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다른 지면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연구윤리위원을 겸임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지침 제2장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 윤리 사항, 연구 정직성 및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⑥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의 공정성)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의 통지 과정

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조(표절)
①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게재한 경우
2. 기 출간된 타인의 연구저술의 연구 설계,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연구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4.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논문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②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표절 여부의 판정 권한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2. 표절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2인이 수행하도록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2인의 1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표절 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4. 표절 의혹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다.
5. 표절 의혹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한다.
③ 표절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한다.
1. 편집위원회에 의해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그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2.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제개발협력”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3. 편집위원회는 본 조에 따른 업무가 종료된 후 표절 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

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9조(논문의 중복게재)

①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2. 이미 출판된 연구물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인 경우

②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중복게재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의 제재를 부과한다.

1. 중복게재 신청 여부의 심사는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가 판정을 내린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3.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3년간 “국제개발협력”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4.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③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10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 구성은 10인 내외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내외부에서 추천한 자로서 협력단 연구 업무 소관 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구성 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문적 수월성과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협력단의 정책 및 사업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되며,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및 징계사항 등의 전력이 없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5.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 부서 내 1인이 되며, 위원회의 학술지 발간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직무는 다음의 호를 따른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하며,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력단 연구업무 소관 부서장 혹은 편집위원장이 지정하는 편집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위원회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들을 심의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국제개발협력" 발간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4. "국제개발협력"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국제개발협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동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국제개발협력」 학술지의 발간 및 활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의 성실성)

① 논문 게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그 저자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편집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단 연구업무 소관 이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편집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장)의 직무수행의 성실성이 저해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편집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편집위원회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제11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협력단의 필요에 따라 연구소관부서는 회의를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편집위원(장)에게는“예산집행 매뉴얼”내 ‘외부인력 참석 및 행사업무’ 중 ‘위원회 및 설명(보고)회 업무’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9.29.〉

제4장 발행규정

제14조(발행처)

“국제개발협력”의 발행처는 협력단으로 한다.

제15조(발행횟수 및 발행형태)

①“국제개발협력” 발간 횟수는 1년에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 횟수를 증감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학술지 발행일자 및 원고 마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은 매년 6월 30일과 11월 30일 자로 발행한다.
2. 원고 마감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학술지는 저널 형태의 인쇄본으로 출판되며, 원문은 국제개발협력저널 홈페이지(ejidc.org) 또는 협력단 ODA 도서관을 통해 무상 제공된다.

제16조(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 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 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접수일,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등 심사단계를 논문 내에 표기한다.

제17조 [본조삭제 2024.05.24.]

제18조(발행인 및 편집처) 발행인은 협력단 이사장으로 하며, 편집처는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저자 투고료 및 심사수당)

① 저자는 논문 투고 시 별도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협력단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서 「조사연구사업규정」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는 논문 1편당 지급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에게 지급한다.

③ 협력단은 논문의 심사 진행 시 심사자에게 별지 제 6호 심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발행 부수 및 별쇄본) 발행 부수는 관련 예산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며 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편집규정

제21조(논문구성) 본지에 투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논문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어긋날 경우 논문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① 한글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영문 원고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② 논문의 본문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이며,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갖추어야 한다.

1. 논문게재신청서
2. 본문 및 각주
3. 참고문헌 및 부록

③ 연구비 수령 표기 및 논문 사사 표기는 각주로 기재한다. 협력단이 지원하는 일체의 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연구비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공동집필인 경우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한다.

⑤ 한글 논문은 국·영문 초록을, 영문 논문은 영문 초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국·영문 초록은 원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야 하며 내용을 이해하

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길이는 언어별로 A4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원고체계) 원고의 편집체계는 다음과 같다.

① 한글 원고의 편집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글씨체: KoPub바탕체
2. 본문 글자크기 12p, 각주 글자크기 10p,
3. 표와 그림 글씨체: KoPub돋움체, 제목 글자크기: 12p 내용 및 출처 글자크기: 11.5p
4. 줄간격 17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및 꼬리말 15

② 영문 원고의 편집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글씨체: KoPub바탕체
2. 본문 글자크기 12-point font

③ 본문 서술의 순서는 "Ⅰ.", "1.", "1)", "(1)" 순차로 매긴다.

④ 표나 그림 제목은 "〈표 1〉 …"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윗부분에 달아준다. 표나 그림의 출처('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표나 그림의 주석 순서는 개별주, 일반주, 출처의 순서로 제시한다.

제23조(인용 표시)

① 인용을 할 경우, 저자명, 간행연도를 반드시 명기하며, 인용 페이지는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가.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본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 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이상백(2009)…"; [예2] "…라 했다(이상백, 2009: 23)."

나.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킬 경우, 원어로 표기한다. 또한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 번역서와 원서에 관계없이 저자명은 원어로 표기한다.
[예] "…Mills(2011: 66)는 …"

다.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중간점으로 구분하고 병기한다.
[예] "…(이상백·김채윤, 2006: 25), …(Lee & Xang, 1999)"

라.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문승규 외, 2014: 16), … (Romeo et al., 2010) "
마.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김일철, 2017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바. 다수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고, 연도 순으로 정렬한다.
[예] "…(홍길동, 2016; 김철수, 1999; Johnson et al., 2010)"

제24조(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 한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② 참고문헌은 아래의 예시를 따르며,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형식은 APA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가.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나.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 …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다.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영문저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은 앞글자 약어를 사용한다.
[예] “Cannel, C. F., Miller, P., & Oksenberg, L. (1981).…”
라. 국문 참고문헌의 저자명이 기관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 국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 한국국제협력단. *201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마.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n.d.(not determined)를 사용한다.
바.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 Author, A. A. (year). *Title of work* (xx ed., Vol. xx). Location: Publisher.
- Author, A. A. (year). Title of chapter. In A. Editior, & B. Editor (Eds.), *Title of book* (xx ed., Vol. xx, pp. xx-xx). Location: Publisher.
- 이정희, 우승지. (2009). *현대국제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 파주: 법문사.
- 차종천. (1990a). 동아시아와 서구의 사회이동 비교. 송호근 (편), *노동과 불평등* (pp. 125-149). 파주: 나남출판.
- 차종천. (1990b).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 93-122). 서울: 성원사.
- Easterly, W. (2011). *The elusive quest for growth.* Cambridge: MIT Press.
- Beger, P. L., & Xiao, X. M. (Eds.). 1988.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Cannel, C. F., Miller, P., & Oksenberg, L..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389-437). San Francisco, CA: Jossy-Bass.
- 菅谷章 (스가랴 아키라). 1988. *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論社.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力移動. 森田桐郎 (編), *國際勞力移動* (pp.1-54).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 학술지

- Author, A. A., Author, B. B., & Author, C. C. (year). Title of article. *Title of Periodical, volumn*(issue), page range.
- 홍은경. (2016). 개도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국제개발협력*, *2016*(4), 73-96.
- Mullin, W. J, & Arce, M. (2008). Resilience of families living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1*(4): 424-440.

(3) 연구보고서

- Author, A. A. (1998). *Title of work* (Report No. xxx). Location: Publisher.
- 김수진. (2015). *신흥공여국 ODA정책과 현황: 슬로베니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김지현. (2015).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I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
- 한국국제협력단. *201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World Bank. 2013. *Innovative finance for development solutions: initiatives of the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World Bank.

(4) 인터넷 문서

- Author, A. A. (Year, Month Day). Title of post [Description of form]. Retrieved from http://www.xxxx
- 통계청. (2014). 보건·사회·복지 통계자료. http://www.kosis.kr
- Dunning, C., & Kalow, J. (2016). SDG indicators: Serious gaps abound in data availability [Website]. Retrieved from http://www.cgdev.org/blog/sdg-indicators-serious-gaps-abound-data-availability
- IAEG-SDGs. 2016.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Retrieved from 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5) 학위 논문

- Author, A. A. (year). *Title of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thesi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thesis). Name of Institution, Location.
- 이순아. (2013). *경제위기 전후 빈곤결정 양상의 변화: 미시요인 및 거시요인의 영향 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주: 전북대학교.

- Shin, H. H. 1990.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HI.

(6) 학회 발표

- Presenter, A. A. (year). *Title of article*.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r Conference, Location.
- Presenter, A. A. (year). *Title of article*. In *Title of proceedings* (pp. xx-xx, Article number). Location: Publisher.
- 한승주. 2010.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관련한 정책갈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영남대학교, 경산.
- IAEG-SDGs. 2016. The 47th session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outcome on global SDG indicators. Paper presented at the 3rd meeting of the IAEG-SDGs, Mexico.

(7) 번역서 및 번역보고서

- Weber, M. (1990). *유교와 도교* (이상율 역). 서울: 문예출판사.
- Clegg, S. R., Higgins, W., & Spybey, T.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 김혁래, 박길성, 유흥준 (편), *신 경제사회와의 이해* (pp. 195-210). 서울: 역사비평사.
- Weber, M. (1951). The religion of china (H. H. Gerth, Trans.) New York: Fre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0).

제6장 논문기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제25조(논문 기고의 요건)

①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의 성격 및 형태는 순수이론적인 논문, 실증분석논문, 사례연구, 응용연구 및 정책분석 등 방법론상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②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③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타 학술지(연구보고서, 대학논총 등 포함), 학위 논문 등의 경우에는 그대로는 투고할 수 없으며, 축약본 또는 수정 보완한 형태로 투고 가능하되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④ 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조사 일체의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⑤ 사사 표기와 관련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 등 논문 특이사항은 그 내용을 국문 제목에 각주로 표기한다.
2. 학위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축약,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예시1) 학위 논문의 경우: 본 논문은 홍길동(2016)의 OO학위 논문 “OOO”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예시2) 보고서의 경우: 본 논문은 ‘홍길동. 2016. OOO. 발행도시: 발행기관’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3. 참여한 협력단 사업 및 조사와 관련한 연구일 경우: 본 논문은 (기간, 연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사업/활동명”의 현장자료를 활용한 연구임 (no.한국국제협력단 해당 사업/활동 계약번호)

⑥ 투고된 논문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실무 및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시사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제26조(논문의 접수)

① 논문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각 권 1호의 경우 발행전 연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2호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권고한다. 〈개정 2025.09.29.〉

②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본문 외에도 논문게재신청서, 연구윤리자가진단서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제25조에 어긋나거나 학술지의 성격에 배제된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논문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을 배정하며, 저자와 동일한 기관 근무자는 배제한다.

② 심사기한은 투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로 한다. 30일 이내 심사가 완

료되지 않을 경우,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자신이 투고한 원고의 심사위원 추천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특별기고 원고의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와 같이 논문 심사를 생략할 시, 편집간사 및 연구 소관부서장은 원고료를 지급받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 및 회피 신청해야 한다.
⑥ 상기 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의 통지과정에서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익명성과 논문심사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8조(판정기준)

① 심사는 별지 제4호 국제개발협력지 심사결과서 양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심사 판정기준은 초심에서 accepted,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reject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심사 횟수는 초심을 포함하여 2회로 한정하며, 2회 연속'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게재불가'로 결정한다.
③ 심사 결과에 근거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자 1	심사자 2	판정결과
accepted	accepted	그대로 게재
accepted	minor revision	수정 후 게재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accepted	major revision	수정 후 재심
accepted	reject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major revision	major revision	
reject	minor revision	
reject	major revision	
reject	reject	게재불가

④ '그대로 게재'는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⑤ '수정 후 게재'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편집위원회가 최종 확인한다. 〈개정 2025.09.29.〉
⑥ '수정 후 재심'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를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⑦ '게재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재투고 될 수 없다. 〈개정 2025.09.29.〉

제29조(수정논문 제출기한 및 게재 확정)

① 편집간사는 게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심사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는 편집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후 최종 논문 파일을 제출한다.

③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④ 수정된 논문의 제출기한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최대 1개월로 하고 주저자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고를 자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5.09.29.〉

⑤ 주저자는 수정논문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국제개발협력지 수정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제29조의2 (심사결과 이의 제기)

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저자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메일로 이의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청구가 있는 심사 논문의 원문과 심사의견, 청구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 기각 : 청구이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권으로 기각
2.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회부 : 청구이유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3. 재심사 : 청구이유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롭게 심사위원 2인을 배정하여 재심사 실시

③ 저자는 전항 제2호 및 제3호 재심사 결과에 따른 게재불가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다툴 수 없다.

제30조(저작권) ① 협력단은 최종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무상사용권한을 갖는다.

② 논문 투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1조(개인정보 관리)

① 협력단은 논문 투고 및 심사, 게재를 비롯한 편집위원회 운영 등 국제개발협력지 발간 및 운영업무 전반에 걸쳐 필요한 논문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장)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관련법령 및 협력단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부칙 〈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9.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소속 :

성명 : (인)

상기 본인은 '*(논문제목)* '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첫째, 연구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 재산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본인은 연구 최종 결과에 대한 표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표절검사 및 유사성 검사를 사전에 실시한다.

표절 검사 활용 프로그램명	
표절 검사 기준	*예. 6어절 이상 일치,* *1문장 이상 일치 등*
최종 표절률 (20% 이내 인정)	

다섯째, 본 논문이 '국제개발협력'에 게재될 경우,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부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이양하기로 동의한다.

저 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수신 이메일	전화 번호	서 명
제 1 저 자				연락처 1 : 연락처 2 :	
공동저자1				연락처 1 : 연락처 2 :	
공동저자2				연락처 1 : 연락처 2 :	
교 신 저 자				연락처 1 : 연락처 2 :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영문)
〈개정 2025.09.29.〉

JIDC
Research Ethics and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Title of Manuscript:_____

I hereby certify that I agreed to submit the manuscript entitled as above to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 This manuscript is original and there is no copyright problem, defamation and privacy intrusion. Any legal or ethical damage should not be directed to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ue to this manuscript.

• All authors contributed to this manuscript actually and intellectually and have responsibility equally to this manuscript.

• This manuscript was not published or considered for publication to any other academic journals in the world. It will not be submitted again to other journal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f it is accepted for publication.

• Copyright of this manuscrip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f it i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means that if any persons including authors want to use the contents of this manuscript, they should receive the permission from the Society and the source of contents should be clarified.

And I declare that I have abided by the following Code of Research Ethics while writing this paper.

• First, I have strived to be honest in my conduct, to undertake valid and reliable research conforming with the guidance of ethical regulations for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 affirm that my paper contains honest, fair and reasonable conclusions based on my own careful research under the guidance of ethical regulations for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Second, I have not committed any acts that may discredit or damage the credibility of my research. The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falsification, distortion of research findings or plagiarism and false authorship.

Date : YYYY/MM/DD

Name of the First Author / Signature: _____

Name of the Co-author1/ Signature: _____

Name of the Co-author2/ Signature: _____

Completed and signed Research Ethics and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must be submitted with manuscript.

[별지 제2호 서식] 논문게재신청서

논문게재신청서

<table>
<tr><td>논문제목(국문)</td><td colspan="4"></td></tr>
<tr><td>논문제목(영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주저자</td><td>성명</td><td>(국문)</td><td colspan="2">(영문)</td></tr>
<tr><td>소속</td><td></td><td>직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전화</td><td></td><td>팩스</td><td></td></tr>
<tr><td>이메일</td><td colspan="3"></td></tr>
<tr><td>저자
약력</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공동저자</td><td>성명</td><td>(국문)</td><td colspan="2">(영문)</td></tr>
<tr><td>소속</td><td></td><td>직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전화</td><td></td><td>팩스</td><td></td></tr>
<tr><td>이메일</td><td colspan="3"></td></tr>
<tr><td>저자
약력</td><td colspan="3"></td></tr>
<tr><td>목차</td><td colspan="4"></td></tr>
<tr><td>국문요약</td><td colspan="4"></td></tr>
<tr><td>국문키워드</td><td colspan="4"></td></tr>
<tr><td>영문요약</td><td colspan="4"></td></tr>
<tr><td>영문키워드</td><td colspan="4"></td></tr>
<tr><td>기타</td><td colspan="4">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 서술
1) 타 연구비를 수령하여 진행한 연구의 경우,
2)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타 학술지, 학위논문등의 축약본</td></tr>
</table>

	또는 수정보완한 형태의 논문인 경우 *3) 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조사 일체의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한 경우* *4) 협력단이 지원하는 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자가 투고한 경우*

* 논문요약은 국문 기준 700자 내외, 영문기준 300단어(words)로 제한하며, 3~5개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Key words)제시

[별지 제2-2호 서식] 논문게재신청서 (영문) 〈개정 2025.09.29.〉

JIDC Title Page
(with Author Details)

Title (English)				
First Author	Name	(Korean)	(English)	
	Organisation		Position	
	Address			
	Phone		FAX	
	Email			
	Profile			
Co-author *(if necessary)*	Name	(Korean)	(English)	
	Organisation		Position	
	Address			
	Phone		FAX	
	Email			
	Profile			
Table of Contents				
Summary of manuscript (English) (less than 200 words)				
Research Keyword (English) (3-5 words)				
Others	*If applicable to any of the following, pelase describe:* *1) Papers produced under other research grants,* *2) Abbreviated or revised version of papers presented at academic conferences, other journals, dissertation*			

	before, *3) Papers based on materials acquired in the course of KOICA projects and research,* *4) Papers submitted by individuals currently underatking a KOICA-supported degree program (as part of the Fellowship Program (CIAT)).*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정 2025.09.29.〉

연사료·원고료·자문료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국제협력단은 연사료·원고료·자문료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속, 직급,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수상실적, 저역서 및 학술논문(이력서), 계좌번호, 사진	발표료·원고료·자문료 지급을 위한 전문가 등급 책정 및 지급	2년(재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발표료·원고료·자문료 지급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사유	보유기간	수집 근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중 선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5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별지 제3-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영문)

JIDC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greement
- *For author*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llects and uses your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manuscript fee when the author's manuscript is determined to be published on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 To provide manuscript fee to the author when his/her manuscript is determined to be published on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 Required: Name, Sex, Date of Birth, Nationality, Current Address, Contact Number(mobile or home), E-mail, Current Workplace and position, List of Certifications, Degree information, Work Experience information, photo, bank account

3. Retention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 Two years (after then, immediately destroyed.)

4. Right to Disagree and Disadvantages

• You may dis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f you disagree, manuscript fee cannot be providen to the author.

☐ I agree ☐ I disagree

Date : YYYY/MM/DD

Name of the Author : _____

Signature : _____

Completed and signed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greement must be submitted with manuscript.

[별지 제4호 서식] 국제개발협력지 심사 결과서

국제개발협력지 20xx년 □ 1호 / □ 2호

국제개발협력지 심사 결과서

□ 초심 □ 재심

심사자명		**소 속**	
논문제목			
심사일자			
심사총평 (저자에게 전하는 말)			

	영역	내용	판정등급				
			A (20)	B (16)	C (12)	D (8)	E (4)
심사 기준	**연구의 활용가능성 (20점)**	○ 연구내용의 구체 수준 ○ 관련된 개발협력 대내외 환경·맥락에 대한 분석적 토대 수준 ○ 논문이 정보의 양 및 구체성 ○ 개발협력 전략·사업 시사점에 대한 연구내용의 유의미 수준					
	연구 독창성 (20점)	○ 연구주제, 방법, 설계 측면에서의 참신성					
	내용의 논리성 (20점)	○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과정 간의 논리적 연계성 ○ 국제개발협력 분야 논문으로서의 구성의 적합성					
	연구방법론의 적절성 (20점)	○ 문제제기와 방법론 간 연계의 타당성 ○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간 연계의 타당성 ○ 연구과정의 논리적 타당성과 신뢰성 ○ 모집단 설정, 표본선정, 조사결과의 연구적 해석의 적절성 ○ 결론 도출의 타당성					
	연구서술의 적절성 (20점)	○ 인용 자료에 대한 저자·문헌 표기 등 성실한 서술 여부(referencing) ○ 참고문헌 작성에 대한 관례 준수 여부 ※ 표절부분이나 인용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부분은 지적 요망 ○ 연구서술에 대한 가독성 ○ 목차 구성과 서술 방식의 논리적 흐름					
	총점		( )점 / 100점				

최종판정	**게재 (100-90점)**	**수정후 게재 (89-80점)**	**수정후 재심사 (79-70점)**	**게재불가 (69-0점)**

편집위원에게 전하는 심사의견	

[별지 제5호 서식] 국제개발협력지 수정 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개정 2025.09.29.〉

국제개발협력지 수정 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주저자명:
소 속 :
연구명 :
당초 논문 제출 기한 :
연 락 처 :

본인은 국제개발협력지 운영지침 제29조(수정논문 제출기한 및 게재 확정) 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논문제출 기한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수정논문 제출기한 및 게재 확정)
④ 수정된 논문의 제출기한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최대 1개월로 하고 주저자의 서면요의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기한을 초과하는우에는 투고를 자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저자는 수정논문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우,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국제개발협력지 수정논문 제출기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 신청기간 (1개월 이내) : 년 월 일까지
2. 연장 신청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별지 제5-2호 서식] 국제개발협력지 수정 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영문)
〈개정 2025.09.29.〉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to Submit a Revised Manuscript to JIDC

First author name:

Organisation:

Title of Manuscript:

Original manuscript resubmission deadline:

Cont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Deadline for Submission of Revised Manuscripts and Confirmation of Publication), paragraph 4 of the *"Operational Guideline for Journa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JIDC),"* I would like to request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revised manuscripts as follows:

> **Article 29 (Deadline for Submission of Revised Manuscripts and Confirmation of Publication)**
> *Paragraph 4.*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the revised paper is up to one month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result of the review, which can be extended within one month upon written request of the first author; if the deadline is exceeded without special reason, the manuscript is considered as voluntarily withdrawn.

1. Extension Request Deadline (within 30 days) : *YYYY/MM/DD*
2. Reason for Requesting to Extend : *(be specific)*

Date: YYYY/MM/DD

Name of the author:_____

Signature:_____

[별지 제6호 서식] 심사료 지급 기준 〈개정 2025.09.29.〉

국제개발협력 심사료 지급 기준

□ 심사료

구분	지급액	비 고
심사료	80,000원	■ 심사위원별 심사 대상 논문 1건당 80,000원을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 1명은 한 호당 최대 3건의 논문 심사 가능 (1인당 심사료 최대 240,000원 지급 가능) ■ 국문, 영문 논문 일체에 대한 심사료 기준 동일

o 단내직원이 심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내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학습시간을 부여한다.

국제개발협력 20권 2호

발 행 일 2025년 11월 30일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교육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031-740-0749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거목문화사/거목인포 02-2277-3324

[무단복제를 금함]
pISSN 2093-212X eISSN 2671-9797

연구자료
연구교육 2025-19-198

pISSN: 2093-212X / eISSN 2671-9797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749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